

교육개발

EDUCATIONAL DEVELOPMENT

제 3권 3호 통권12호

1981. 6

特輯：幼兒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
福祉社會와 幼兒教育의 發展方向
幼兒敎師 養成教育의 方向
幼兒教育의 內容및 指導方法
幼兒教育 施設
새마을 協同幼兒園(事例)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韓國教育開發院은 우리의 傳統과 現實에 알맞는 教育의 理念, 目的, 內容, 方法 등에 관한 綜合的 이며 科學的인 研究를 遂行하고, 韓國教育이 當面한 諸般問題를 해결하는 새로운 方案을 研究 開發하여 長期的인 國民教育發展에 寄與할 것을 目的으로 設立되었으며 韓國教育開發院 育成法(1973. 3. 14 法律2616號)에 依하여 保護育成되는 研究機關입니다.

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연구개발 및 현장교육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교육전문지입니다. 교육에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이 간행물을 보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활동이나 교육문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편집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卷頭言 國家發展과 幼兒教育.....李延燮 · 3

論壇 社會의 構造的 變化를 위한
 教育의 役割 車京守 · 5
 教育政策의 計劃的 過程..... 鄭泰範 · 8
 家庭教育環境의 問題와 改善方向.....柳岸津 · 11

特輯 幼兒教育 發展의 展望과 課題
 福祉社會와 幼兒教育의 發展方向鄭元植 · 14
 幼兒教師 養成教育의 方向金在恩 · 18
 幼兒教育의 內容 및 指導方法.....李元寧 · 22
 幼兒教育 施設.....李基淑 · 26
 새마을 協同幼兒園(事例).....姜英奇 · 29

研究報告 幼稚園 兒童의 學習準備度研究金誠一 · 32
 새 教育體制가 教育現場에 미친 影響...朴慶淑 · 38
 主要國家의 教育行政制度 發展動向...曹文鉉 · 44
 英才의 心理·行動의 特性에 관한 研究...趙夕姬 · 51

研究動向 教育計劃政策의 研究動向金鍾喆 · 56

研究IDEA 教師의 期待差는 學生에게 傳達되는가 ...金炳聲 · 61

現場教育 效果的인 英語學習 指導方法李姬淑 · 62
 相談 學力定着을 위한 自然科 授業模型.....金承華 · 63

讀者案内 ERIC 資料案内 2
 教育人事行政制度, 이대로 좋은가? 17
 教科書를 所藏하고 있는 분을 찾습니다 21
 현장교육 상담란 활용 25
 TV 중학교 영어 교재 소개..... 37
 한국교육개발원 총서 소개 43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편예정 64

院內動靜 65



위원장 오진석
 위 원 박병선
 김학천
 남석우
 서정화
 진성연
 최중운
 (가나다順)

ERIC 자료의 원문을 제공합니다

※ ERIC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 <미국>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ERIC 자료의 원문이 실린 Microfiche 를 소장하고 있으며, 열람·복사를 위한 편리한 시설을 갖추고 국내 교육학 관계 인사 및 연구자에게 최신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내 용** : ERIC 에서 전세계적으로 수집한 교육관계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 1975~1980년 사이에 생산된 최신자료 (120,000매)
- 교육학 및 관련분야에 관한 자료
- 각과 교육 및 관련분야에 관한 자료

● **자료이용** : 수시로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전화 57-5021, 57-5121 교환 263·264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실

國家發展과 幼兒教育

李 延 燮

(本院 教育發展研究部長)

I. 量的 擴充

幼兒教育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거국적으로 幼兒教育을 시작하려는 段階에 있다는 점을 分明히 하고 싶다. 예를 들어 幼稚園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만 5세부터 6세 사이의 아동 81만명 중 오직 14% 정도이다. 6세 미만 전체를 놓고 보면 약 7% 以下일 것으로 생각된다. 數的이라는 側面에서 보아 이미 幼兒教育이 이렇다 저렇다 論議하기가 쑥스러워진다. 따라서 幼兒教育의 擴充을 量的인 面에서 본다면 “가능한 모든 方法을 動員하여 擴充되어야 한다”는 意志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름이 무엇이든 어느 부서가 하든 이 幼兒教育의 機會擴大가 早速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幼兒教育 機會擴大가 여러 부서별로 이루어져 갈 때 얼마쯤의 부 작용도 있을 것이다. 많은 이름의 幼兒教育機關이 있어서 “亂脈相”의 問題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그 많은 여러 이름의 幼兒教育機關들에 受容된 아이들이 受容되어 있지 않을 때 보다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있는가이다.

필자의 意見으로는 幼兒教育의 機會擴大라는 側面에서 볼 때 美國의 西部開拓時代처럼 모험을 하면서 개척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우리는 “지

금 도움을 必要로 하고 教育을 시켜야 할 모든 幼兒들을 지붕 밑으로” 끌어 들여야 한다. 全體로 보아 7%만이 이런 저런 형태로 幼兒教育을 받고 있다는 現實 속에서 무엇을 더 論할 수 있을까?

II. 質的 改善

흔히 量과 質을 論할 때마다 兩極的인 思考를 하는 傾向도 있다. 물론 質을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最小限 質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量的 擴充을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質을 높이기 위해서는 教師의 資質, 多樣한 教育 프로그램 등 여러 條件이 必要하나 그 모든 것을 갖추어서 幼兒教育을 擴充하기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도움을 必要로 하는 “모든 아이를 지붕 밑으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우리는 모든 幼兒들에게 “보다 나은 教育을”이라는 슬로건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질적인 擴充을 위하여는 오랜 기간이 必要한 것이다. 量的인 擴充은 그 나름대로 感을 잡을 수 있으나 質的인 擴充은 즉석 불고기식의 接近方法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3年, 4年, 또는 5年을 기다려야 어떤 質 좋은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質的인 擴充을 지금 당장 要求하는 것은 무리이다. 또한 質的인 擴充

을 할 수 있을 때까지 量的인 擴充을 중지할 수는 없다. 따라서 幼兒教育 擴充에 있어서는 앞으로 수년간 양과 질에서 오는 갈등을, 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을 감수할 수 있는 관용성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不確實할 때 그 불확실성을 참는 능력은 창의성의 가장 基本 特徵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몇 달도 안된 幼兒教育擴充을 이리쿵 저리쿵 비판하는 것은 마치 떡잎이 나오는 채소를 짓밟아 버리는 것과 같다. 言論도 教育者도, 父母도, 社會도 정말 幼兒教育의 必要性을 느낀다면 이 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이다. 質的인 擴充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制限된 專門人力을 최대로 活用하는 리더쉽과 전문인력이 活動할 수 있도록 研究·開發費에 投資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연구·개발 없이는 아무 것도 자라지 않는다.

研究란 時間이 걸리고 돈이 든다.

이것을 이해해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언제나 우물에 가서 송충을 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 급한 나머지 우리는 실익은 과일을 만다. 다음 세대를 짊어질 우리의 아이들에게 실익은 밥을 줄 수는 없다.

Ⅲ. 制度的 側面

多様な 幼兒機關이 뻗어 가면서 일정한 시기에 이르르면 教育과 복지라고 하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야 한다. 복지는 복지로서, 교육은 교육으로서, 또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로운 체제의 유아교육이 우리 실정에 맞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로지 개척시대처럼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과 같이 다양하고, 창의적이며, 自生的인 幼兒教育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은 미국으로서, 영국은 영국으로서, 독일은 독일으로서의, 프랑스는 프랑스대로의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適合한 시스템이 요것이라고 말하기 전에 가능한 모든 自生的인 幼兒教育의 노력을 격려해야 한다.

Ⅳ. TV 유아 교육

지금까지 幼兒教育을 論하면서 한 가지 빠뜨린 큰 것이 있어왔다. 그것은 TV 매체를 통한 유아 교육이다. 설사 幼兒教育이 시설과 기회확대면에서 100% 가까이 갔다하더라도, TV는 역시 중요한 유아교육 기능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구태여, 외국의 예를 들 필요는 없다. 정한 시간에 전국 600만 가구에 메세지를 보낼 수 있는 것은 텔레비전이 아닌가! 아이들은 幼兒教育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TV를 통하여 배우고 있다.

따라서 TV는 교육의 제일 첫번째 教育課程이라는 별명까지 받고 있다. TV가 갖는 이 強力한 힘을 유아교육에서 어떻게 活用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한 課題이다. 필자의 意見으로는 幼兒教育 프로그램은 유아와 교육을 아는 者들이 만들어내어야 한다.

그 전문인력의 확보도 시급하며 體系化된 教育內容의 選定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TV를 통하여 아이를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엔터테인먼트(Entertainment)와 教育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 교육사업 가운데서 幼兒教育이 정착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이제 온 것이다. 이 기회를 최대로 活用하고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백년 또는 이백년 뒤에 幼兒教育史를 쓰는 사람이 1980년대를 回想하면서 이時期가 유아교육의 급격한 전환기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던 그 一次的인 責任은 교육전문가에게 있을 것이다.

내 유치원, 내 아이, 내 學校卒業生의 문제를 떠나서 500만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유아교육을 논할 때만이 유아교육의 長期的 전망과 과제가 분명해지며 이 맥락 속에서만이 이땅에 유아교육이 정착화되는 기쁨이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社會의 構造的 變化를 위한 教育의 役割

車 京 守
(서울大學校 教授)

I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할 때에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내려오는 문화적 유산을 전달하면서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의 상태가 불만족스럽다고 생각하고 보다 더 완전한 사회를 창조하기 위하여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다. 흔히 전자는 사회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로 불리어지고 후자는 혁신·변화를 위한 교육의 역할로 말하여진다. 모든 사회는 역사적인 유산을 바탕으로 성립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도 동질성이 파괴될 만큼 변화를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또한 변화를 전연 허용하지 않는 사회도 상상할 수 없다. 사회의 구조적 변화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략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변동과 사회발전을 위한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I

러거스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버거(Peter. L. Berger)가 1963년에 출판한 200여 페이지에 불

과한 조그마한, 그러나 인간과 사회에 관한 관심을 세계적으로 불타 일으킨 그의 명저 “사회학에의 초대(Invitation to Sociology)”는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좋은 시사를 준다. 버거는 일상생활에서 인간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흔들어 그들이 행동당하고 있는 메카니즘을 이해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한 의식의 각성을 인간화의 길로 보았다. 그는 이처럼 생각하면서 인간을 사회와의 관계에서 고찰할 때에 사회의 포로, 무대 위의 꼭두각시, 살아있는 주체로서의 인간 등 세 가지로 규정하였다.

사회적 포로로서의 인간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뒤르켄(Emile Durkheim)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인간이 사회의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여 개인이 출생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규범을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개인에게 강제한다.

꼭두각시로서의 인간은 인간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활동은 사회적으로 미리 구성된 역할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무대 위의 꼭두각시와 같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개인은 역할을 내면화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강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은 역할이 형성된 메카니즘 즉, 각 본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살아있는 주체로서 활동하는 인간은 사회적 포로와 무대 위의 꼭두각시의 단계를 넘어서 있는 것이다. 그는 사회적 통제의 단계를 벗어나 자유롭게 인간의 의미와 역할을 스스로 형성해 나가거나, 그가 움직이게 되는 메카니즘 그 자체를 의식, 또는 그 자체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상황의 정의에도 참여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사회의 제약을 받으면서도 그 제약을 극복하여 스스로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 속에서 성장해 가는 한 인간의 성장에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다운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된다. 인간의 성장은 사회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지만 또한 사회의 발전은 인간의 성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이 사회로부터 받는 영향도 중요시해야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의 발전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교육은 어떻게 하여 자유스럽고 주체적인 인간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위한 교육의 목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있어야 할 것이다.

III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이렇게 생각할 때에 교육현장의 교육내용과 방법에도 많은 변화가 와야 하리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행하여 온 교육은 근본적으로 학생의 밖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지식의 체계를 교사가 학생의 안으로 집어 넣는 식의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는 대개 강의라고 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교사에게 크게 의존한다. 교육의 성공 여부는 학생의 경우나 교사의 경우나 지식의 덩어리를 학생이 얼마나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에 달려있었던 것이다. 중세 대학의 어떤 교수는 구약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데에 22년이 걸렸다고 한다. 위에서 말한 지식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한 강의식 교육은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는 방법이며,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역사를 능동적으로 창조하고 사회구조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

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은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에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존 듀우이에 의해서 체계화되어 오늘날 탐구학습에까지 이어지는 반성적 사고력이라든지, 블룸에 의하여 체계화된 인지적인 행동의 발달, 또는 브르너에 의하여 주장된 교과외의 구조주의 등은 모두 주체적이고 생명력이 있는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것은 사회의 포로와 무대 위의 꼭두각시로서의 인간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인간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사실, 개념, 법칙, 이론 등으로 나누어 가르쳐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나라에도 소개된 지 오래이다. 그러나 교육현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교과의 내용을 교사가 가르칠 때에 사실과 개념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사실을 가르칠 때에 사실에 관한 지식을 하나의 “완성된 지식”으로서 가르치는 것은 인간을 사회의 포로로 만드는 것이다. 사실에 관한 지식을 가르칠 때에는 사실 그 자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보다도 사실에 관한 “인식방법”의 이해에 교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조의 4대 왕은 세종대왕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사실에 관한 지식으로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진다. 그러나, 이조의 4대 왕이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우리는 학생들에게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 것은 사실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중세시대의 학교에서는 태양이 지구의 주위를 도는 것이 사실이라고 가르쳤을 것이며, 또 그렇게 믿었을 것이다. 따라서 위의 것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 그 자체를

학생들에게 “적어넣어 주는 것” 보다도 어떠한 인식경로”를 통하여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를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 뿐이며, 그 이상의 한계를 넘는 경우 그것은 독단이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왕조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또는 역사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조의 4대 왕은 세종대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사실에 관한 지식을 인식과정이나 증명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면 그것은 학습자들의 인간적인 성장을 그만큼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당면하는 다음 문제는 개념과 법칙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의 문제이다. 지금 우리의 교육현장에서 개념과 법칙을 가르치는 일반적인 방법은 개념과 법칙의 형식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것을 학생들이 외우도록 하고, 그것으로 학습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은 자유와 평등을 존중하고 국민의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정치의 형태 및 정치적 사상으로, 또는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부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링컨의 정의를 의의으로서 학습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교과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학교의 교과서도 대학의 교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대학의 경제원론에 나오는 생산의 정의는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에서도, 그리고 국민학교에서도 같은 형태로 반복되고 있다. 학생은 개념의 뜻을 형식적으로 외우고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 어떠한 사회적 현상을 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즉 개념과 법칙의 형식적인 뜻은 알지만 그것과 관련된 사상과 철학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다.

개념은 추상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정의를 외운다고 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러한 상황과 형식적인 언어로 표현된 개념의 차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데에서 개념이 이해되고, 그것은 사상적으로 발전할 수 있

다. 민주주의에 대한 형식적인 개념의 정의는 쉽게 외울 수 있지만 구체적인 어떤 사회적 상황, 또는 인간관계, 예컨대 정부와 국민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등이 민주적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논의할 수 있을 성격의 문제일 뿐이다. 이러한 논의는 애국심을 가르치는 교육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르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특정한 행동을 효도라고 생각하고 그 행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인간을 사회의 포로로 만드는 교육이 되고 만다. 개념교육에 관한 이러한 주장은 현대의 교육학자에 의해서 주장될 뿐만 아니라 동양의 전통적인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된다. 공자는 한 번도 「仁」을 형식적으로 정의하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기계적으로 외우게 하지 않았다.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仁」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학습자가 스스로 끊임없이 생각하게 했을 뿐이다. 그것은 오늘날 까지 인류의 스승이라고 불리워지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다.

IV

우리의 교육이 사회발전에 진실로 공헌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사회의 포로와 무대 위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교육으로부터 살아있는 생명체를 형성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현장에서 교육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과 개념에 관한 교육방법에 혁신적인 변화가 와야 한다. 사실과 개념을 형식적으로 외우게 하는 교육으로부터 사실의 인식방법을 중심으로, 그리고 개념이 현실적으로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교육으로 그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학자들에 의하여 이론적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교육현장에서 실제로 수업을 하는 대부분의 교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각 교과별로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우리 교육현장의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겠다. ◆

教育政策의 計劃的 過程

鄭 泰 範
(文教部 教育政策室 調整官)

I. 教育政策樹立의 基底

한 나라나 어떤 地域에서 教育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알려면 그 나라나 지역의 教育政策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教育政策은 그 나라나 지역의 歷史的·文化的 背景 속에 成長되어 온 教育制度를 基盤으로 教育에 대한 社會·經濟的 現實을 반영하는 주요 手段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政策은 價値의 操作的 陳述이거나 價値의 權力的 配分을 말한다.¹⁾ 따라서 政策의 수립은 그 社會가 어떤 價値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價値에는 基本的 價値(basic value)와 第2次的 價値라고 볼 수 있는 手段的 價値(instrumental value)가 있다. 自由, 均等, 公平, 個人的 尊嚴性, 生活基準, 自己決定, 生活形態의 選擇, 地域感, 家庭 등은 前者에 속하는가 하면 選擇, 普遍性, 民主主義, 社會統制, 制度化 등은 後者에 속한다. 특히 第2次的 價値는 하나의 基本的 價値나 그 이상의 價値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다시 말하자면 基本的 價値가 自由나 平等의 개념과 같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價値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第2次的 價値는 民主主義의 개념처럼 몇 개의 基本的 價値가 모여져서 하나의 價値를 이루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모든 政策은 하나의 가치보다 더 많은

가치에 의하여 지명된다고 말할 수 있다. 教育에 관한 모든 政策도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특히 모든 教育的 價値가 政策的 內容의 陳述로 전환될 때 그 가치는 社會的·經濟的 意味를 갖게 된다. 한편 政策이란 이러한 價値가 權力的 行使를 통하여 그 對象에 區分되는 현상을 말한다.

教育에 대한 價値는 教育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基本的 안목이며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教育에 대한 價値는 時代와 地域에 따라 변하며 그 強調點도 달라진다. 이러한 教育에 대한 價値의 認識이 달라짐에 따라 教育政策도 달라진다. 특히 政策이 價値의 權力的 配分이라고 말할 때 政策은 그 對象을 고려하여 가치를 나누어 주는 것이 된다.

教育政策에서 특히 어려운 것은 教育的 價値에 대한 國民의 合意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러한 價値의 認識이 國民의 合意를 얻지 못할 때 教育政策은 그것이 실천될 자리를 얻지 못하게 된다. 정책의 채택에서 특히 어려운 점은 이 점에서이다. 教育政策에 관한 한 國民의 合意를 얻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教育的 價値에 대한 認識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價値가 하나의 體系를 이룰 때 그것이 思想을 낳는다. 教育이 機能主義的 立場(technical school)을 취할 때 人力開發을 中心으로 한

1) Maurice Kogan, Educational Policy-making; A Study of Interest Groups and Parlia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75), pp. 55-56.

교육의 생산성이 강조되었는가 하면 교육이 構造主義의 立場(structural school)을 취할 때 教育概念에 차별을 두지 않는 教育機會均 등이 강조되었다. 教育에 대한 機能主義的 見解는 教育制度가 內的으로는 教育의 能率을 올리고 人力開發을 강조하므로써 결과적으로 經濟成長에 기여하는 教育을 말하는가 하면, 教育에 대한 構造主義的 見解는 教育制度가 社會秩序의 再生産에 이바지하면서 教育의 過程에서 差別을 두지 않는 社會的 均等을 실현하는 教育을 말한다.²⁾ 그러기 때문에 教育政策에서 教育의 生産性을 강조하면 教育機會의 不均 등이 일어나기 쉽고, 반대로 教育機會均 등을 강조하면 教育生産性의 低下가 일어나기 쉽다. 教育에 秀越性의 강조는 教育의 生産性을 높이자는 것이요, 教育의 平準化 政策은 教育機會를 均等히 하자는 것이다.

教育政策에서는 이렇게 價値의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政策의 수행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다.

II. 教育政策의 計劃化

教育政策은 教育計劃에 의하여 具體化되기도 한다. 教育政策은 다시 具體化된 教育計劃에 의하여 實行된다. 다시 말하여 教育政策에서는 對象을 의식한 뚜렷한 目標를 갖고 實行內容을 정선하여 합리적인 실천방법을 活用하므로써 所期의 目標를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은 오늘날 國民에 의한 教育的 要請이 다양하기 때문에 教育政策에 그러한 요청을 모두 반영시키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이다. 비록 專門家 集團에 의하여 教育政策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國民들이 갖는 教育的 價値가 다르기 때문에 合意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高等學校의 平準化 施策에 있어서는 國民의 合意가 어려운 것은 물론 高等學校 教師間에 있어서도 상이한 의견을 갖고 있다.

教育政策에서 그 실현이 어려운 것은 教育의 權限이 中央에 集中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도 있다. 中央에서 重大한 教育政策이 발

표되어 지방에 전달된다 하더라도 學級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教育計劃에는 綜合計劃과 個別計劃이 있을 수 있다.

綜合計劃은 一般計劃의 성격을 띠며 計劃의 全般을 망라하게 된다. 綜合計劃에서는 計劃要素의 전부를 빠짐없이 엮어매어 有機的으로 관련시킨다는 점에 있어서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는 政策實現에서 대상의 특성이 고려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흠이 있다. 그러므로 綜合計劃만 가지고서는 政策實現의 뿌리를 공고하게 내릴 수 없게 된다.

個別計劃은 特殊計劃의 성격을 띠다. 개별·계획에서는 대상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대상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고, 그 대상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대상의 특성을 살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대상의 특성이라는 부분에 강조점을 둔 나머지 전체를 고려하지 못하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현 교육정책에서는 특수계획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특성을 고려할 여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책이 학교의 학급이나 個個人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서는 학급에서 교사와 학생들간에 상호작용이 제일 중요하다. 가령 학급 교육 활동에 관련되는 어떤 教育政策이 있었다고 하자 이 政策이 學級에서의 相互作用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면 그 教育政策의 효과는 없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教育정책을 실현하는 교육계획에서는 어떤 환경에 성장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학생인가를 파악하여 그들의 성장발달을 의무 없이 돕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두 차례의 長期綜合教育計劃을 마련하였다. 제 1차는 1968년에 장기종합교육계획심의회가 만든 “長期綜合教育計劃(1972—1986)”이며 제 2차는 1978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이 문교부에 答申報告書 형식으로 만든 “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1978—’91)”이다. 이들은 많은 教育政策의 課題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綜合計劃에 속한다. 이외에도 교육정책을 담은 中央의 教育計劃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이들은 대부분

2) John Simmons (ed), The Education Dilemma: Policy Issues for Developing Countries in the 1980. (The world Bank, 1980), pp.22—27.

長期의 綜合教育計劃이 아닌 주로 한 영역에 걸치는 교육계획이었다.

이러한 綜合教育計劃이 실효를 거두려면 이들의 計劃要素들은 다시 個別計劃이나 地域教育計劃에 잘 반영되어 그것이 교육현장에서 무리하지 않게 실천되어야 한다. 따라서 教育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고려할 때 地域教育計劃은 中央의 綜合教育計劃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中央의 무리한 教育計劃은 教育現場에 실천되기 어려우며 그 成果를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기 때문에 教育政策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정책내용에 따라서는 教育計劃의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는 물론 계획실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나아가서 國民의 合意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教育政策은 정책을 수행하는 담당자가 教育의 어떤 목적을 위하여 特殊한 條件에서 特別한 일을 하려는 計劃을 말한다. 그러므로 教育政策을 수립할 때에는 특수한 條件에 있는 教育對象을 고려하여 그에 알맞는 教育計劃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教育政策을 본다면 教育計劃은 教育行政의 集權化를 통하여 특수한 조건에 있는 教育對象에 까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Ⅲ. 教育計劃의 具體化

教育計劃에서 教育政策을 具體化할 때 어떤 用語(language)를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음미해 볼 만하다.

社會科學에서는 政策用語로서 行動用語(behavior language)에 대립되는 것으로 活動用語(action language)을 쓴다.³⁾ 여기서 行動用語는 있는 그대로의 객관적 진술을 나타내는 사실적 用語인데 비하여 活動用語는 行爲主體의 意圖가 반영되는 當위적 用語이다. 예컨대 어린아이가 “해는 밤에 어디로 갑니까?” 하고 물어왔을 때 두 가지 답이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天體의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경우로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해의 반대편에 그늘이 생기는데 이것이 밤이고 태양은 사실 그대

로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을 때 아이들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다른 하나는 태양을 主體로 하여 그 意圖나 目的을 설명하는 경우로서 지구의 저쪽에 사는 사람을 비출 수 있도록 해는 밤에 지구의 저쪽으로 간다고 설명해 주었을 때 아이들은 재미있어 한다. 전자는 行動의 表現이며, 후자는 活動의 表現이다. 規範的 行爲, 習慣, 反應의 형태 및 行動의 構造와 같은 말은 모두 객관적 사실의 진술이기 때문에 行動의 表現에 속하며, 行爲者의 意圖, 目的 및 고려할 점과 같은 많은 主觀的 當위의 진술이기 때문에 活動의 表現에 속한다.

그러므로 政策의 表現에서는 活動的 言語(action language)를 쓴다.

따라서 政策은 의도하는 특수한 目的을 갖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計劃하며 실천하는 活動(action)을 말하기 때문에 활동적 용어를 쓰게 된다.

結論적으로 실제 教育政策을 教育計劃에 의하여 具體化할 때 教育計劃에는 政策이 의도하는 바의 目標, 그 對象, 計劃內容 및 實踐方法이 合理的으로 배열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教育政策에서는 그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 對象의 特殊性이 교육계획에 잘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교육정책의 일차적 관심은 학급 현장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교육정책의 立案에서 教育의 對象, 內容, 方法에 따라 균형유지를 위한 계획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계획에서 中央計劃과 地方計劃, 一般的 綜合計劃과 特殊·個別計劃에 각각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教育計劃에서는 가치 갈등에 있는 여러 접근법간에 조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예전대 교육의 생산성과 기회균등간의 갈등은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접근법이라는 면에서 새로운 정책적 개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教育政策에서는 가치갈등적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國民的 合意를 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國民의 教育에 대한 價値合一을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3) Donna H. Kerr, Educational Policy: Analysis, Structure, and Justification (New York: Davird mckey Co. Inc. 1976), pp.2-5.

家庭教育環境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柳 岸 津
(서울大學校 教授)

I. 家庭의 教育的 機能

「家庭보다 나은 學校는 없고 父母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 教師는 없다」. 이 자명한 진리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던 그때 이래 한번도 변한 적이 없었으리라.

교육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교육은 家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學校가 없었던 시대에도 인류는 그들의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知識과 技能과 態度를 전적으로 가정에서 배웠다. 인간이 학교를 만들어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教育的 機能의 상당부분을 학교에다 맡기게 된 이래, 각계 각종의 學校가 教育的 責任을 맡아 가지고 허덕이는 지금까지도 가정의 教育的 책임은 조금도 감소되지 못했다. 감소되기는 커녕, 더욱 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매한 學問에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높아만 가고 있다.

만 6歲까지 인간의 性格의 기틀이 형성된다는니, 만 8歲까지 인간 知能의 80%가 발달한다는니, 인간의 良心과 道德意識은 부모의 賞罰體系와 同一視過程을 통하여 발달된다는니, 創造性的 發達 역시도 養育方法과 가정 분위기에 달렸다는니……心理學과 教育學의 研究發見이란 결국 인간의 初期教育的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

육의 가장 무거운 責任을 家庭에 지우고 있지 않는가?

과거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무거운 教育的 責任을 지고 있는 現代家庭은 현대처럼 심리학과 교육학이 발달되지 못했던 前時代의 家庭이 훌륭히 감당할 수 있었던 教育的 機能의 절반도 감당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家庭構造의 差異에서 찾아질 수 있다. 전통사회의 가정구조는 子女의 教育을 담당할 충분한 人的 資源을 소유하고 있었고 기능상으로도 자녀교육은 곧 가정의 일상생활의 부분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생활필수품을 가정에서 조달하던 시대에 가족의 活動場은 가정이었으며, 자녀 교육의 목표 역시 안정된 사회가 추구하는 안정된 가정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태도와 기능이였다.

3·4世代的 확대가족이 생활하는 가정에는 자녀교육을 감당할 인적자원(교사)이 언제 어느 장소에서나 아동과 함께 있었다. 男兒의 教育은 父親을 비롯한 祖父, 伯叔父가 책임지되, 門中 친척들도 寸數의 遠近에 따라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있어서 父親不在家庭이라 하더라도, 부친없는 현대가정의 교육환경과는 사뭇 달랐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교사들이 언제나 가정을 지키고 있어서 자녀의 교육은 생활사태에서 무시로 實技

實習을 통해 이루어졌었다. 女性教育은 원칙상 母親, 조모, 백숙모 등을 비롯한 부녀자들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들 교사들의 助手로서 日常生活에서 실기 실습지도로 필요한 예절, 지식, 기능 등을 학습하고 교정받을 수 있었다.

가족들은 가부장을 중심으로 한 位階秩序가 수립된 환경에서 제각기 자기 위치에서 자산의 役割을 수행하였고, 아동은 言語·行動에서 成人家族을 모방하고 同一視하며, 자기에게 기대된 역할을 정확히 지각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받았다. 教育이란 곧 아동에게 기대된 役割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知識과 態도와 技能을 배우는 것이었다.

엄격한 家父長制의 倫理는 가정 내, 가족의 위계질서를 확립하면서도 血緣을 강조하는 凝集力 있는 共同體意識을 강화하게 되어 사랑을 바탕으로 한 情感어린 家庭環境을 조성하게 되어, 자연스러운 人格教育의 온상도 되었다. 아동은 젊은 숙모의 잉태와 출산에서부터 祖父母의 죽음과 祭祀儀式을 보고 자라면서 人生의 시작과 종점 뿐만 아니라 영혼의 세계까지 배우며 자랄 수 있었다. 젊은 가족에게서는 진취적인 人生과 老人 가족에게서는 達觀하는 人生을 배우게 됨으로서 生의 全 코스오를 배웠고, 多兄弟 속에 끼어 자라면서 원만한 성격을 발달시키며 성인과의 共同生活의 場은 보다 빨리 成人世界에 돌입하게 했다. 그래서 家庭은 곧 人生學校로서, 父母는 곧 教師로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다할 수 있었다.

II. 學校教育의 限界性과 家庭의 教育的 責任

이러한 傳統家庭의 教育的 責任은 자녀교육의 상당한 책임을 學校에 위임한 현대에도 조금도 가벼워지지 못한다. 그것은 學校教育의 性格이 지닌 教育的 限界 때문이다.

학교교육은 아동이 적어도 6歲가 되어야 시작되는데, 어찌는 이미 그 아동의 性格 기틀이나 知的인 發達의 거의 모든 기초가 家庭環境 如何에 의하여 결정될 만큼 결정된 이후이기 때문에, 學校學習 몇 시간으로서는 쉽게 수정 보완되는 사실상 어렵고, 보다 장기간의 교육을

요구한다.

그래서 學校教育에 기대한 분야는 知識에 관한 것에 한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價値 및 態度教育의 경우는 더구나 學校보다는 家庭의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다.

學校教育은 非意圖的이고도 자연스러운 生活環境과는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보다 感動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教育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教師라는 權威와 위엄을 가진 他人과 아동이라는 弱者間의 계약에 의한 접촉, 그것조차도 時間의 제약조건하에 의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긴장된 접촉으로서 교육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학교학습에서 이루어진 行動變化가 習慣化, 生活化되는 사태는 가정일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현대의 家庭이 지고 있는 교육적 책임은 현대라는 時代의 특징이 안겨주는 갖가지 문제점의 여파까지 가중되어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

III. 現代家庭의 教育環境과 問題點

흔히 「집(house)은 있으나 家庭(home)은 없다」는 표현으로서 현대 가정이 가정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家庭教育環境의 問題도 결국은 現代家庭의 構造의 特性 때문에 다하지 못하는 教育的 機能의 문제, 즉 도대체 家庭教育이 존재하느냐의 問題가 되고 말 것이다.

夫婦中心 小數子女의 核家庭으로 특정 지워질 수 있는 現代家庭은 전시대의 大家族 家庭과 對比할 때, 여러 가지 教育的 長短點을 지닌 가정 환경이 될 것이다. 핵가정의 아동은 피가 뜨거운 젊은 부모로부터 달리는 人生을 배울 수는 있지만, 乳兒와 老人이 함께 한 대가족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풀코스(full course) 중 절반 밖에 배우지 못하며, 인생이란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 머물러서 곰삭이고 돌이켜 보는 것이란 점을 배우기는 힘들 것이다. 대가족 多兄弟 憵에서 성장함으로써 배우는 미묘한 人間關係 기술이나 원만한 性格을 기대하기 어렵고, 대가족관계의 갈등이나 마찰을 극복하는 융통성 있는 인격적 바탕이 구축되기 어려운 반면, 단

순하고 직선적이며 利己의이고 獨立的, 自主的이며 조급하기 쉬운 것이다.

主婦의 就業이 증대되는 현상으로 子女에게 代理母性의 役割을 수행할 가족이 없을 경우, 또 자녀와 함께 있는 시간 부족으로 相互理解, 愛情確認의 기회가 적어 취업모친의 자녀 중에서도 공격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으며, 부친의 社會生活 志向的 態度로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어려운데서 男兒에게 同一視對象의 不在를, 女兒에게 부친을 통해 異性을 배울 기회가 적어진다.

대가족 가정의 아동만치 존칭어나 예절을 배울 기회가 적고, 독립적이기는 하나, 의존적인 대가족 가정의 아동보다 창의적이지 못한 이유는, 成人家族의 지도와 強化가 결손되었기 때문이다.

젊은 父母에게서 나타나기 쉬운, 지나친 경쟁, 이기심, 타산적 태도로 왜곡된 교육효과를 기대하기 쉬우며, 손위 어른의 不在는 부부싸움이나 부모자신의 실수나 문제 노출로서 비교육적인 환경이 되기 쉽다.

TV, 라디오 등 가족간의 대화단절의 원인으로 가정은 애정과 연민에 바탕을 둔 安息處도 못되며, 가족의 共同體意識도 희박하여, 가정은 서로 다른 目的과 편의에 의해 모였다 흩어지는 장소가 되기 쉽다.

도시의 경우, 도시환경의 특성으로 인한 빈번한 移徙는 子女의 빈번한 轉學의 원인이 되어, 새 환경에의 적응문제가 되며, 自然을 배우고 이해할 기회의 상실, 비교육적 주거·생활환경에 처할 가능성도 크다.

IV. 改善을 위한 提言

이상의 문제는 현대를 사는 우리 모든 父母의 問題로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하루 4시간 이상 子女와 함께 생활하는 시간을 갖자. 가족의 상호 이해, 애정확인 시간을 오래 가질수록 共同體意識은 강화되며, 자녀의 學習問題, 交友問題를 함께 고뇌하고 해결책을 모색함으로써 부모의 孤

獨과 子女의 孤獨을 함께 해소하자.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이는데 신경을 쓰기 보다는, 우리 자녀가 어떤 精神的 의복을 입고 정신적 음식을 먹는지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지나친 경쟁심보다, 협동하며 사는 법을 의논하며, 학교성적에 과민하지 말자.

가능한 한 祖父母와 대면할 기회를 자주 갖게 하고, 結婚, 出生, 祭祀 등 門中行事에도 자녀와 동반하며, 그들 나름으로 보고, 느끼고, 배우고, 감동받고, 생각하는 기회를 갖게 하자. 전시대의 祖父母가 어린 손자와 함께 기거하며, 친구로서 教師로서의 役割을 다했던 그때, 잠자리에서 조상의 이야기, 聖賢들의 글귀, 어린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등 풍요한 인생경륜과 지혜의 전수자를 가정교육 자원인사로 활용하자.

적어도 국민학교 저학년의 자녀는 전학으로 오는 충격과 적응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자.

우리는 자녀 앞에서 보다 겸손하자. 실수도, 약점도, 고뇌도 함께 이야기하여, 자녀도 부모를, 부모로서 자녀를 이해하며 共感帶를 넓히자. 사실 孝란 존경보다는 연민에 의한 사랑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이 자녀 앞에서 언어 행동에 유의하자. 거짓말·타인 비난 등은 애써 이루어진 학교교육 효과를 순간적으로 허물어버리고 만다. 비록 확고한 價値觀, 行動判斷의 基準을 자신있게 제시할 수는 없는 變化의 時代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學校에서 배운 것과 집에서 생활하는 것 사이에는 혼란과 갈등만 있다고 느끼게 해선 안된다.

우리는 지혜로운 교육적 금언을 유산으로 갖고 있다. 「父傳子傳」 「왕대(竹) 끝에 왕대 나고 갈대 끝에 갈대 난다」 「父母八字 半八字」 등 教師로서 부모의 역할과, 부모가 꾸미는 가정의 교육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들 과거의 유산 위에, 또 「문제아들은 없고 問題父母가 있을 뿐」 이라는 현대적 경고를 덧붙여 기억하고 음미해야 할 것이다. —◆—

福祉社會와 幼兒教育의 發展方向

鄭 元 植

(서울대학교 教授)

序

福祉社會, 그것은 분명 우리가 갈망하고 있는, 그리고 누구나 마음 속에 저니고 있는 理想社會이다. 그것이 담고 있는 말의 뜻은 사람에 따라 다소의 差異는 있을망정,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서로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삶의 幸福을 느끼는 사회, 그것이 念願이며 우리는 지금 그 念願을 이루기에 분망하다.

여기에서 福祉社會의 概念을 길게 云謂하거나 福祉社會를 形成하는 여러 가지 條件이나 狀況을 나열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이 論議의 中心課題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미 적지 않은 견해가 發表되어 있기 때문이다. 正義, 平等, 豐饒, 人權 등은 모두 福祉社會를 이루는 條件으로 지적되어 왔다. 或者는 客觀的 與件의 改善만이 아니라 主觀的 福祉感의 向上을 強調하기도 한다. 또는 福祉社會란 慈善, 報施, 救貧과 같은 剩餘의 形態를 벗어나 人間의 生命과 健康, 社會, 經濟, 文化, 政治的 欲求의 一定水準을 만족시켜 주는 本質的 形態에 의하여 追求되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物理的 條件의 向上과 同時에 適合한 精神의 風土의 形成이 福祉社會의 基本要素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主張도 있다.

이 모든 主張과 見解를 否定하거나 批判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것은 모두 지금까지 우리가 漠然하게나마 그리워하고 바라던 福祉社會의 모습을 보다 鮮明하게 해 준다는 뜻에서 肯定的으

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教育의 문제와 關聯하여 福祉社會의 意味를 分明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關心에서 이다.

하나는 어떤 형태의 福祉社會이건 그것이 現世代 中心의 福祉에만 局限되지 않고 다음 世代에 대한 關心이 充分히 表現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어린이가 農村에서 자라고 있건 都市에서 成長하고 있건 간에, 온전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건 온전치 못한 身體的, 精神的 條件을 가지고 있건 간에, 均等한 教育의 機會와 同等한 質의 水準의 教育을 받을 수 있는 것이 福祉社會의 가장 기본적인 要件의 하나라는 점이다.

즉, 福祉社會는 다음 世代에 대하여 깊은 關心을 부여하고, 다음 世代의 教育問題에 있어서 均等성을 優先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幼兒教育의 概念

福祉社會를 志向하는 오늘의 時點에서 우리가 關心을 부여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理解되고 있는 幼稚園教育의 擴大만을 통하여 幼兒教育의 發展을 의도하려는 것은 아니다. 幼稚園教育이 重要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認定하되, 幼稚園教育 本來의 뜻을 보다 擴大解釋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이제 幼兒教育(early childhood education)의 概念을 分明히 하기 위하여 몇 가지 特性을 살

* 本橋는 1981.2. 새 세대育英會 主催 幼兒教育 세미나에서 發表된 主題講演의 抄錄임.

떡볼 필요가 있다.

첫째의 特性은 幼兒教育의 對象과 關聯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幼兒教育 專門家의 論議를 集約해 보면 幼兒教育은 大略 0歲로부터 8歲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면 幼兒教育의 대상은 嬰兒로부터 지금의 學制에 의한 國民學校 低學年까지를 包含하게 된다.

따라서 就學前 形式教育機關인 幼稚園이나 幼兒園만이 그 教育의 對象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둘째, 幼兒教育은 形式的인 教育和 非形式的인 教育의 兩面을 同時에 內包한다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幼兒教育을 形式的인 教育機關을 통해서 전담하는 시책을 택하고 있는 경우도 勿論 있다. 이스라엘의 키브츠教育이나 共產國家의 幼兒教育 政策이 그 典型的인 例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家庭의 非形式的 教育機能을 最少化하는 그러한 形態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하게 된다는 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점에서 幼兒教育은 形式的인 教育에란 지나치게 依存될 수 없는 것이다.

셋째, 幼兒教育을 擔當하는 여러 機關은 「教育性」이라는 觀點에서 同質性を 지니고 있으나 各己의 獨自의인 機能에 따라 異質的인 性格을 가지고 있다. 一例를 들어 家庭은 「教育性」이라는 觀點에서 중요한 非制度的 幼兒教育機關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學校는 아니다. 保健社會部에서 主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幼兒教育의 一翼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것을 形式的인 教育機關으로 간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關心이 集中되어야 할 것은 幼兒教育에 關聯된 여러 機關을 形式的인 教育機關으로 轉換하기보다도 여러 機關의 「教育性」이라는 同質性を 높이는 데 주어져야 할 것이다.

네째, 幼兒教育은 그 性格으로 보아 教育的顯在的 課程보다도 相當한 부분이 이른바 潛在的 課程에 의하여 關장되는 特性을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計劃된 가르침이나 學習經驗만이 아니라 自然스러운 生活 그 自體가 學習의 큰 比重을 차지한다는 觀點이다.

이 점에서 幼兒教育은 學校教育과의 差異點을 나타내기도 한다.

幼兒教育의 發展方向

幼兒教育의 發展은 단순히 教育機會의 擴大만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機會의 擴大라는 基準만을 중심으로 發展을 추구했을 때, 그 結果는 우리가 바라는 바 教育의 指標와 거리가 있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發展의 方向을 摸索하기 위해서는 먼저 發展을 가능할 수 있는 基準을 생각하게 된다. 모든 우리나라 教育의 發展을 評價함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幼兒教育의 發展을 추구함에 있어서도 그 基準이 되는 것은 均等性, 適合性, 適時性의 세 가지가 될 것이다.

發展은 均等한 機會가 모든 어린이에게 주어져야 하고 質的으로 同等한 水準의 教育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均等性은 무엇보다도 優位의 基準이 된다. 그러나 擴大된 機會를 통해서 주어지는 教育은 우리의 教育目標과 一致되어야 하고, 주어지는 學習經驗은 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適合한 經驗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適合性 基準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幼兒教育은 適時에 주어져야 한다는 기본적인 과제를 안고 있다. 人間發達에 관한 많은 理論과 研究結果는 發達段階에 따르는 課業成就의 適時性を 강조하고 있으며, 그 때 그 課業이 成就되지 못하면, 그 후에 適時的인 效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原理이다.

또한 이 때에 成就되지 못할 어떤 缺損은 累積되어 더 큰 缺損으로 남게 된다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여기에서 適時性의 基準을 생각하게 된다. 만일 幼兒教育의 發展이 年齡으로 보아 어느 年齡層에 局限된다면 다른 年齡時期에 成就되어야 할 適時的인 課業은 達成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基準은 相互間의 相對的인 優劣을 認定할 수 있을지언정, 어느 하나의 기준도 빼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서 세 가지 基準의 優先順位를 고려하면서도 그 基準을 同時에 充足시킬 수 있는 發展의 方向을 摸索하지 않을 수 없다.

1. 幼兒教育의 指標設定

幼兒教育의 發展方向을 摸索하기 위하여 먼저 教育의 指標를 設定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教育의 指標를 설정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國家와 社會의 支配의인 價値觀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지만, 어린이를 어떤 存在로 보느냐 하는 兒童觀과 어떤 人間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느냐의 人間觀과 直結되는 문제이다. 이 점에서 먼저 幼兒教育의 指標를 위하여 견지되어야 할 人間에 대한 基本的인 觀點을 確認할 必要가 있다. 그것은 모든 어린이는 獨立된 人格의 存在이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環境의 條件과 狀況에 따른 우리가 해야 할 수 없을 정도의 潛在的 發達可能性을 具有한다는 것을 認定하고, 누구의 所有와 어떤 目的을 위한 手段이라는 점을 強力히 否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基本的인 觀點을 견지하면서 幼兒教育의 指標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의 解決되어야 할 課題가 있다. 첫째의 課題는 幼兒教育의 目標로서 知的, 情意的, 身體技能的 領域의 어디에다 강조점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의 課題는 個人主義的 目標과 集團主義的 目標의 兩極을 연결하는 連結線上에서 어느 점을 택하느냐의 문제이다. 一般的으로 共產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集團主義的 目標에 置重하고, 自由民主 國家에 있어서는 個人主義的 目標에 치우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共產 國家의 幼兒教育은 무엇보다도 集團意識, 勤勞意識, 責任意識의 開發에 力點을 두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幼兒教育을 共產主義 政治教育의 場으로 철저히 利用한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이에 비하여 自由主義 國家에 있어서는 個人主義的 目標을 강조하는 나머지 社會的 責任意識이나 集團意識을 다소 소홀하게 다루어 온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集團意識의 강조가 個人을 말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個人意識의 지나친 강조가 集團의 發展과 調和를 阻害한다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세째, 幼兒教育을 이른바 文化失調兒를 위한 補充의 目的으로 實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一般 어린이의 正常的인 發達을 위한 促進的 目的으로 實施하느냐의 課題가 있다. 이 문제 역시 절충적인 立場을 취해야 할 課題이다.

2. 均等성의 擴大

福祉社會는 社會構成員에게 衡平感을 줄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衡平感은 혜택의 公正한 分配에 의해서 可能하다는 점에서 教育의 均等性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일이다.

여기에서 均等性의 擴大를 강조하는 근거는 지금까지의 幼兒教育의 혜택이 少數의 어린이에게만 限定되어 왔다는 機會의 制約性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時急히 解決되어야 할 이른바 文化失調에 의하여 엄청난 農村·都市間과 階層間의 격차가 尙存하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격차를 放置해 둔 채 福祉社會의 幼兒教育의 發展을 기약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물론 急激한 均等性의 擴大는 教育의 質을 보장받기 어렵고 適合性을 阻害하는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러나 教育의 質을 固守하기 위하여 形式的 幼兒教育의 개선만을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엄연한 現實이다. 따라서 모든 幼兒教育의 機會를 擴大하여 均等性을 높이고 幼兒教育으로부터 오는 혜택의 公正한 分配을 기하는 것이 當面한 發展의 方向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추구되어야 할 몇가지 發展政策이 있음을 첨가해 두고자 한다.

첫째, 均等性의 擴大에서 優先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對象地域은 文化失調의 現象이 극심한 地域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幼兒教育의 機會擴大는 形式的 就學前 教育機關에만 限定할 것이 아니라 可能的한 모든 幼兒教育의 機能을 증대하는 것으로 擴散되어야 한다.

세째, 均等性의 急激한 擴大에서 오는 適合性의 相對的 弱화를 감소하기 위하여 補充·充實化의 後續的인 措置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네째, 就學前教育의 唯一한 形式教育機關인 幼稚園의 擴充을 위하여 이를 公教育化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私學幼稚園의 發展

도 同時에 期할 수 있는 施策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私學은 그 나름대로 지금까지 幼兒教育의 效示적인 역할을 擔當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先導的 役割을 擔當해야 할 位置에 있다고 判斷되기 때문이다.

3. 教育性的의 伸張

教育性的의 伸張은 教育的인 機能을 強化하고 教育的으로 肯定的인 結果를 가져오는 넓은 意味의 教育環境을 造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意味의 教育性的을 伸張하는 일은 특히 幼兒를 擔當하는 機關에서 要請되는 것이다. 形式的의 就學前 教育機關인 幼稚園을 除外하고 대부분의 幼兒機關은 본시 教育을 위하여 設立된 것이 아니다. 託兒·保護 등의 目的을 위하여 設立된 特殊福祉施設로서 出發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 幼兒教育의 概念에 의하면 그와 같은 복지시설도 중요한 幼兒教育의 機關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形式的인 教育을 하지 않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福祉施設에 教育성을 부여하고 이를 伸張시킬 必要는 절실한 것이다.

福祉施設의 教育的 機能을 강화해야 할 必要를 適時性이라는 發展의 基準에서도 찾을 수 있다. 年齡으로 보아 福祉施設에 入園하는 時期는 대단히 重要하고 意味있는 時期이다. 人間發達에 관한 많은 研究들은 幼稚園에 就學하기 이전 時期의 發達心理學的 意味를 再認識시켜 주는 자료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知的 成熟에 있어서는 물론이려니와 情緒, 道德性에 이르기까지 이 時期가 重要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4. 家庭教育的의 再強調

幼兒教育을 定義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形式教育만이 아니라 非形式的 教育도 이에 包含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보면 非形式的 教育的의 場이기는 하나 家庭이 幼兒教育의 중요한 部分을 擔當한다는 것을 否認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에서 자연 家庭教育的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幼兒教育의 發展은 진정한 家庭教育으로부터 가능하다 할 것이다.

家庭教育的의 중요성이나 家庭의 教育的 機能을 강화하게 논의할 必要는 없을 것이다. 누구도 그 重要성을 認定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家庭教育的의 문제를 再論하려는 의도는 一般的으로 우리의 家庭이 고수해 온 傳統的인 教育的 機能이 점차적으로 弱화되어 가고 있다는 現實的인 感覺에서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도 모든 教育을, 그것이 幼兒教育이건 兒童教育이건 專門機關에만 依存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 認識하고 있는 경향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확실히 잘못된 認識이다. 모든 幼兒教育은 一次的으로 家庭이 擔當해야 하고, 또 責任져야 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幼兒教育을 發展시켜야 할 時點에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은 家庭의 教育的 機能을 강화하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制度的인 發展을 志向하는 것이 이상으로 중요하며, 이 점에 幼兒教育 發展의 한 方向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독자안내

教育人事行政制度, 이대로 좋은가?

현행의 教育人事行政制度는 誘因, 養成, 研修, 그리고 昇進體系 등 여러 측면에서 슬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근본적 原因은 어디에 있으며, 그 합리적 해결 방법은 없겠습니까? 근자에 정부에서는 교육人事행정제도의 쇄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교육人事 행정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느끼시는 교육人事 행정의 불합리한 점이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 보내주시면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려고 합니다.

보내주시는 의견은 연구 이외에는 결코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 보내실 곳 : 134-03

서울 강남구 우면동 산 20-21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연구 1실

幼兒教師 養成教育의 方向

金 在 恩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1. 幼兒教師의 資格基準

教育令에 의하면 幼稚園 教師의 資格基準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1) 幼稚園 教師의 資格基準

(1) 2級正教師의 資格基準

大學 또는 專門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所定の 保育科 敎職學點을 履修한 者, 幼稚園 准教師資格證所持者로서 2年 이상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國民學校 正教師(2級) 資格證을 가진 者로 規定되어 있다.

(2) 1級正教師 資格基準

幼稚園 正教師 資格證所持者로서 3年 이상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國民學校 1級正教師 資格證을 가진 者.

(3) 准教師 資格基準

幼稚園 准教師資格檢定에 合格한 者, 國民學校 准教師合格證을 가진 者로 規定되어 있다.

2) 幼稚園 園監資格 基準

幼稚園 1級正教師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幼稚園 2級正教師 資格證을 가지고 6年 이상의 教育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로 規定되어 있다.

3) 幼稚園 園長의 資格基準

幼稚園 園長 資格證을 가지고 3年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の 再教育을 받은 者, 學識, 德望이 높은 자로서 敎員資格檢定委員들의 추천에 의하여 文教部 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로 規定되어 있다.

4) 保育教師 資格基準

앞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高校나 初級大學卒業者로서 3個月내지 6個月間의 所定の 訓練을 마치면 資格을 얻게 되어 있다.

5) 새마을 協同幼稚園 教師의 資格

內務部에서 主管하고 있는 새마을 協同幼稚園의 教師에 대해서는 아직 法則根據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이미 幼稚園, 또는 國民學校 教師 資格證을 所持하고 있는 者나 高校卒業者에게 文教部에 委囑해서 短期教育을 시켜서 配置하였다.

2. 教師 再教育 現況

1) 幼稚園 教師 再教育制度

教師 再教育은 教師의 人間的 및 職能的 成長 發達을 위해서 現職에 從事하고 있는 者들을 일 정기간 동안 定期的으로 再訓練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幼稚園 教師나 保育教師 모두가 再教育을 받고 있다.

李相琴 教授에 의하면¹⁾ 우리나라는 幼稚園 教

* 本稿는 1981. 2 세 세대 育英會 主催 幼兒教育 세미나에서 發表된 主題講演의 抄錄임

1) 李相琴: 幼稚園教師教育制度, 한국교육학회 學術세미나 發表論文, 1981. 1 p. 9-10.

師의 再教育은 民間團體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또한 民間團體가 主導하고 있다고 한다. 教師再教育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團體들은 다음과 같다.

- ① 韓國 어린이 教育協會
- ② 大韓 幼稚園 教育研究會
- ③ 韓國 基督教 幼兒教育聯合會
- ④ 韓國 幼兒教育協會
- ⑤ 釜山 幼稚園教育會

이밖에 文教部나 市道教育委員會가 필요에 따라서 短期로 研修會를 갖는 경우도 있다. 한편 出版社들이 講師陣을 짜서 講習會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各校 私設學院聯合會 등에서 主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行政機關에서 主催하거나 行政機關에서 委囑받은 경우가 아니면 教員들은 昇進에는 反映이 안되게 되어 있다.

幼稚園 教師 再教育機關이 1981 年度에 처음으로 全國 4 個專門大에 幼稚園 教員研修院이 附設되게 되었으며, 지금까지는 教育課程도 標準의 인 것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研修種別에 따라 標準課程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2) 保育教師의 再教育 및 資格向上方案

保社部는 託兒教師院이라는 再教育課程을 설치해서 國立社會福祉研修院에서 運營하고 있으며, 對象者는 어린이집, 새마을회관, 아동회관, 사회복지관 어린이 教師들에게 專門의인 實務訓練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 社會福祉 施策, 兒童相談技術, 問題兒童 行動修正, 프로그램작성법, 어린이營養, 兒童文學, 律動 및 놀이指導, 工作指導, 體育 및 健全娛樂, 教材 및 道具開發, 特講 등으로 총 38 시간을 履修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再教育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專門의 資質을 向上시키며, 새로운 방법을 開發하며, 訓練院에서의 基礎課程에서 부족했던 것을 補充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 그러나 38 시간(1 週日) 이란 짧은 시간에 역시 많은 教科目을 學習하고 있기 때문에 實質의이고 깊이 있는 補修教育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또한 保社部에서는 保育方法의 向上을 위한 特別補修教育課程을 설치하고 運營할 計劃을 세우고 있다. 대상자는 看護員, 前職教師 등 保育關係 有經驗者에 年間 190 名을 1 週동안의 補修教育을 거쳐서 配置할 計劃이라고 한다.

그리고 保育教師 資格制度를 兒童福祉法에 根據規定을 설정해서 確立한 것이며, 託兒保育의 발달은 별도의 資格基準을 設定하리라 한다. 處週도 改善해서 1 人 月 100,000 원(現 71,700 원)을 支給하도록 하며 保育教師用 教育프로그램도 開發해서 教師들에게 提供하리라 한다.

3. 教師에게 기대되는 資質과 教師教育프로그램

1979 年度에 미국에서 發行된 「職業」이란 案內 策자에 教師에게 要求되는 一般的 資質을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教師란 가르칠 科目에 대해서 준비하고, 師室內에서 가르칠 내용을 學習者에게 효과적으로 傳達하기 위해서 講義라던가, 討議라던가 또다른 여러가지 技法을 사용하며, 學生들이 일정한 學習內容을 理解하도록 여려모로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들은 學習者들을 評價하며, 學生들을 相談하며, 學生들과 같이 일하기도 하고 같이 연구하며, 또 동료교사나 學父母들과도 協同하고 일한다.

훌륭한 教師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 또 젊은 學生들과 함께 무엇을 연구하고 일하려는 순수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들의 호평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가르치는 敎科와 내용에 대해서 강한 흥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명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훌륭한 의사소통기술(communication skill)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특히 幼稚園 教師도 물론 일반 직업인과 마찬가지로 進강해야 되고, 명랑하고, 성실하고, 責任感이 강할 것이 요구되는 것은 말할 것은 없지만, 教師에게 특히 요구되어지는 것을 정리해 두면 다음과 같다.²⁾³⁾

2) 岡田正章等 編 : 保育學事典, 東京 : 光生館, 1979, p.62-63.

3) 宮本孝等 編 : 幼兒教育總論, 東京 : 協同出版, 1973, p.218-227.

- ① 專門的 職業人으로서의 自責과 使命感
- ② 嬰幼兒에 대한 教育的 愛情
- ③ 創造的 態度, 研究心, 科學的 探究心
- ④ 健康, 明朗豁達한 性品, 細心한 配慮
- ⑤ 職場에서의 協調性과 職業을·사랑하는 사람
- ⑥ 教養과 教育技術

Almy⁴⁾는 그의 저서에서 教師의 資質에 대하여 이렇게 권고하고 있다.

- ① 어린이들의 個性을 존중할 것
- ② 어린이를 全人으로서 다룰 것
- ③ 어린이의 知的 發達뿐 아니라 情意的 發達에도 關心을 가질 것
- ④ 훌륭한 教育技術을 익힐 것

4. 問題點과 提言

지금까지 幼兒教師養成의 現況, 課程, 再教育 문제, 資格基準, 요구되는 資質 등에 관해서 살펴 보았다. 이를 토대로 해서 問題點과 그 解決을 위한 方案을 提示하려고 한다.

- (1) 教師養成은 3年制 또는 4年制 大學에서 하도록 漸次的으로 改編한다.

幼稚園 教師는 앞으로 4年制 大學課程에서 養成하는 方向으로 轉換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現在의 專門大學 教育課程은 實效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科目이 雜多하게 羅列되어 있는 反面 配當時間數가 너무 적어서 教科의 目標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學生들은 科目名 정도만 알고 졸업하는 형편이며 더우기 教育實習을 위한 6週를 빼면 理論科目學習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 더우기 다른 어느 教育階梯(educational ladder)보다도 教育課程外的 配慮와 指導가 要求되는 幼兒期 教育은 어느 段階보다도 教師의 準備가 더 많이 必要하게 되기 때문이다. 一線의 管理者와 行政家들의 意見도 그러하다. 또 한가지, 學父母의 教育水準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學父母關係에서도 確信과 知識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父母들은 指導하려면 3年制 專門大學課程이나 4年制 課程이어야 한다.

(2) 幼稚園 教師의 待遇改善

우리에게는 나이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教師일수록 薄한 待遇를 해도 좋다는 잘못된 通念이 있다. 이것은 반드시 是正해야 한다. 첫째, 같은 4年制 大學卒業者로서 中·高校에 赴任하게 되면 17호봉부터 시작하는데, 幼稚園 教師로 赴任하게 되면 19호봉부터 시작해서 號俸에 不平等이 있다. 이것은 마땅히 單一號俸으로 是正해야 한다. 둘째로 4年制 大學卒業生이나 專門大學卒業生이나 다같이 2級正教師資格證을 받는다는 점이다. 이것도 制度上的 모순일뿐더러 教師의 士氣나 教職誘因體制上으로는 매우 不合理한 制度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幼稚園 教師의 報酬가 너무 낮아서 額數를 밝히기조차 부끄러운 實情에 있으며 保育教師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教育의 質을 높이는데 가장 큰 障礙가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한 가지 方法은 私立幼稚園 教師의 俸給이나 手當을 國庫에서 支給하는 일이다. 그리고 學歷과 經歷에 相應하는 報酬를 주도록 해야 한다.

- (3) 教師의 質의 向上을 위한 措置를 講究해야 한다

教育의 成敗與否는 教師의 資質如何에 달려 있기 때문에 教師의 資質을 높이기 위해서 ① 幼兒教育 教授要員의 確保를 위한 施策과 外國研修機會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② 2年制 專門大學의 保育學科나 幼兒教育科를 4年制로 昇格시킬 것과 ③ 質 높은 現職研修教育을 制度化할 것, ④ 좋은 待遇를 해서 優秀한 資質을 가진 學生들이 이 方面의 教育에 몸을 바칠 수 있도록 해줄 것, ⑤ 現職敎員에게도 海外研修나 視察의 기회를 開放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 (4) 教師養成課程에 관하여 研究해야 한다

幼稚園이건, 어린이집이건, 새마을 協同幼稚園이건, 어디에든지 本人이 願하는대로 가서 일할 수 있도록 開放하는 것이 좋겠다. 단, 幼稚園 教師, 託兒施設의 保育教師, 새마을 協同幼稚園 教師의 資格은 各各 該當部處에서 規定하되, 教師養成機關이나 2年制, 또는 4年制 大學에서 所定

4) M. Almy, The Early Childhood Educator at work, McGraw-Hill Book Co., 1975. p. 262-264.

의 課程을 履修하고 實習을 마치면 資格證을 上 申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까닭은 ① 幼稚園教育을 一般性과 一貫性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다. ② 새로운 養成機關을 新設하거나 增設하지 않고도 必須와 選擇科目의 按置로써 解決할 수 있다.

이 경우 單一號俸制를 採擇해야 하며, 資格證을 交換하고 싶으면 所定의 課程中 不足한 것만 再教育 또는 現職教育期間에 補充하거나 大學에 가서 學點 등록으로 補充하도록 大學制度도 융통성있게 改編해야 한다.

그리고 幼稚園 教師가 保育教師가 되려면 兒童 保健, 精神衛生, 營養管理, 兒童福祉 등에 관한 科目을 더 補充해야 하며, 保育教師가 幼稚園 教師가 되려면, 敎職科目과 幼兒教育課程, 器樂, 美術, 律動, 工作 등에 관한 敎科를 補充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 새마을 協同幼稚園의 教師는 별도로 養成하지 않고 幼稚園 教師資格證마다 保育教師資格證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幼兒教育研究所 設置를 考慮해야 한다

幼稚園 教育의 專門性을 높이기 위하여 養護原理를 포함하는 幼兒教育學, 保育學의 學問的 體

系化, 保育實習 속에 長期間의 嬰幼兒觀察, 參加 實習을 포함하는 充實한 保育實習 등도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保育教師의 養成에서도 幼稚園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專門性을 높이기 위해서 廣範圍한 養護活動뿐 아니라 嬰幼兒教育者이기 때문에 教育에 관한 課程을 더 강조해야 하며 研修院이나 訓練所를 최소한도 2年制 專門大學課程으로 올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幼兒教育課程을 비롯한 制度, 方法, 幼兒教育振興을 위한 여러가지 課題解決을 위한 研究를 할 수 있는 幼兒教育研究所의 設置가 必要하다.

(6) 教育大學에 幼兒教育科를 新設하는 方案을 강구해야 한다

2年制, 또는 4年制 大學에 幼兒教育科를 設置하고 國民學校와 함께 幼稚園教師와 保育教師로 養成하는 方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初等教師나 幼兒教師는 모두 共通必須科目으로 「初等教育論」과 「幼兒教育의 原理」를 履修하게 하고 選擇科目으로 初等과 幼兒教育 사이의 連繫性을 유지하게 한다. 資格證은 履修科目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고려해 본다. 國民學校 低學年과 幼稚園 教師는 같은 資格證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도 강구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독자안내

교과서를 소장하고 있는 분을 찾습니다

교육과정 자료수집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으로 C.D.C. (Curriculum Development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소멸되어 가고 있는 국내·외의 각종 교육 과정자료 및 교과서를 수집하여 “교과서 박물관(가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학교, 기관, 단체가 있으면 아래 주소로 연락하여주시면 관계자와 직접 협의하고자 합니다.

수집자료 내용

1. 개화기 이래 1960년대까지 각종 교육과정 자료
 - 교육과정 관련문서
 - 각급 학교의 교과용도서(교과서, 교사용)지도 등)
 - 각급 학교의 평가자료
 - 수업용 보충교재 및 학습자료
2. 외국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발행년도 및 국가에 관계없음)

* 연락처 : 134-03 서울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 교육 개발원 교육자료국

幼兒教育 內容 및 指導方法

李 元 寧

(中央大學校 教授)

現代的 幼兒教育의 概念 및 教育體制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것은 이미 80여년 전의 일이었다. 그 동안 극히 미미한 수준에서만 다루어지던 유아교육이 국가의 정책적 次元에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서의 일이며 社會人의 幼兒教育에 대한 認識을 높이기 위해서 幼兒教育 및 心理·教育分野의 전문가들이 노력한 것은 1970년도에 들어서서의 일이다.

1. 幼兒教育 內容의 歷史的 흐름

80여년을 지나오는 동안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 일어났었다. 그러나 정책적 수준이나 學界의 관심사로서가 아니라 幼稚園에서의 하루 하루를 담당해 나가야 하는 教師 個人의 水準에서였다. 1900년대 초반에 幼稚園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그 방향을 결정지어 주고 영향을 주었던 사람은 Miss Brownlee였다. 美國에서 幼稚園教育을 전공한 그녀는 한국의 幼稚園에 Fröbel이 고안해낸 恩物과 作業(Gifts and Occupation)을 소개하여 교육의 내용으로 삼게 하였었다. 1923년에 내한하여 1965년에 이르기까지 42년간 한국의 유치원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Miss Clara Howard는 Miss Brownlee 이후 습관형성이라던지 自由놀이, 自由作業 등의 개념을 한국 유치원 교육계에 확대시켰다. Miss Clara Howard이외에 金愛麻, 서 은숙, 李順一 교수와 같은 분들이 美國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生活中心, 兒童의 흥미중심·活動中心 교육을 펴는데 주력하였다.

政府 次元에서 幼兒教育의 내용을 처음으로 다룬 때는 1969년이었다. 文敎部에서는 문교부령 207호로 유치원 교육내용을 生活領域인 健康·사회·자연·예능·언어로 나눈 것이 그것이다. 10년 후인 1979년 3월 문교부령 “424”호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정하였다. 1979년의 교육내용은 발달영역별로 구분되었다. 認知, 社會·情緒, 신체·건강, 言語의 발달 영역으로 구분되자 一線 教師들에게는 혼돈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論議는 外國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美國은 최근 3R's(읽기, 쓰기, 셈하기)를 學習의 基本技能(Basic skills)으로서 유아교육 내용에 넣어야 하는지 아닌지를 연구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1920년대에도 있었던 일이었다. 그러나 명성이 있는 美國의 幼兒教育學者들은 3R's 학습만을 위한 學習은 도리어 어린이들에게 해를 가져온다고 경고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적응 능력을 돕는 方面으로서 3R's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교육내용은 무엇일까?

2. 바람직한 幼兒教育 內容

바람직한 幼兒教育의 內容은 個個人 教師들이 지닌 兒童觀, 哲學, 生活經驗 및 教育的 배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人間의 性善說을 믿는 유아교사는 어린이의 活動에 自由를 더 많이 줄 수 있으며 어린이의 흥미를 중심으로 교육을 펴 나갈 가능성이 많다. 무언가 教授를 받기 전에는 어린이는 아무것도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없

다고 보는 교사는 어린이의 흥미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엮어 나가지 않고 과거로부터 전달되어 내려오는 文化的 遺産을 도입시키고자 할 것이다. Bereifer-Engelman의 교육과정모델은 좋은 예일 것이다.

어린이의 認知發達 특징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풍부한 資料를 마련해 주되 어린이의 흥미에 맞게끔 선택을 하게 하는 개방식 교육내용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個個人 幼兒教師가 지닌 教育哲學이 어떠한 방향이던지 상관없이 就學前 어린이를 위한 유아 교육 현장에서는 다음의 4가지 측면에서의 교육 내용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 人格形成

幼兒期를 일컬어 可塑性이 풍부한 時期(plastic years)라고 한다. 幼兒教育 機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육내용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서의 人格形成을 도모하는 일이다. 幼兒教育 기관에서 가르치는 단편적인 知識들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망각되어지는 것이지만 이 때에 형성된 人格의 밑바탕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人格形成이란 特定한 교과목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屬해있는 物的, 人的 環境 속에 生活하는 동안 自然히 습득되어지는 것이다. 幼兒教育 現場에서의 教育形態는 초·中·高校의 교육과정 운영에서처럼 30分 또는 40分단위로 區分된 교과목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3시간 또는 4시간 동안 兒童의 흥미 또는 活動에 따라 융통성있게 운영되고 있다. 事前에 계획된 교육내용이라도 兒童의 흥미가 변화하면 그에 준해서 변화를 주기 때문에 고정된 교과목 시간은 없으며 生活全體를 통한 統合教育이 이루어지는 셈이다. 따라서 幼兒教育 現場에서야말로 어린이의 人格形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幼兒期에 반드시 길러져야 할 人性特徵을 Erikson은 情緒의 信賴感 및 安定感, 自律性, 솔선성, 自信感이라고 하였다. 學者들에 따라 表現은 다르지만 Erikson의 주장과 유사한 강조를 하고 있는데 Leeper는 긍정적인 自我概念 갖기,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기, 자기 스스로 意思決定하기 등이 유아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幼兒를 위한 教育은 知識을 注入하여 記憶하게끔 하는 데 있지 않으며 그래서 안되는 것이다. 모름지기 幼兒教育은 幼兒의 마음에 幸福을 느끼게 하는 教育이어야 하며 幼兒에게 意味를 부여할 수 있는 教育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幼兒教育의 教育內容은 人性形成을 돕는 방향으로 이끌어져야 할 것이다. 幼兒의 마음에 靑靑·갈등이 쌓인채 知識習得을 하도록 할 경우 知識이 도리어 유아에게 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知識을 수동적으로 주입받는 사람으로 키울 것이 아니라 知識을 탐구하는 마음을 지니게끔 키워야 할 것이다.

美術活動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고 스스로 자기가 하고픈 일을 선택하게 한다면가 幼兒가 만든 作品을 어른의 수준에 맞추어 評價하지 않고 幼兒의 노력을 칭찬하여 주는 것은 幼兒의 自信感, 솔선성 등을 길러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위대한 理論으로서가 아닌 작은 실천으로서 幼兒의 人生은 자라난다. 그러기에 이 잠재적 교육내용이 幼兒教育에서는 제일 중요한지도 모른다.

2) 社會適應性

他人과 人間關係를 맺으며 살아가는 기술은 學習되어지는 것이다. Harlow의 원숭이 實驗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또래 集團과의 사귄다는 중요하며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어미 원숭이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지만 또래 集團과 사귄 수 없었던 아기 원숭이는 어미 원숭이 없이 또래 원숭이들과만 살았던 원숭이들보다 社會適應力이 적었다는 것이다.

社會適應力을 길러주기 위해 幼兒教育 內容에 포함되어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들(어린이건 어른이건간에)이 자기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는 自身을 信賴하는 마음에서 他人을 신뢰해 보게 되는 과정이다. 幼兒教育機關은 어린이들이 家庭 이외에서 접하게 되는 최초의 社會集團이므로 여기에서 他人에 대한 信賴를 심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自由놀이 시간 중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분주하

게 노는 어린이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가 어린이가 한 일에 알맞은 칭찬을 했을 경우 어린이들은 自信感을 얻을 뿐 아니라 부모·형제나 어른에게 信賴感을 갖게 되고 원만한 對人關係를 맺어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어린이들의 社會適應力을 길러주기 위해 소꿉놀이 영역, 積木놀이 영역, 모래놀이 영역, 물놀이 영역 등을 준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모이고 놀이 計劃을 하는 동안, 그리고 싸움이 났을 경우 문제해결을 해 나가면서 어린이들은 대인 관계를 익혀가는 것이다.

社會適應力을 기르기 위해 어린이들은 협동, 타인의 權利 인정하기, 個人 또는 他集團의 소유물을 구분하기, 공공질서 지키기, 책임감 기르기, 性役割을 바르게 이해하기 등을 터득해야 한다.

Kamii는 어린이들은 社會的 知識(Social Knowledge)을 학습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명절에 대하여 알기, 이웃에 대해 파악하기, 職種에 대하여 알기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3) 知的 能力 기르기

지적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 學者들의 意見이 극단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 認知的 能力을 갖게 하기 위해 읽기, 쓰기, 셈하기를 집중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立場과 知的 態度 획득, 예를 들면 호기심, 주의 집중력, 탐구심을 먼저 기르도록 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筆者의 입장은 어린이들이 生活을 해 나가는데 필요한 基本學習技能이 학습되면 社會適應力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어린이의 흥미, 욕구는 이러한 基本學習技能을 배우지 않으려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습득이 되면 社會適應力이 높아져서 흥미도 유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後者の 경우는 基本學習能力을 기르되 읽기·쓰기·셈하기를 학습내용으로 정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러한 能力을 기를 수 있는 개념형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兩者 모두 生活을 영위하는 道具로서의 學習 基本能力을 중요히 생각하되 幼兒에게 제시하는 방법 資料選擇 및 제작방법에서 差異를 보인다.

제시 방법이 어떠한 知的 能力 발달을 돕는 幼兒教育內容에서 言語발달, 과학개념형성, 수 개념 형성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言語發達에서는 어휘수 늘이기, 사물을 표현하는 말의 의미 알기, 경험을 언어로 표현하기, 자기의 생각을 言語로 表現해 보기, 他人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 동화·동시 등을 통해 상상력을 길러보기, 글자 등 상징적인 표현의 의미를 알고 사용해 보기 등의 活動이 포함되게 된다.

과학개념을 형성하는 데에는 다양한 내용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幼兒教育 內容에서 다루어져야 할 과학개념은 幼兒의 주위 환경에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아교육에서는 추상적인 과학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보다는 주위 사물을 호기심을 갖고 직접 다루어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Kamii는 이러한 知識을 物理的 知識(Physical knowledge)이라 하여 논리 수학적(Logico-mathematical knowledge) 지식의 기본이 된다고 보았다.

幼兒가 과학 개념을 터득하게 될 때에도 역사가설을 설정해 보기, 관찰해 보기, 예상해 보기, 실험해 보기, 탐색해 보기의 과정이 들어가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도 원칙은 幼兒들에게 자기 스스로 탐색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자료와 機會를 많이 마련해 주는 것이다. 幼兒의 科學的 태도를 기르는 두번째의 지도 원칙은 해답을 어린이 스스로 찾아 보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리 마련된 답을 주거나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는 식으로 질문을 먼저 답을 예상하게끔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수 개념 형성을 위한 유아교육 내용에는 10 이전의 수의 이름 알기, 순서대로 놓기, 비교하기, 분류하기, 「많다—적다」, 「크다—작다」, 「없다—있다」 등의 수학적 어휘이해하기, 형태알기, 짝지우기, 쉬운 集合의 개념을 알아보기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積木쌓기, 숫자카드끼기, 체량킵, 그림 맞추기, 작은 플라스틱 맞추기, 구슬 꿰기 등의 자료들을 마련해주거나 교사가 제작한 教材들을 통해 이러한 개념들은 쉽게 형성되어 질 수 있다.

大部分의 성인들은 수학을 접근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幼兒期 또는 學童期 동안에 수학을 추상적으로 제시한 때문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다.

幼兒期 동안 어린이들은 수학이란 생활에 필요한 것이며 재미있는 것이란 認識을 가져야 한다. 수학적 지식보다는 수학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돕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이다.

4) 신체발달 돕기

幼兒教育 內容에서 신체적 발달을 고려한 사람은 Robert Owen, Fröbel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Fröbel은 Open-air 라는 시간을 두어 하루에 한번씩은 바깥에 나가게 하였었는데 현대 유치원 프로그램에서도 바깥놀이 형식으로 존재한다.

1900년대 초반 Clark University (美國)의 총장이면서 유아교육 내용에 많은 연구를 하였던 Stanley Hall은 유치원 교육내용에서는 대근육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많이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Thorndike도 유아교육 내용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었는데 특히 습관 형성이 다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여하간 幼兒教育 內容에서는 건강 및 위생습

관 기르기, 日常生活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습관 기르기, 안전규칙 이해하기, 대근육·소근육 발달하기, 눈과 손의 협응력 기르기 등의 내용이 포함됨이 바람직 하다.

위에서는 幼兒教育의 內容 및 지도방법을 다루었다. 내용 선정, 및 지도방법에 있어서의 대원칙은 요약하여 다섯 가지이다.

첫째, 어린이의 발달 수준에 맞으며 일상생활에서 유출할 수 있는 경험을 선정 지도한다.

둘째, 어린이를 위한 교육 내용은 구체적 자료, 實際事物을 반드시 수반하여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幼兒教育 內容은 놀이형태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Hodgkin이나 Winnicott은 어린이들은 놀이 형태를 통해 成人世界의 삶의 방식 또는 知識을 쉽게 터득해 나간다고 하였다.

네째, 幼兒教育 內容은 活動中心, 經驗中心의 형태로 선정되고 지도되어야 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해 가장 많은 것을 습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이의 마음에 행복을 심는, 의미를 주는 교육내용이어야만 한다.

독자안내

현장 교육 상담란 활용 안내

한국교육 개발원은 각종 교육문제에 대한 지상 상담을 수시로 접수하여 그 문제에 대한 본원 연구진 및 관계 전문가의 논의 내용을 본 정기간행물 "교육 개발"의 현장 교육 상담란에 게재코자 하오니 다음 사항을 참조하여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 상 : · 각급 학교에 종사하는 교원
· 교육연구, 교육행정에 종사하는 전문가
· 교육에 관계되는 기관, 단체에 종사하거나 교육에 관심있는 개인
- 내 용 : 각종교육 연구 및 교육실천에 관계되는 문제
- 방 법 : 서신, 내방
- 보 발 곳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실

* 상담내용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 (200자 원고지 5매이내)하여 제출하시되 상담자의 소속 (주소), 직명, 성명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幼兒教育 施設

李 基 淑

(梨花女子大學校 教授)

1. 序 論

幼稚園 教育이 독일의 Froebel에서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면서 幼兒教育의 目的이나 內容도 變化하였지만 教育形態, 施設面에서도 많은 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최근 幼兒教育에 대한 관심이 社會·文化·經濟의 面에서 혜택받지 못한 幼兒에게 옮겨가고 있으며, 公 業화에 따른 여성 노동인구의 증가 경향이나 핵가족제도로 인한 家庭教育 機能의 弱화로 幼兒教育機關의 機能이나 要求가 증대함에 따라 더욱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幼兒教育은 주로 幼稚園 教育이 중심이 되어서 부유한 계층의 자녀를 위한 특수교육의 形態로 私立機關에 의존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幼兒教育의 重要性에 대한 새로운 認識과 함께 농·어촌, 빈민지역의 幼兒에게 幼兒教育 施設의 혜택을 주기위한 努力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國家的 관심과 施設擴充의 의도로 인해 現在에는 幼稚園, 幼兒園, 어린이집, 새마을 협동 유아원, 國民學校 附設 幼兒教室, 公立幼稚園, 示範幼稚園, 농번기 탁아소, 골목 幼稚園, 공원놀이집단, 교회 어린이 선교원 등 다양한 形態의 幼兒教育 施設이 설립, 운영되고 있다.

幼兒教育機關의 施設設備에 관한 문제는 教育課程의 계획, 운영과 함께 兒童發達과 幼兒教育의 量的 擴充과 質的 向上的 問題가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財源상황에서 量的 증대문제와 질적기준의 확보를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稿는 幼兒教育 施設設備의 問題點과 현황에 비추어 분석한 다음 끝으로 幼兒教育 施設을 擴充하기 위한 方案과 施設設備의 內實化를 위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幼兒教育 施設의 重要性和 原理

幼兒期 兒童의 발달특징은 성인과는 달라서 주변환경에 대한 끊임없는 흥미와 호기심, 활동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변환경을 탐색하고 반응하여 발달한다. 그러므로 幼兒教育에서 施設의 要因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幼兒를 위한 施設을 구비하는데 고려해야 할 원칙을 열거해 본다면 아래와 같다.

첫째, 幼兒教育機關은 다른 기관이나 건물과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규모는 3-4학급 정도가 좋으며 건물은 되도록 단층으로 하고 幼兒들이 활동하기에 충분한 실내·외 공간이 있어야 한다.

둘째, 施設設備의 계획은 幼兒의 成長發達의 原理에 입각하여 수립해야 한다. 즉 幼兒의 발달적 특징, 성숙도, 욕구, 흥미, 개인차 등을 고려해야 하며 신체의 크기에 적합한 환경을 구성하여 幼兒들의 活動에 불편이나 무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충분하고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여 幼兒들이 자유롭게 주위환경을 탐색해 보도록하며 너무 복잡하거나 쉽게 싫증을 내지않는 환경을

* 本稿는 1981. 2 세 세대 育英會 主催 幼兒教育 세미나에서 發表된 主題講演의 抄錄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특히 幼兒들의 活動은 자유로운 놀이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幼兒들이 실내·외를 자유롭게 출입, 활동할 수 있게하여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네째, 안전하고 창의성있는 시설을 구성하고 고정설비 속에서도 이동이 가능한 설비와 기구를 활용하여 다양한 構成과 융통성 있는 環境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교실환경은 그 자체가 幼兒教育課程 운영을 위한 중요한 매체가 되므로 그때 그때의 教育內容과 活動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배치될 수 있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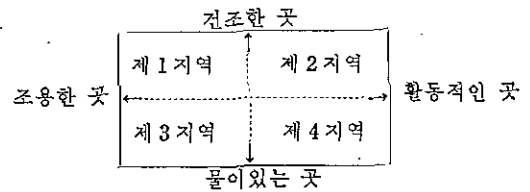
3. 幼兒教育 施設의 類型과 構成

一般的으로 幼兒教育機關의 施設과 設備은 室內施設과 室外施設로 대별될 수 있다. 室內施設은 주로 현관, 관찰실, 교사실, 화장실, 위생실, 창고, 조리실, 휴식을 위한 시설, 유희실 등으로 구분된다. 유희실¹⁾은 幼兒들이 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장소로서 한 幼兒당 1명 이상의 크기를 유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유희실의 形態는 정사각형 보다는 직사각형의 형태가 좋으며 밝고 창문이 나 있어 바깥을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실내에 사용되는 색상은 연한색으로 하여 幼兒들의 視力을 혼란시키지 않도록 한다. 특히 벽면은 幼兒들의 作品이나 사진 등을 전시하는 곳이므로 전시의 충분한 효과를 살리기 위해서도 부드러운 색상을 칠하도록 한다. 가구와 장은 幼兒의 키와 눈높이에 맞게하며 교구를 넣을 수 있는 장은 문이 없는 開放式 선반으로 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幼兒들이 敎具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幼兒 스스로 敎具 使用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물함은 敎室入口에 설치하고 그 속에 신발을 넣을 수 있는 장소와 옷을 걸어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 책상은 한 책상에 4-6명의 幼兒가 앉을 수 있도록 하며 삼각형이나 네모, 반원형의 책상을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조립하여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와 아울러 室內環境에서 배놓을 수 없는 시설은 실내바닥이다. 初·中等學校 敎育과는 달리 幼兒敎育에서는 바닥에서 구르고, 뛰고, 엎드리고, 눕는 등의 活動을 많이 하게 되므로 幼兒들이 活動하는 영역의 바닥은 마루로 하는 것이 좋고 그의 충분한 배려를 해주어야 한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敎室內部 設備의 構成에 관한 문제이다. 內部設備 構成에는 다음 4가지 공간구성을 고려해야 한다. 전조한 곳—조용한 곳, 활동적인 곳—전조한 곳, 조용한 곳—물이있는 곳, 활동적인 곳—물이있는 곳의 배열이다. 교실의 구성과 배열은 이러한 4가지 원리에 근거하여 <표-1>²⁾과 같이 활동영역으로 구분되어 진다.

<표-1> 실내 공간구성 계획기준



제 1 영역은 책보기 영역, 소 그룹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혹은 책상에 앉아서 활동하는 조작놀이 영역이다.

제 2 영역은 대 그룹 활동영역으로 울동·음악 활동을 할 수 있고 소꿉놀이, 적목놀이, 목공상 놀이를 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제 3 영역은 간식을 먹거나 미술활동을 하는 영역이며

제 4 영역은 그림그리기, 과학실험영역, 모래 놀이 영역이다.

위의 네 가지 영역 중 특히 3.4지역은 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가까이 위치해야 한다. 또 1.3지역의 조용한 놀이영역과 2.4지역의 활동적 놀이영역은 서로 멀리 떨어져 배치하는 것이 좋다.

화장실의 경우는 학령전 幼兒의 발달 특징상

1) 유희실로 주로 불리워지고 있으나 아동의 활동과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유희"의 개념은 앞으로 "놀이" 혹은 "활동" 실로 바꾸어져야 할 것이다.

2) goe L Frost, The young child and the educatine process, Holt, Rinehart and winston, 1976. p.219.

대·소변의 자유로운 통제·조절이 불가능하므로 실내·외에 각각 위치하게 하는 것이 좋으나 어려울 경우에는 園舍에 가까이 설치한다.

다음으로 室外施設을 살펴보면 대개 幼兒 1명당 6.93—9.24m²로 보고 있으며, 현재는 유치원 施設設備 基準緩和로 인하여 遊園場이 遊戯室으로 겸용된다고 認定하고 있다. 그러나 遊戯室의 용도는 遊園場과 엄연히 구별되므로 遊戯室이 遊園場이 될 수는 없다.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地域社會施設을 이용하는 方案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아파트 地域은 주변의 놀이터를 이용한다든지, 농·어촌의 경우는 주변의 산과 들이 얼마든지 幼兒의 遊園場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遊園場에는 대근육活動을 할 수 있는 敎具로서 그네, 시소, 정글짐 등이 있을 수 있고 모래밭, 물놀이, 동물기르기, 꽃밭 등의 施設을 해주어 幼兒들이 직접 동·식물을 사육·재배해 보도록 한다.

4. 結 論

이상의 고찰을 토대로 하여 幼兒敎育施設의 量的, 質의 向上을 위한 方向을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우선 敎育的 必要가 큰 地域을 選擇하여 施設設備의 확장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현재 추진 중인 다양한 시설형태를 적극 개발, 추진하여 그 각각의 特性을 살리면서 사설기관을 擴充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탁아소, 직장 탁아소, 유아원, 새마을 協同幼兒園, 私立幼稚園, 國民學校 並設幼稚園 등이 敎育과 保育의 기능을 함께 한다 하여도 서로 혼동되어 중복되는 역할을 하기 보다는 각 지역사회에서 요구되는 형태의 시설기관이 지역에 맞게 확장 設立되어야 한다.

셋째, 幼兒敎育機關의 운영형태도 각 地域社會의 財政的 상황에 따라서 여러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대도시 중·상류계층의 지역에는 有料 託兒所와 私立幼稚園 등의 有料型 機關을 育成하고 농·어촌, 도시 빈민거주지역은 정부가 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無料型, 영세가정 및 중산

층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곳은 等差制型을 사용하여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아파트 건설업자나 공업단지 혹은 여성 노동자를 대부분 고용하는 기관에서 幼稚園이나 託兒시설의 設置를 義務的으로 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또 농·어촌의 몇 가구가 단위가 되는 孤立地域은 소수 幼兒對象의 가정형 어린이집을 運營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의 幼兒敎育施設 設備基準은 地域別 特性에 맞도록 다양하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도시 중·소도시 등 군이 施設緩和를 할 필요가 없는 도시형은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하며, 농촌형의 경우는 그 特性에 맞게 現行 施設基準을 緩和해 줄 필요가 있다.

다섯째, 施設擴充을 위하여 既存 공공시설물, 특히 새마을회관, 학교, 아파트, 교회 등의 活用이 검토되며 이러한 施設을 이용할 때 정부의 財政的 支援으로 시설물의 이용만이 아니라 幼兒의 發達水準에 맞는 施設設備의 보조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施設의 內實化를 위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열거해 보겠다.

첫째, 施設設備에 관한 研究가 필요하다. 現在 우리나라 幼兒의 발달상황에 대한 표준치수에 맞추어 제시해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설비의 규격이 앞으로 研究되어야겠다.

둘째, 既存建物の 이용이나 國民學校 並設의 幼兒敎育機關을 設備할 경우는 長期的이고 영구적인 위치를 연구하여 設置하도록 하며 敎育的 機能을 強化하기 위하여 정부는 더 많은 財政支援을 해야 한다.

셋째, 國家的으로 幼兒敎育機關의 기본설비에 대한 전문적인 제공과 배려가 요구된다. 幼兒의 눈높이에 맞는 시설물 배치, 화장실과 세면대의 설치, 창문위치, 건축자료, 실내·외 공간구성 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검토가 요구되며 特殊幼兒를 위한 施設도 함께 並設하는 方向을 考慮해야 한다.

넷째, 幼兒敎育 施設設備만을 전문적으로 擔當할 수 있는 私設企業育成이 必要하며 商業的인 것 이외의 폐품을 이용한 設備의 方案도 摸索해 보아야 할 것이다. —————

새마을 協同幼兒園

姜 英 奇

(內務部 公企業課長)

① 지난해 10月부터 社會 各層에서 就學前 幼兒教育에 對한 關心이 高潮되기 시작하였다.

여러 部處에서 나름대로의 振興計劃이 마련되어 우리나라의 現實에 가장 알맞는 方案이 무엇인가를 檢討하기 시작한 것이다. 작년 11月 하순경 內務部도 “就學前 兒童教育의 運營 모델을 類型化하여 提示해 줄 수 없겠느냐”는 地方의 要請에 따라 公企業課에서 運營 모델을 研究하게 되었고, 內務部가 主管하고 文教部, 保健社會部, 農村振興廳이 協同하여 政府事業으로 새마을 協同幼兒園을 運營하게 되었다.

幼兒教育은 누가 어떠한 形態로든지 우선 시각을 해야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실천해야 할 重要한 課題임을 알게 된 것이다.

어린이에게 주위 環境의 豊富한 生活 經驗을 터득케 함으로써 平生教育의 基盤을 다지고, 健全한 民主市民으로서의 資質과 人格을 涵養함으로써 國民精神教育을 強化할 수 있을 것이며, 早期에 體系의인 優秀人力을 開發하는 것은 바로 國家發展力을 培養하는 길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現實을 볼 때 都市는 날로 過密化되어 어린이가 마음껏 뛰놀 수 있는 놀이터가 없고 맞벌이 夫婦의 數가 늘어나 어린이를 安心하고 맡길 곳이 없으며 農村은 바쁜 일손 때문에 아이들만으로 放置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 結果 어린이에 對한 따뜻한 保護와 養育의 機會가 不足할 뿐아니라 過剩保護가 아니면 過少保護狀態가 되고 있어서 社會的으로나 家庭的으로

너무 無關心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現在 우리나라의 幼兒教育 現況을 살펴 보면 所管部處가 多元化되어 幼兒教育에 關한 基本法令이 整備되어 있지 않고 그나마 施設과 教育內容이 貧弱하고 全體 兒童數의 7% 정도만을 就園시키고 있으며 幼稚園은 文教部가 教育法에 根據하여 教育爲主로, 託兒所는 保社部가 兒童福利法에 根據하여 保護爲主로, 農繁期 幼兒園은 農村振興廳이 農繁期 託兒爲主로 運營하고 있는 實情이다.

② 새마을 協同幼兒園은 우리 實情에 알맞는 韓國의 幼兒教育의 새로운 形態로서 새마을運動方式으로 設置運營할 計劃이다. 住民 스스로 參與하여 運營은 새마을 婦女會가 擔當하고, 官은 意慾이 왕성한 地域부터 最少限의 支援을 통하여 福祉投資의 性格이 되도록 零細民과 農·漁村地域부터 우선 支援하여 受惠範圍가 擴大되도록 指導하고, 學父母 教育을 並行함으로써 새마을 協同의 國民 教育場化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 새마을 協同幼兒園은

○ 1段階로 今年에 示範幼兒園을 全國市·郡·區마다 1個所씩 218個所에 設置하여 示範運營의 效果가 漸次 擴大되도록 하고,

○ 2段階로 來年부터 1986년까지 5年동안에 邑·面·洞單位로 擴大하여 住民이 가장 고맙게 여기는 第1次的 福祉投資事業으로 推進하되 所

* 이 글은 새마을 協同幼兒園이 독자들에게 생소하므로 이를 소개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음.

要財源은 地方自治團體 雜種財産 處分財源을 于先的으로 投資하여 將次 1 마을 1 幼兒園 設置를 目標로 就園率 50% 以上을 達成토록 할 計劃이다.

새마을 協同幼兒園 設置에 따라 具體的인 指針을 지난 해 12月 4日 示達하여 今年 3月中 開園에 차질이 없도록 對備하였으며, 保育教師 457名의 人選을 1月 10日까지 完了하였고 市·道 關係公務員 530名에 對한 研鑽會를 大邱 啓明大學校에서 開催하여 幼兒教育의 重要性和 行政支援 事項을 指導하였다.

保育教師에 對한 研修는 國立 社會福祉研修院에서 1週間씩 二期로 나누어 지난 2月中에 마쳤고, 幼兒教育의 弘報를 위하여 마크 懸賞募集을 통해 깃지와 徽章을 製作 配布하는 등 事前對備를 徹底히 하여 3月 20日까지 全國이 일제히 開園하여 現在 教育을 實施하고 있다.

●今年度の 投資計劃은 地方費로

○施設投資 63 億원

○人件費 4 億원

○運營費 6 億원

총 73億원을 投入하게 되며, 특히 雜種財源은 施設費에 對한 重點的으로 投入하도록 指導하고 있다.

●施設確保 方案은 3가지로 類型化하여

○1類型은 地地를 마련, 建物을 新築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어린이에게 適合한 環境과 施設이 되도록 하는데 重點을 두었고

○2類型은 既存住宅을 買入하여 活用하는 것으로 內部를 改造하거나 補完施設을 모두 마쳤으며

○3類型은 새마을會館, 마을倉庫, 教會 등의 共同利用 施設을 活用하는 것으로 大部分 分數에 넘지 않게 適正한 施設을 많은 돈 안들이고 마련할 수가 있다.

●幼兒園의 施設基準을 마련하여

○2類型과 3類型은 必須施設로 運動場, 놀이施設, 놀이室, 給食堂, 洗面臺 등을 반드시 갖추도록 하였고

○1類型으로 施設을 마련할 경우에는 可及的 꽃밭, 모래밭, 動物飼育場과 學習資料室, 養護室 등을 完備하는 方向으로 指導하였다.

幼兒園의 施設은 무엇보다도 어린이 中心의 施設이 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의 치수에 알맞고 安全한 施設이 되도록 配慮했으며 마음껏 뛰놀고 배울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하는데 主眼點을 두었다. 建物은 單層構造를 原則으로 하고, 屋內는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턱이 안지게, 바닥은 포근하고 부드러운 資材를 쓰도록 하였고, 便所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水洗式을 原則으로 하였으며, 유리창은 밖을 내다보기 便利하도록 어린이의 눈 높이로 낮추도록 하였다.

協同幼兒園의 運營主體는 學父母가 主軸이 된 마을單位의 새마을婦女會가 대부분이고 教會, 새마을靑少年會 順이며 계속 새마을婦女會의 運營을 擴大하도록 指導할 계획이다.

保育教師는 總 457名으로 幼兒園當 2名이 配置되어 있으며 能力別로 보면, 大學의 專攻學科를 나와 所定의 資格證 所持者가 194명, 國立 社會福祉研修院 등 養成機關 履修者가 64名이며, 高卒이상의 學歷을 가지고 올건 伴奏가 可能한 教師가 199名이다.

學歷別로는 大學 卒業者와 高等學校 卒業者가 거의 半半이고 高校 卒業者라 하더라도 2年 以上 經歷을 가진 教師의 配置를 漸次 擴大할 계획이며, 人件費 財源은 市·郡에서 支援한다.

保育教師에 對한 事前 研修를 지난 2月中에 1週間씩 二期로 나누어 國立社會福祉研修院에 委託시켜 總 36時間 過程으로 理論과 實際 指導要領을 모두 마쳤다.

收容兒童은 總 12,610名을 個所當 20~60名 基準으로 1~2個 班을 運營하고 있다.

對象兒童은 滿 3歲부터 6歲까지의 就學前 어린이를 對象으로 하되 零細民子女를 于先的으로 就園토록 하였고 어린이의 成長段階에 알맞는 合理的인 教育內容을 導入할 수 있도록 4歲 以上の 어린이는 幼兒班에 3歲 以下의 어린이는 嬰兒班으로 區分 運營할 計劃이다.

兒童의 指導는 하루 4時間 程度를 原則으로 하되 농번기에는 8時間까지 保護할 수 있도록 했고 어린이가 마음껏 探究하고 상상하며 뛰놀

수 있도록 教育 內容을 多樣하게 개발할 계획이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保護하면서 保健, 營養, 身體發達 등을 考慮하여 健康하고 安全하게 養育하도록 하고 教育 機能은 文敎部의 幼稚園 教育 課程을 準用하되 探究力, 合理的 思考 등의 科學 教育과 協同, 秩序, 禮節, 愛國心 등의 社會 教育에 重點을 둘 계획이다.

놀이 指導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成長段階에 따라 3歲兒의 경우 感覺運動을 주로 하는 혼자놀이에서 부터 시작하여 漸次 探索하고 모험을 즐기는 놀이로, 그리고 包括的인 상상놀이와 具體的인 建設操作놀이의 順序로 指導할 계획이다.

새마을 協同幼稚園은 學父母 參與 教育方式으로 운영하려 한다. 保育教師의 定期 家庭訪問을 通하여 教育相談을 實施하고 餘裕있는 學父母가 零細民 家庭을 訪問하여 經驗談을 서로 交換하게 하며 學父母가 어린이의 學習을 參觀하여 補助教師 役割을 돕도록 하면서 父母와 教師間에 集團討議를 通하여 教育方法을 改善하려 한다. 移動式 장난감 教具 圖書館을 市·道當 1個所씩 運營하여 巡廻指導케 하도록 計劃하고 있으며, 比較見學, 할아버지 參與 등 地域社會 單位의 福祉施策과 連繫 推進되도록 研究·發展시킬 계획이다.

教育資料는 教材와 教具의 多樣한 開發을 推進하되 今年度 教育教材는 文敎部에서 編纂한 內容 5가지를 全 幼稚園에 一帙씩 無償으로 供給하였고 教具는 地域別로 教具보내기運動을 展開하여 學習準備가 圓滑히 이루어지고 豐富한 生活經驗을 興味롭게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가급적 廢品을 많이 活用토록 勸奨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의 健康管理를 위하여 市·郡保健 所長으로 하여금 保健擔當官에 委囑하여 年一回 以上 定期 健康診斷을 實施하고 婦母의 自願活動과 當番制 運營으로 어린이의 給食에 精誠이 담긴도록 하였으며 標準給食 차림표를 普及하여

營養을 充分히 供給하면서도 費用이 덜드는 方向으로 지도하고 있다.

저희 內務部는 示範幼稚園의 示範效果를 波及 시키기 위하여 幼稚園마다 한 가지 이상 特徵갓기와 運營競進制를 實施하여 그동안 고생한 보람을 갖도록 士氣를 높여주고 地域住民스스로 協力한 垂範美談事例를 發掘하여 地方에 波及시킬 計劃이다.

外國의 先進事例를 蒐集하기 위하여 海外視察, 또는 研修를 推進하고, 全國의 새마을 協同幼稚園의 現況을 모아 冊字로 發刊하려 한다.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어려운 與件下에서 運營해 온 既設 幼兒教育施設에 對하여도 可能한 支援을 強化하여 우리나라 幼兒教育制度가 빠른 時日內에 定着될 수 있도록 協助할 計劃이다.

③ 幼兒教育을 推進하면서 얻은 教訓으로서는 幼兒教育이 무엇보다도 어린이를 中心으로 한 教育이 되어야 하며, 兒童의 發達段階를 고려한 教育內容을 갖추어야 하고 學父母의 參與를 擴大함으로써 새마을 國民教育으로 昇化發展시키는 問題와 새마을 婦女會를 繼續 育成하여 運營能力을 培養시키는 것이 重要하다고 믿고 있다.

새마을運動이 이제 幼兒教育에까지 그 領域을 넓히게 된 것은 매우 多幸한 일이다. 어린이들은 메를 지어 밀려 오고, 住民들은 새마을 協同 幼稚園 施設이 더 必要하다고 발벗고 나서서 物心兩面의 協助를 아끼지 않고 있다.

끝으로 새마을 協同幼稚園은 內務部의 單獨事業이 아니며 우리나라 實情에 알맞는 좋은 모델이므로 다 같이 參與하여 政府의 事業으로 發展시켜 가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만 現在 多元化되고 機能別로 體系化되어 있지 않은 就學前 幼兒教育制度를 根本적으로 再檢計하여 政府次元에서 보다 效率적으로 一貫性있게 推進되기를 期待한다.

幼稚園 兒童의 學習準備度 研究(Ⅱ)*

金 誠 一

(本院 主任研究員)

I. 緒 論

就學前 教育은 先進 外國에서 일찍부터 중시 되어 왔으며 근래에 이르러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취학전 교육이 강조되는 주요한 이유로는 幼兒期의 발달이 성인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사회변화로 인하여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79년 현재, 전국의 유치원은 公立 26개소를 포함한 794개소이며, 園兒數는 5만 7천여 명으로서 5세 아동의 6.5%에 달한다. 정부에서는 유치원 교육을 公教育化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 253개 국민학교에 유치원을 附設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교육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教育課程을 구성하고 교육자료를 개발하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취학전 교육은 양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서 추상적인 교육과정, 社會性과 예능 위주의 교육활동, 國民學校 教育과의 연계성 결여, 교사의 자질 부족, 행정에 치우친 장학활동, 교재 및 시설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유아교육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유아교육 전반에 관한 것이며, 교육방법이나 교육과정에 관련된 소수의 연구도 특정 영역에 국한된 일반

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보다 구체적인 측면에 관련된 연구, 특히 취학전 아동의 기초 학습기능에 대한 진단과 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연구는 취학전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의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시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원에서는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여 유치원 교육의 초기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1차 연구의 후속연구로서, 아직 이론적 照會體制가 분명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활동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準備度(readiness)라는 개념은 오래 전부터 록크, 루소, 페스탈로찌, 듀이, 프뢰벨 등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사용되었으나, 20세기 초기에 들어서서 그 개념이 확립되고 교육원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된 데에는 心理測定理論의 발달, 읽기 준비도(reading readiness)에 대한 관심 증대, 배아제와 브루너 이론의 영향, 個人差를 강조하는 교수이론의 대두 등이 작용하였다.

학습준비도란 단순한 생활 연령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아동을 有機體 全體(total organism)로 보아 여러 행동 측면에서의 개인간 차와 개인내 차를 밝혀 교육 프로그램의 개별화를 기하자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근래에는 學習不振(learning

* 本稿는 "韓國 兒童의 身體的·知的·情意的·社會的 發達에 關한 研究"의 일환으로 1980年度에 本院에서 수행된 「幼稚園 兒童의 學習準備度 研究(Ⅱ)」(연구보고 114집) 결과를 요약한 것임.

disabilities)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같은 IQ라도 그 하위능력에서 상당한 개인내 차가 발견되어, IQ 120과 90이 학교 학습에 미치는 개인간 차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개인내의 능력차가 교육에 주는 시사점도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준비도의 개념 영역은 국내의 취학전 교육목표와 교육 프로그램,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10개 학습준비도 검사의 측정 측면 등에서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쳐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環境과의 關係 (orientation toward environment)

일상생활에서 아동이 자신과 주변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과도 관계된다. 이름·생일·주소 등의 일반상식과 신체부분에 관한 지식은 자신에 대한 定義와 과제 수행시의 자기 통제력 행사에 기본이 된다. 정서적 안정성은 취학시에 요구되는 일정 시간의 독립심을 고취하고 새로운 인간관계에서 야기되는 정서 긴장을 감당하는데 필요하다.

○協應能力 (coordination)

과제 수행에서 필요한 근육 통제와 감각기관의 상호협응 능력이다. 이에 포함되는 대·소근육 운동과 시각운동기능 등은 학습상태에서 구두지시 이행, 문자학습, 여러가지 동작 등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辨別力 (discrimination)

여러 자극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능력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여러가지 물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데 토대가 된다. 시·청각 변별력이 결핍되면 분류기능이나 언어학습에 큰 지장을 받게 된다.

○記憶力 (memory)

모든 高等精神機能의 기초가 되며, 시·청각 기억력이 결핍되면 학교학습에서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理解와 概念形成 (comprehension & concept formation)

어떤 물체나 表象,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으로

서 지시이해·물체에 관한 설명·분류 또는 범주화·수 지식 등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상의 5가지 기능은 국민학교 초기 3년간의 학습에서 요구되는 기초 능력이다. 이와같은 학습준비도의 구성개념에서 인지적 측면이 강조된 것은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지적 측면을 중시하는 세계적 동향과 국민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결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숙과 감각기관 등의 생리적 요인, 가정환경과 다양한 사회적 경험 등의 환경 요인, 안정성과 학습의욕 등의 정서적 요인, 일반지능과 변별력 및 추리력 등의 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이 4개 요인 중에서 성숙의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6세 이전에 학습준비도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제의 단순화·소집단 구성·흥미있는 학습활동·학습준비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된 아동의 선정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습준비도의 효과적인 교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취급된 연구문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설정되었다.

첫째, 유치원 교육이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유치원 교육 9개월 째에도 尙存하며, 특히 성숙의 영향과 초기 2개월간의 교육 효과를 제거했을 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둘째,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 교육 이외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으로는 지역, 性, 부모의 학력, 출생순위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요인에 따른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의 차이를 비교하려는 것이다.

II. 方法 및 節次

본 연구가 1차 연구의 후속이므로 조사대상은 1차연구의 대상과 동일한 아동이다. 즉, 서울과 지방의 각 5개 유치원에서 각 20명과 각 유치원 근처에 거주하는 未就園 아동 각 5명이 조

〈表 1〉 學習準備度 檢査內容 및 問項數

基本技能	下位領域	問項數	最高點
· 環境과의 關係	· 一般常識 (· 情緒的 安定性)	16	19
		(5)	(10)
· 協應能力	· 小筋肉運動 · 大筋肉運動 · 視覺運動技能	6	6
		8	8
		7	7
		1	9
· 辨別力	· 聽覺辨別 · 視覺辨別	5	5
		7	7
		4	4
· 記憶力	· 聽覺記憶(I) · 聽覺記憶(II) · 視覺記憶	4	4
		4	8
		1	6
		49	57
· 理解 및 概念形成	· 語彙	49	57
	10개 영역	108	136

註: 정서적 안정성의 평정결과는 검사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검사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되었음.

사 대상으로 재선정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는 1차 조사 6개월 후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거주지가 이동된 아동들의 경우에는 검사실시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실제 표집된 아동수는 유치원 아동 185명과 未就園 아동 32명이었다.

검사도구는 1차 연구에서 제작된 학습준비도 검사를 재사용하였다. 학습준비도 검사의 내용과 문항수는 〈表-1〉과 같다.

문항선정은 우리나라 아동들의 발달 자료가 희박하여 외국의 검사와 그 결과를 참조하여 이루어졌다. 5세 수준에서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아래 작성된 문항들은, 5~6세 아동 20여 명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와 관계 전문가의 검토를 토대로 수정되어, 108개로 확정되었다.

검사의 구성에서 아동의 주의집중과 흥미를 유지하기 위하여 색과 동작 문항들이 다른 문항들과 적절히 혼합되도록 했고, 대체로 카드 1매에 1문항이 수록되었으며, 카드 전면에는 주로 그림으로 된 문항이, 이면에는 지시내용과 채점방법이 제시되었다.

검사실시에 앞서, 검사자는 검사내용을 충분히 읽고 실시요령을 숙달해야 하며 공·가위·크레용 등의 준비물을 구비해 두어야 한다. 검사는 검사자와 아동이 마주 앉아 카드 1매씩 순

서대로 넘기면서 실시하며, 대체로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검사의 채점은 각 문항에 대한 아동의 정답 여부에 따라 1점, 또는 0점을 주게 되며, 일부는 2점까지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연구용으로 제작된 본 검사에는 발달척도상의 자료를 뽑기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문항이 삽입되었다. 그러므로 1, 2차 조사 결과와 검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좋은 문항을 선정하여 최종 문항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검사도구의 수정과 신뢰도·타당도 검증 등의 제반 절차는 금년에 이루어질 것이다.

검사실시는 조사대상 유치원의 교사가 담당하였다. 조사대상이 1차 연구의 대상과 동일하므로 검사자도 1차 연구에서와 동일한 사람이었다. 이들 10명의 교사들은 1차 연구시에 검사실시에 관한 집중적인 훈련을 받은 바 있다. 검사는 각 유치원에서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1일 1~2명의 아동에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검사실시에서 자료 회수까지 소요된 기간은 1979년 11월 10일에서 12월 10일까지 약 1개월이었다.

회수된 자료는 개인별로 10개 영역의 점수와 총점을 산출한 후, 3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처리되었다.

유치원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령·성·부모의 학력·지역을 짝지워 유치원 아동과 未就園 兒童 각 32명을 표집한 후, 그들의 점수를 變量分析하였다. 또한 유치원 교육 2개월 짝의 유치원 교육 有無간의 학습준비도 차이가 유치원 교육 9개월 짝의 교육 有無간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共變量分析도 병행하였다. 짝진 표집(matched sample)에서 지능의 영향은 별도로 통제되지 못했으나, 인물화에서 점수가 극단적으로 낮은 아동을 제외함으로써 이 영향은 어느 정도 통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방법에서도 검사실시 기간(5월과 11월)·지역간·性間·父母 學歷間·출생순위간 변량분석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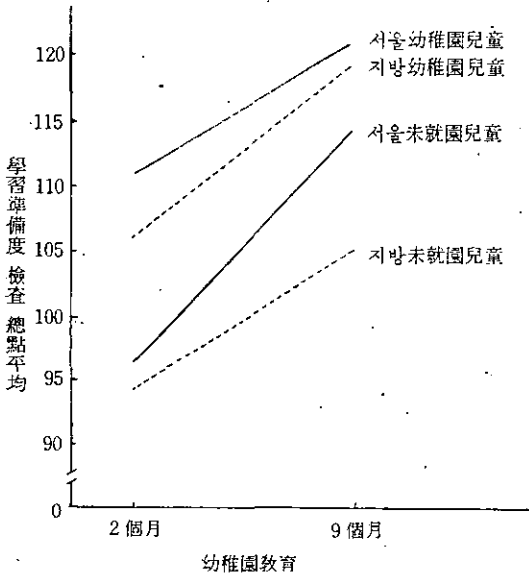
유치원 아동의 연령단계별 학습준비도의 변화는 연령을 3개월 단위로 구분하여 문항 정답율을 검사시기별로 비교함으로써 파악되었다. 또

한, 보충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유치원 아동의 성·지역·검사시기에 따른 문항 정답율도 함께 산출되었다.

Ⅲ. 結果 및 論議

가. 유치원 교육의 효과

작진 표집에 의해서 유치원 아동과 未就園 아동 각 32명의 학습준비도 검사 총점을 지역 및 검사시기별로 비교한 결과는 <圖 1>과 같다.



<圖-1> 幼稚園 兒童과 未就園 兒童의 時期別, 地域別 學習準備度上的 變化

검사의 총점 평균의 지역별·유치원 교육 유무별 순위는 문화적 자극의 풍요성의 정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未就園 아동보다는 유치원 아동이, 지방보다는 서울이, 5월보다는 11월에 학습준비도 검사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p < .05$). 검사시기간에 학습준비도상의 차이를 보인 것이 성숙의 요인 뿐만 아니라 유치원 교육의 효과도 작용한 것이라면 시기와 유치원 교육 유무간의 상호작용도 의의있는 차이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학습준비도 검사 총점에서는 이 상호작용이 의의없게 나타났다. 이는 유치원 교육 유무에 관계없이, 유치원 아동과 未就園 아동이 모두 두 시점간에 학습준비도의 향상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즉, 두 시점간에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상의 증가량(13점)은 未

就園 아동의 증가량(11점)과 의미있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1차 점수, 즉 유치원 교육 2개월 쯤의 두 집단간의 학습준비도 점수를 共變量으로 하여 두 집단의 검사 점수를 共變量分析한 결과, 두 집단간의 학습준비도상의 점수는 1차 점수의 차이를 제거했을 때 2차에서는 차이가 없었다($F(1, 62) = 0.84, p > .05$).

비록 유치원 교육 유무가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서 시기간의 의미있는 차이는 없었지만, 주효과인 유무간의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난 것은 유치원 교육을 받은 집단이 받지 않은 집단보다 학습준비도에서 앞서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는 1차 연구에서도 입증된 바 있으며, 일반인의 상식을 실증한 셈이다.

유치원 교육 유무가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서 시기간의 의의있는 차이가 없음은 다음의 2가지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학습준비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현행 유치원 교육에서 의도적 또는 체계적으로 투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유치원 아동이 未就園 아동보다 학습준비도상에서 높은 점수를 보인 것은 유치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경험으로 인한 우연적인 효과일지도 모른다.

둘째, 현재 유치원에서 투여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내용은 좋으나, 투여과정에서 어떤 교육활동이 언제·왜·어떻게·어디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교사들의 명백한 이해가 부족한 소치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치원의 무자격 교사가 25%나 되며, 교육활동이 예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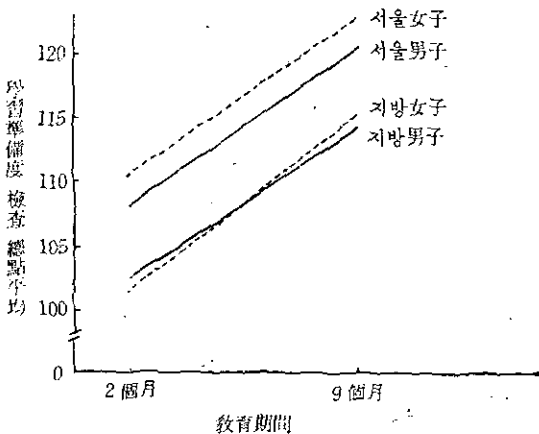
한편, 학습준비도의 지역차는 유치원 아동의 경우 1·2차 검사에서 모두 근소하게 나타났다. 未就園 아동의 경우에는 시일이 지날수록 증가되었다. 이는, 未就園 아동들의 경우에, 지역간의 문화적 환경의 차이가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시일이 지날수록 증대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준비도 검사의 하위영역별 경향에서도 지

역 요인을 제외한 검사 시기간 및 교육 유무간에 대부분의 하위 영역에서 유의있는 차이를 보였다. 검사시기·지역·유치원 교육 유무의 3가지 변인에서 가장 큰 점수차를 보인 검사 영역은 어휘였다. 이들 변인이 모두 다양한 경험의 증가를 시사하는 것이므로, 경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어휘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나.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유치원 아동 185명의 검사시기에 따른 학습준비도의 변화는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긍정적인 경향을 나타냈다($F(1, 369) = 116.51, p < .01$).



<圖-2> 幼稚園 兒童의 教育期間에 따른 性別, 地域別 學習準備度上的 變化

유치원 아동은 학습준비도 검사의 모든 영역에서 검사 시기간에 유의있는 향상을 보였다($p < .05$). 구체적으로 보면, 학습준비도 검사의 총점은 유치원 교육 9개월 쯤에는 12점 이상 증가되었다. 학습준비도 검사가 準據指向的 檢査의 性格도 띤 것이므로 잠정적인 목표 도달기준을 총점의 80%인 109점으로 본다면, 유치원 아동은 교육 말기인 9개월 쯤에는 과반수가 이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상식과 어휘 영역의 마름모 알아맞추기와 주소·생일에 관한 문항에서는 15% 이하의 정답율도 보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기간의 증가에 따라 학습준비도 수준이 향상되었다고 하여

이 결과를 전적으로 유치원 교육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연령 증가에 따른 우연적인 교육의 효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수준에서 지역간 차는, 전반적으로 볼 때, <圖 2>와 같이 검사시기와 무관하고 유의있게 나타났다. 즉, 서울의 유치원 아동이 지방의 아동보다 학습준비도에서 앞서 있다($F(1, 369) = 37.86, p < .01$). 검사영역별 점수에서도 대부분의 영역에서 유의있는 지역간 차이를 보였다($p < .05$).

이는 유치원 교육환경에서 지역간 차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유치원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유치원의 교사와 시설이 좋은 곳은 전체의 20% 정도이며 주로 대도시에서 편중되어 있다고 한다.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수준에서 性差는, <圖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의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사 영역별로 보면, 남자는 대근육운동과 시각운동기능에서, 여자는 소근육운동·인물화·시각기억 영역에서 각각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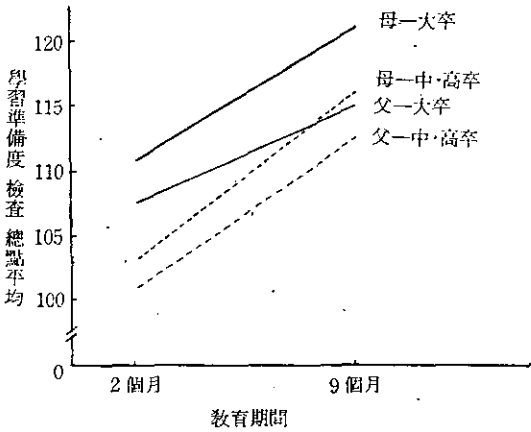
학습준비도에서 性差는 생리적 차이 뿐만 아니라 육아방식 등의 문화적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이 복합되어, 일반적으로 남자는 보다 활동적이고 여자는 보다 섬세한 경향을 띠게 되기 때문에 학습준비도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학력수준에 따른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상의 차이는 <圖 3>과 같다. 유치원 아동의 부모 학력은 모두 중등학교 졸업 이상이었으므로, 학력수준은 대졸과 중·고졸의 두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학습준비도 검사의 총점과 대부분의 하위영역에서 유치원 아동은 부나 모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유의있게 높은 경향을 보였다($p < .05$). 그러나 학습준비도 검사의 총점을 검사시기에 따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면,父의학력 수준의 점수차는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고,母의학력 수준간의 학습준비도 총점 차이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父의학력 수준보다는 母의학력

IV. 結論 및 提言



〈圖-3〉 幼稚園 兒童의 教育期間에 따른 父母 學歷 水準別 學習準備度上의 變化

수준의 차이가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차이는 아동이 대체로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빈번한 접촉을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치원 아동의 출생순위, 즉 첫째·중간·막내 간의 학습준비도 수준의 차이는 검사의 총점과 각 영역별 점수에서 모두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물화 점수에서 첫째와 막내가 중간 아동보다 다소 높은 경향성($F(2, 168) = 3.13, p < .10$)을 보였을 뿐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유치원 아동은 未就園 아동보다 학습준비도에서 앞서 있기는 하지만 교육기간의 증가에 따라 그 차이의 정도는 큰 변화가 없어, 유치원 교육은 아동의 학습준비도 향상에 기대한 바와 같은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연령·지역·부모의 학력수준의 차이가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와 같은 결론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 정의된 학습준비도에 관련된 활동이 현행 유치원 교육에서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학습준비도 향상이 유치원 교육의 목표라고 할 때, 이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의 부수적 결과로서 학습준비도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162개 활동으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은 추후 현장 적용을 통하여 그 효과가 입증되어야 하겠지만, 교육자료가 빈곤한 현장에서는 유치원 아동의 지도, 특히 잠재적 학습부진아의 교정자료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학습준비도 검사는 1·2차 조사 결과를 통하여 그 실용성과 교육적인 가치가 충분히 입증되었다.

이 검사가 수정·보완되어 교육 현장에 보급된다면 유치원 아동의 학습준비도 수준 측정만이 아니라 학습부진아의 조기 선별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독자안내

TV 중학교 영어 교재 발간

TV 중학교 영어

중학교 학생들의 영어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UHF 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중학교 영어 5,6월분 교재가 발간되었다.

- 내 용
- 중학교 영어
 - 기본 어법 습득
 - 말하기, 듣기 능력
 - 학교 수업 보충
 - *실용적인 영어 학습

방송시간 : KBS 3 TV 월·수·금 18:10~18:30

새 教育體制가 教育現場에 미치는 影響*

朴 慶 淑
(本院 主任研究員)

I. 初·中學校 教育發展事業의 目的 및 性格

韓國教育開發院은 1972年 9月부터 우리나라 初·中學校가 당면하고 있는 諸問題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 教育體制를 研究·開發하여 전국 學校現場에 一般化할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初·中學校 教育發展事業”을 수행하여 왔다.

이 사업의 목적을 학생, 학교 및 국가의 세 가지 次元에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킨다.

현대적인 學習指導의 이론과 실재를 면밀히 연구하고 검토하여 우리의 학교 현장에 알맞게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학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지식의 습득보다는 합리적으로 思考하고 창의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高次的 知力の 학습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좀더 알맞은 학습지도 및 수업운영을 통해서, 스스로 학습하려하고 활력이 넘치는 수업태도를 가지는 자율학습을 강조한다.

2) 학교차원에서는 현대적인 經營原理를 최대한으로 반영하여 學校經營을 合理化하도록 한다. 즉 학교경영의 계획성을 강조하며, 모든 경영활동은 체계적으로 계획되고, 실천되고, 평가된다.

3) 국가차원에서는, 지역간, 학교간에 존재하는 教育的 質的 差異를 감소시키며, 교육투자

효율성이 증대되며;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信任度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 등이다.

이 事業은 韓國教育開發院의 설립동기가 된 사업이며, 출발당시부터 종래의 일반연구사업과는 크게 다른 特殊性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 事業은 그 자체가 國家的인 차원의 教育革新事業이라는 점이다. 이 사업은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을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汎國家的인 사업이기 때문이다.

둘째, 이 事業은 單純한 研究 目的만을 위하여 수행한다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教育을 根源的으로 개혁하려는 實踐的인 노력이며, 教育的部分的인 변화를 目標로 한 것이 아니라 綜合的이며 體制的인 변화를 目標로 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셋째, 이 연구 사업은 그 결과를 점진적으로 一般化하여 전국에 보급한다는 궁극적 目標를 가지고 있는 점이 하나의 특수성이다.

II. 事業의 對象 및 期間

韓國 初·中學校 教育發展事業은 體制接近의 過程에 따라 수행되었다.

즉, 1) 體制的 分析 2) 體制的 設計 3) 體制的 示範的 施行 4) 體制的 效率性 判斷 5) 體制的 普及 등 다섯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다.

이 事業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창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착수되었으나 體制分析은 그 前인 1970

* 本稿는 본원이 10년간 수행해 온 “한국 초·중학교 교육발전 사업”이 한국 교육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분석한 연구보고서를 요약한 것이다(연구보고 제 128집 참조).

년부터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1972년 9월부터는 體制의 設計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73년 5월부터 1975년 8월사이에는 4차례에 걸친 소규모 시범이 실시되었고, 1975년 9월부터 198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친 종합시범이 실시되었으며 매 시범마다 효율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다. 1978년도의 문교부 평가 연구를 계기로 전국화에 대한 확약을 정부로부터 받아 1980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기 전까지인 1983년 2월까지 3년간은 체제의 보급이 이루어진다. 처음 계획했던대로 전국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사업이 부분적으로 투입된 학교까지 계산하면 전국. 국민학교(6,450개교)의, 약 40%인 2,560개 학교가 이 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 事業의 對象은 示範學校, 協力學校, 一般學校의 3집단으로 구분된다. 示範學校는 새 教育體制의 研究를 위한 實驗學校의 성격을 가지는 학교이며, 소규모시범에서는 1~2개 학교씩 참가했고 종합시범에서는 16~18개 학교씩 참가하였다.

協力學校는 새 教育體制가 全國化될 때를 위한 基盤造成의 의미를 갖는다. 協力學校는 제 1차 종합시범 때부터 운영되었으며 市·郡단위로 1校씩 선정·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 1차 종합시범부터 제 3차 종합시범까지는 120~160개교씩 운영되었고, 제 4차 종합시범 이후부터는 230~260개교씩 운영되었다.

一般學校는 1978년부터 보급되었으며 78년에는 777개교였으나, 해가 거듭됨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서 1980년에는 2,308개교에 달했다.

새 教育體制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매년 시범 및 협력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해왔으며, 참가인원은 1975년부터 1980년 사이에 6년간 약 5만명에 달했다. 이 숫자는 전국 국민학교 교사의 약 40%에 해당되는 숫자였다.

Ⅲ. 事業의 內容

初·中學校 教育發展事業은 지난 70여년 동안이나 우리에게 익숙했던 授業方式을 오늘의 時代와 내일의 韓國에 좀 더 알맞도록 바꾸어 놓

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하나의 主事業으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그 主事業을 보조하고 뒷받침하는 여러가지 補助事業과 支援事業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업이다.

이 사업의 내용은 하나의 主事業인 ① 새로운 授業體制의 研究, 開發 및 定着과 세 가지의 補助事業인 ② 授業資料의 開發 ③ 學校經營體制의 開發 ④ 授業放送의 開發 ⑤ 支援事業인 教師訓練의 다섯 가지로 구성되었다.

1. 새 授業體制의 研究·開發 및 現場定着

개발원의 授業體制의 골격을 이루는 것은 授業過程 一般模型으로서; 이것은 새 授業體制下에서의 모든 授業活動이 따라야 할 절차와 원칙을 제시한 일종의 授業節次模型이다. 이 모형은 ① 現在와 같이 한 學級의 학생수가 70~80명을 헤아리는 現實狀況 속에서 教師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능한한 個人差를 고려한 授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② 學生들의 학습진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적절한 보완책을 실시함으로써 학습결론의 누적현상을 막고 학습성취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에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하여 이 模型에서는 모든 學習課題의 授業을 전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5단계를 가치도록 하고 있다.



〈그림-1〉 수업과정 일반모형

〈계획단계〉는 어떤 학습과제의 지도를 위해 수업을 계획하는 단계이고,

〈진단단계〉는 學生들이 어떤 학습과제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교정조치를 취하여 주는 단계이며,

〈지도단계〉는 수업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교수-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발전단계〉는 지도단계에서 학습한 學生들의 학습성취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심화 또

는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단계이며, <평가단계>는 어떤 학습과제의 수업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단계이다.

2. 教授—學習資料의 研究·開發 및 活用

教授—學習資料란 교사와 학생간에 교수-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제반 사태를 예견하여 그에 대처할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수-학습운동을 도우려는 것으로서, 教育開發院 새 教育體制의 특성을 규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 종류는 크게 교사용 수업지침서 학생용 배움책 및 각종 평가자료가 있다. 교사용 수업지침서는 단위 수업시간의 內容, 活動, 學習指導法 등을 안내하는 자료이고, 배움책은 프로그램教材, 연습문제, 形成評價 문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學校 經營體制의 研究·開發 및 現場定着

각 교수-학습자료에 담아야 할 수업방법, 또는 수업전략의 구체적인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教科授業模型을 개발하여 자료개발의 지침으로 삼았다.

學校 經營體制는 새 授業體制가 學校現場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支援體制일 뿐만 아니라, 학교경영의 效率性과 生産性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교체제를 구성하는 모든 下位 要素들을 計劃, 實踐, 評價의 순환적 흐름 속에 유기적으로 통합한 體制라고 할 수 있다.

學校 經營體制를 구성하고 있는 要素는, 組織의 測面에서 學年經營, 學級群經營, 學級經營의 相互協力 學習分團 등을 포함하고, 教育課程 運營의 측면에서는 教材의 分擔研究, 藝體能科 教科專擔教授, 그리고 이의 원활한 運營을 돕기 위한 教師 協議會 등을 포함한다.

4. 授業放送의 研究·開發 및 活用

教授텔레비전 (Instructional Television, ITV) 및 教授라디오 (Instructional Radio, IR) 프로그램은 개발원 授業資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指導段階에서 활용된다.

5. 教師訓練 프로그램의 研究·開發 및 實踐

授業體制 및 學校 經營體制의 定着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적절한 敎員訓練이 필수적이다. 연수교재로 개발된 것은 학교 교육체제, 교과지도법 I, II 및 학교경영핸드북 등이 있다. 연수에서 다루어진 內容은 일반적으로 ① 韓國教育의 문제점과 革新의 必要性, ② 새 教育體制 개발의 이론적 배경 ③ 수업체제 및 교수-학습자료의 활용, ④ 학교 경영체제, ⑤ 각 교과 수업운영의 실제 등이었다.

IV. 事業의 成果

1. 學校 教育測面에서의 成果

가. 學業成就度 向上

다섯 차례에 걸친 종합시험 평가결과 새 교육체제 적용학교 학생들은 비적용 학교 학생보다 학력에 있어서 평균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여 새 교육체제가 학력향상에 크게 공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집단의 평균점수의 향상과 더불어, 80점 이상 받은 학습완성아의 비율에 있어서도 새 교육체제 적용학교가 비적용학교의 2~3 배에 달했다.

새 教育體制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학생들의 高次的 精神過程을 伸張시키는 것이다. 이의 증명을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하였다. 첫번째는 학력검사 문항을 知識 水準과 高次的 精神過程으로 分類하여, 적용학교와 비적용학교의 점수를 비교한 것이었는데, 그 결과 적용학교가 그 두 영역 모두에서 훨씬 우수한 점수를 보였으며, 그것도 적용기간이 긴 집단에서 그차가 더 컸음이 밝혀졌다. 두 번째 방법은 기초학습기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용학교와 비적용학교간에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을 택한 근거는 이 검사가 여러 학년이 같은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하는 중복검사인 점을 이용하여 상급학년의 문제를 푸는 정도를 문제 해결력이 습득된 정도로 규정한 때문이었다. 그 결과 적용학교 학생이 비적용학교 학생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보였다. 세 번째 방법은 중학교 성적을 조사하는 것이었다. 새 교육체제를 4년간 적용 받고 중학교에 진학한 중학생과 일반학교를 졸업한 중학생의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적용학교 출신 학생이 훨씬 우수한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새 敎育體制 적용이 고차적 정신과정 신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의미한다.

나. 學力的 地域·個人·學級 및 科目間的 差異 減少

○地域差의 減少

새 敎育體制의 開發에 着手했던 1974년에 韓國敎育開發院이 전국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학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도시지역의 학력은 평균 66점, 농촌지역은 55점으로 도시·농촌간에 11점 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이런 현상은 과거의 다른 연구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도시와 농촌간에는 10점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겠다. 새 교육체제 종합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농촌지역의 시범학교는 도시지역의 비시범학교보다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보여, 새 교육체제가 학력의 지역 차감소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個人差의 減少

새 敎育體制에서는 個別學習을 강조하여 自律學習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새 교육체제의 특징은 학력의 개인차를 줄이는데 공헌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개인차가 줄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학력검사 결과의 적용과 비적용 집단간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적용집단의 개인차가 비적용집단보다 의의 있게 감소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학급 및 과목간의 차 감소

시범학교 교사에게 새 敎育體制가 학급 및 교과간의 학력차를 줄였는가에 관한 의견조사한 결과 대부분(85%)의 교사들은 새 교육체제가 敎科目間, 主知敎科와 藝體能 敎科目間, 藝體能 敎科目間 및 學級間的 學力差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를 앞의 學力 向上 效果와 관련지어 볼 때 새 敎育體制가 敎科 및 學級集團間的 學力水準을 上向的으로 平準化 시키는 데도 효과적

임을 알 수 있다.

다. 情意的 特性的 變化

○自律學習態度 增加

새 敎育體制는 학생의 자율적인 학습태도의 육성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하여 새 敎育體制에서는 자율학습을 돕기 위한 「배움책」을 活用하고 있으며, 학습의 과정에서도 탐구학습과 실험·실습을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학습 등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새 교육체제를 적용한 학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율적인 학습태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學生들의 發表水準 向上

새 敎育體制의 개발목표의 하나는 학생들이 문제해결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과 같은 고차적 정신과정을 강조하는 많은 학습결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目標를 달성하고자 체제의 개발진과 현장교사들은 부단히 노력해 왔다. 수업관찰을 통한 문답활동 분석 결과 적용학교 학생들의 발표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學業에 대한 肯定的 自我概念 形成

새 敎育體制에서 情意的인 特性的의 育成에 관한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 않으나 학업성취도의 향상은 학업에 관한 자아개념을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데 공헌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 4차 및 제 5차 종합시험보고서에 의하면 새 교육체제 적용 후에 학생들의 학업에 관한 자신감이 증대되고 있음을 교사의 의견조사 결과로 밝히고 있다.

○學習興味の 增大

시범학교 교사에 대한 질문지 조사 결과 및 시범학교 자체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새 교육체제 적용으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가 커졌음을 알 수 있다.

라. 學校經營의 變化

○學校經營의 合理化

새 敎育體制에서는 학교경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학기초에 교육목표 내지 경영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에 따라 일관성있게 실천하며, 그 목표의 도달정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학교경영과정에 재투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사의견조사에 의하면 새 교육체제 적용학교는 학교경영의 형태가 목표부재의 소극적 경영에서 목표에 의한 적극적 경영의 형태로 전환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教育課程 運營의 內實化

새 교육체제에 의한 각 교과와 수업지침서에 제시되어 있는 지도내용이나 방법은 현행 교육과정의 기본정신과 교과와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수업지침서대로 수업을 전개한다면 교육과정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또한 학급군 협의회 또는 동학년 협의회를 통하여, 사전에 지도를 조절하고, 교재 연구의 결과를 발표·토의함으로써 수업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게 해 준다.

시범학교 교사들의 의견에 의하면 거의 모든 교사(100%)들이 “새 교육체제의 적용이 보다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教師들의 經營參與機會 增大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교육활동, 계획·실천·평가 과정에서 경영참여와 집단사고의 기회가 빈번하게 요청된다. 학교경영체제에서는 이러한 교사들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경영활동에의 자발적인 협동 속에 교사들의 경영참여를 강조하기 위하여 학년 중심의 경영을 제도화하고 동학년 협의회를 갖도록 하였다. 시범학교 교사에 대한 의견조사와 시범학교 자체보고서에 의하면, 학교경영체제 적용이 교사의 경영참여 기회 및 인간관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教師의 業務 輕減

교사들은 직무부담이 경감되었다고 의견을 말하고 있으며 직무부담의 경감요인으로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수업지침서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참고자료를 동원하지 않는데서 오는 시간 절약, 둘째 예체능 전담제에 의한 수업준비 시간의 경감, 셋째 평가문제의 출제 및 필경에 따르는 시간 절약, 넷째 학습부진아를 협동적으로 지도하는데 따르는 시간 절약등이다. 또한 이런 시간상의 감소 뿐만 아니라 수업기술

의 평준화로 학습간의 성적 차가 작아 경쟁심리가 해소됨으로써 심리적 부담도 감소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라. 教師資質 向上

새 教育體制의 要素들은 최신의 발전된 교육이론을 반영하여 구안되었다. 그리고 새 교육체제 운영과정에서 효율적인 적용을 위해 사전 집중연수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연수활동을 통해 교사들의 새 교육체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 하였다. 現場에서는 자체연수 및 각종 교사협의회를 통해 새 교육체제 적용기술을 연마했다. 그 결과 시범학교 교사의 수업지도 기술의 향상 및 교사간 지도기술의 평준화가 이루어졌음이 밝혀졌다.

2. 教育全般에 미친 영향

가. 現場教育 改善에 貢獻

새 教育體制의 波及 效果 중 첫째로 지적해야 할 것은 教育 일선에 대하여 教育改善이 가능하다는 信念을 확인시켜 준 점이다. 過密學級 또는 複式學級, 教育시설과 학습자료가 부족한 것 등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教育의 개선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事實」을 확인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가능성에의 신념을 심어주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信念이 바탕이 되어 教育개선을 위한 노력이 현장에서 스스로 광범하게 나타난 것은 협력학교 운영이 시·도나 教育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는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선 장학진의 지도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적지 않은 공헌을 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나. 文教政策에 미친 영향

새 教育體制 研究가 직접·간접으로 문교행정 내지 문교정책에 미친 영향은 크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영향은 새 教育體制 研究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바탕과 귀중한 연구경험이 1982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教育과정의 개발과 교과용 도서의 개발과정에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예체능 교과와 전담제 실시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다. 學問發展에 공헌

새 教育體制 研究가 남긴 또 하나의 業績은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헌이다.

첫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에 알맞은 교육이론을 체계화하여 정립한 일이다. 교육학 이론을 체계화하여 수업체제와 경영체제를 개발한 점이 그것이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교과별 수업과정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교과교육 이론을 정립한 것이다.

라. 研究能力的 측적

새 교육체제 연구의 부수적 성과의 하나는 많은 연구 인력을 배출하고 폭넓은 연구능력의 축적에 기여한 점이다. 3년여의 체제개발 과정과 5년여의 체제시범과정을 거치는 동안 이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연구경험을 쌓은 사람들은 300명에 이르며 海外 연수를 통하여 실력을 쌓은 사람은 32명이다. 그 중 27명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그 과정에 있다.

마. 教育연구의 국제적 지위향상

새 教育體制의 研究는 우리나라의 教育研究·能力을 世界의 여러 나라에 이해시킴으로써 국제적 지위의 향상에도 공헌한바 지대하였다.

이를 대변해 주는 예로서 ① 教育革新 아시아 지역센터 (Asian Center of Educational Innovation for Development: ACEID)에서는 1974년 10월에 本院을 협조기관으로 지정하였고, ② 國際學力評價協會 (IEA)에서는 1979년 9월에 本院을 회원기관으로 정하였으며 ③ Encyclopedia

Britanica Educational Corporation에서는 1980년 9월에 本院의 “교육혁신에 대한 혁혁한 공헌”을 인정하여 「世界 10大 教育研究機關」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과거 8개년간 본원 주최 국제회의도 8회나 되었고, 세계의 석학 25명이 내원하여 초청강연을 하였고, 본원의 연구사업에 대한 시찰을 목적으로 내원한 학자도 27개국 400여명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남태평양 지역의 8개국에서 63명이 내원하여 1주 정도의 훈련을 받았으며 Masoner를 단장으로 한 外國評價團의 연구대상이 된 것도 좋은 예이다.

바. 教育放送 實現의 기반구축

새 教育體制 연구의 일환으로 얻어진 귀중한 수확의 하나는, 교육방송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教育放送의 구상은 당초, 교수-학습자로서의 하나로서 교수텔레비전 및 교수라디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1974년부터 라디오 학교방송은 하루 평균 4시간 30분씩 방송되었으나 TV 방송은 기술상의 난점으로 방영되지 못하여 왔다. 그러나 본원의 연구진·제작진 및 기술진들은, 본격적인 교육 TV 방송의 개국에 대비한 자체 역량을 축적해 왔다. 이렇듯 꾸준한 노력은 1980년 9월 1일부터 「고교 교육방송」을 개시할 수 있게 했다. 비록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새 教育體制 연구는 교육방송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닦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남긴 것으로 판단된다.

독자 안내

학교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방향 탐색

(한국 교육 개발원 총서 II)

이 책은 한국 교육 개발원 총서 II 권으로 1980년 10월 본원에서 주관하여 자체인사 연인원 400여명과 발표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학교 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방향 탐색에 관한 세미나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제 1부 한국 교육의 발전방향

제 2부 학제발전의 방향

제 3부 교육과정 발전의 방향

제 4부 교과교육의 문제와 개선방향

제 5부 요약과 총평으로 나누어 수록하였다.

* 이 책은 본원 대행출판사인 교육과학사(전화 28-0855)에서 발행하고 있다.

主要國家의 教育行政制度 發展 動向*

曹 文 鉉

(本院 研究員)

緒

80년대의 우리 사회는 國內·外的으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룩될 것으로 전망된다. 民主政治의 定着, 經濟의 安定成長, 社會福祉의 向上, 社會的 統合性의 構築 등 사회 여러 분야에 걸쳐 새로운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教育 外的인 상황 뿐만 아니라 教育內의으로 就學前 및 特殊教育의 強化, 平生教育體制의 確立, 義務教育의 年限延長, 教育與件 改善 및 隔差 解消 등 중대한 변화들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응하고 현안의 교육문제들을 해결하며 교육체계의 능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행정 체제 구축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새로운 교육행정체제 구축에 앞서 外國의 教育行政制度를 고찰하고 이를 비교·분석함으로써 教育行政制度 發展의 世界的 動向을 탐색하고, 나아가 우리 나라 교육 행정 제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研究의 對象이 된 국가는 12 개국이 선정되었으며, 이것은 政治的·文化的 類似性을 기준으로 歐洲圈(영국, 프랑스, 서독, 스웨덴), 美國圈(미국, 일본, 자유중국, 필리핀), 共產圈(소련, 중공, 동독, 북한)으로 나뉘어 記述되었다. 비교대상국 선정에는 상이한 배경을 갖고 있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 共產國 등이 고르게 배

분되도록 하였고, 다양한 유형의 行政組織이 빠짐없이 고찰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研究의 軸점을 둔 比較의 觀點은 中央 및 地方 教育行政 組織의 構成, 권한의 배분정도, 기능 및 역할의 측면이며 그 밖에 教育行政 要員의 구성 및 자격요건, 教育財政의 규모 및 확보 방안, 활용 등이다.

歐洲圈의 教育行政制度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세계의 經濟的 文化的 先進國으로서 타국에 비해 여유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 傳統的으로 유럽의 국가들은 複線型 學制를 고수하여 오면서, 엘리트 교육과 대중교육을 철저히 구분하였다. 이들은 教育의 目的을 國家的, 社會的인 것 보다는 個性의 尊重, 自我의 實現, 全人의 人間形成, 意思傳達 技能의 伸張 등 지극히 個人的 次元의 教育목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한 가지 특징이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체제는 典型的인 中央集權型으로 대표되고 있다. 이 제도는 나폴레옹 시대로부터 꾸준히 유지 발전되어오고 있는 바, 이러한 제도형성의 요인은 ① 보수적·고전적 전통을 중시하는 프랑스 특유의 문화적 배경 ② 통일성을 좋아하는 국민적 기질 ③ 교육기획 군등의 추진을 시도하기 위한 강력한 권력집중의 필요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본 小論은 1980년도에 教育政策研究部에서 遂行한 “主要國家의 教育行政制度” (연구보고 제123집)를 要約한 것임.

教育行政 組織은 執行機關과 監察機關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前者는 法務을 집행하는 기관이고 後者는 집행기관이 행정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이다. 中央組織의 중요 집행부서로서의 教育部(Ministre de l'Education Nationale)는 9個局¹⁾과 3個室²⁾로 구성되어 자기 그들의 권한에 속한 정책의 완수로부터 학교 시설의 설치, 교육과정, 교육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을 맡고 있다. 특히 교육행정에는 장학관 제도가 철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教育部 獎學室에는 「교육시찰 총괄장학관」과 「관리시찰 총괄장학관」을 두어 자 분야에 걸쳐 전국적 규모로 학사관계 및 관리관계의 시찰을 담당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專門家, 敎員, 學父母들로 구성되어 많은 審議會 및 委員會들이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있다는 점이며 주요한 기관으로는 「국민교육국가심의회」 「보통교육 및 기술교육 국가심의회」 「성인교육 및 청소년 체육 국가심의회」 등을 들 수 있다. 高等教育部³⁾가 독립된 部署로 설치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地方教育行政은 中央에서 계획된 정책을 해석·실천하는 기능을 하며 地方教育 行政區의 책임자인 大學區 總長(Recteur d'academie)은 教育部 長官과 高等教育部 長官의 대행자 역할을 한다. 大學區나 縣 수준의 地方教育 行政 組織에도 각종 심의·자문기관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 내의 교육에 대해 助言과 審議를 하고 있다.

프랑스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要員은 크게 教育系 출신과 一般行政 출신의 두 유형이 있다. 일반 원칙으로는 管理的·經驗的 임무를 맡는 직원은 國立行政大學院에서 철저히 훈련되고 教育部와 高等教育部 및 大學區에서 근무하는 행정관들은 거의 교육계 출신이며 주요 국장들은 大學區 總長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中央集權的인 프랑스의 교육제도 하에서는 中央政府가 敎職員 人件費의 전부와 학교 시설비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特別稅는 없기 때문에 公教育費는 국가의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비용만을 대상으로 하면 국가는 76.4%, 지방자치단체가 15.4% 기업 및 학부모는 9.2%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⁴⁾

스웨덴의 교육행정제도는 中央集權的인 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프랑스의 그것과는 조금 다른 절충적인 유형이다. 스웨덴의 中央政府에는 內閣의 一省으로 文敎省이 있으나 이것은 프랑스의 教育部처럼 실제적인 교육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基本的인 教育政策의 立案, 教育改革의 原則 設定, 教育에 관한 法律 草案 作成 등의 일을 주도하고, 실제적인 中央教育 行政과 구체적인 教育計劃은 「中央教育廳」과 「大學廳」에 위임하고 있다.

文敎省의 組織은 長官 밑에 政務次官, 事務次官, 수석법무관을 두어 직접 장관을 보좌하며 3개의 비서실⁵⁾을 설치하고 있다. 教育 一般에 관한 事務는 다섯의 행정당국⁶⁾에 의해 처리되고 있다.

文敎省보다 훨씬 큰 규모인 中央教育廳은 자급 학교를 국가수준에서 統合的으로 行政管理하고 각 縣 地域에 교육수준을 조정하며 학교설치 및 교육과정에 관한 모든 구체적인 계획을 하게 되어 있다. 中央教育廳은 최고 행정책임자인 청장과 차장 밑에 5개의 局, 즉 ① 學校教育局 ② 成人教育局 ③ 敎師養成 및 教育開發局 ④ 計劃局 ⑤ 行政管理局을 두어 행정사무를 분담하고 있다.

大學教育廳은 大學教育에 관한 계획과 조정을 맡고 있으며 5개의 局⁷⁾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

- 1) 계획·조정총국, 초등교육국, 후기중등교육국, 후기 중등교원사무국, 시설·건축국, 재무국, 행정지원 사무국, 총무국.
- 2) 공보실, 국제업무실, 정보·통계연구실.
- 3) 고등교육부의 하위 부서로는 고등교육국, 국제대학 관계 위원단, 연구조정위원회, 재정사무국, 도서관 업무실, 교원 및 기술인사 업무실, 도서관 담당장학실 등이 있다.
- 4) 차병권, "유럽의 교육재정 현황", 韓國의 教育課題와 財政, (한국교육개발원, 1980, p. 161)
- 5) 계획예산담당 비서실, 법무담당 비서실, 국제담당 비서실.
- 6) 고등교육 및 학술연구국, 초등 및 중등교육국, 문화국, 교회국, 성인교육국.
- 7) 계획국, 교육국, 교육연구 및 발전국, 행정 및 조직국, 관리국.

히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學問分野別로 5개 學部計劃委員會⁸⁾를 두어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육의 실태, 필요 등을 조사하고 교육의 내용 및 조직에 있어 지역사회의 요구를 고려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전체 教育行政 要員의 2/3 정도가 專門職 要員이고 나머지 1/3이 一般職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教育행정 기관의 최고 책임자나 중앙기구의 고위직 인사들은 정당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財政적으로 스웨덴은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全體 국가 예산의 약 27% 정도가 교육사업을 위해 쓰이며 一人當 教育費도 9년제 학교의 경우 \$ 720, 직업제 학교는 \$ 1050, 그리고 특수아에게는 \$ 2880이 지출되고 있다.⁹⁾ 財源은 주로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당국에서 조달한다.

英國의 教育行政組織은 지역의 특성을 최대한으로 살리는 地方分權的 特徵을 지니면서도 이들을 조정하는 기능을 중앙에 부여함으로써 個別性과 統一性을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형이라고 하겠다. 中央行政組織인 教育科學省은 교육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교육문제에 대한 運營 또는 調整者 역할에 강조를 두고 있다. 즉 일상적인 교육 운영은 地方教育當局에 의해 관장되고 教育科學省은 각 지역의 학교에 대한 支援機能과 教育財政의 全國的 分配, 시설비용 책정에 관한 감독, 국가의 기본적 교육수준 결정 등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地方教育當局은 영국의 公教育行政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地域內의 教育財源 調達에서 教育方法의 實踐에까지 자율적인 운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英國에 있어서 中央教育行政 組織과 地方教育行政組織은 協力的 關係를 유지하며 학교교육의 최저 질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여왕의 임명을 받은 勅任視學官을 파견하여 각급학교와 대학의 효율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英國에는 中央이나 地方教育當局의 임무와 관

련하여 수 많은 자문기관 또는 연구기관들이 산재해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中央教育諮問委員會, 學校委員會, 科學教育委員會, 社會科學研究委員會, 國家教育促進協會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주로 교육과정 개발, 평가, 정책에 관한 자문, 자료·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西獨은 국가권력의 입법과 행정이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않는 한 各州의 제한에 속하는 연방 조직의 국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 教育行政組織 역시 教育自治制로 운영되고 있는 바, 中央當局인 文教部는 全體 教育制度 計劃의 기능을 하고, 관리와 감독의 실질적인 수행은 中間과 下級段階의 학교 감독 단체가 맡고 있다. 中央教育行政 機構의 구성은 ① 행정·법률·재정국 ② 계획국 ③ 학교교육국 ④ 교원양성국 ⑤ 고등교육국 ⑥ 조형미술·성인교육국 등 6개국으로 되어 있다. 地方教育行政 組織은 縣과 郡教育行政當局으로 되어 있고 각각 지역 내 학교의 교원 및 교장에 대한 전문적·행정적 감독 내지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기관의 활동을 감독하고 있다.

西獨에 있어서도 教育行政 擔當者는 일부는 학교 영역에서, 다른 일부는 일반 행정분야, 특히 법률적 훈련을 이수한 인사들로 보충된다. 그러나 학교교장은 대부분 교육자 출신으로 충원되는 것이 보통이다.

西獨에 있어서 公教育制度는 거의 대부분 세금에 의하여 운영된다. 各邦과 自治機構 사이의 기능 배분에 따라 경비는 各邦과 自治體, 혹은 地方當局에 의해 분담되지만 經費의 모자라는 부분은 國家가 보충해 주고 있다.

美國圈의 教育行政制度

美國圈의 국가들은 單線型的 學制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교육기회의 균등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日本, 필리핀, 자유중국을 비롯,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2차대전 이후 美國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오고 있으며, 크

8) 인문학 및 신학, 법학 및 사회과학, 의학·치학·약학, 수학 및 자연과학, 공학.

9) 李圭煥, "스웨덴의 교육행정제도", 서 정화 외, 주요국가의 교육행정제도(한국교육개발원, 1980, p. 63)

게 보아 美國文化 및 教育의 범주를 벗어 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미국식 교육행정체제를 받아들여 자기 달리 소화하였고 결과적으로는 저마다 다른 형태의 교육행정 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美國 教育行政制度의 특징은 多樣性, 非專門 家의 統治 그리고 地方分權主義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典型的인 教育自治制로 대표되고 있다. 美國 教育行政의 초점도 學校教育 區에 있는데, 이것은 미국의 행정조직 발달 자체가 조그만 마을로부터 도시 단위에까지 거슬러 올라오는 民意의 上向的 集結方式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헌법은 中央政府의 教育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教育은 원칙적으로 州政府和 國民의 책임이지만 教育에 대한 中央政府의 支援은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연방정부의 교육담당 부서는 保健教育福祉部의 一室로 유지되다가 1979년 長官級의 教育部가 신설되었지만 그 기능은 教育情報의 出版, 教育研究 推進, 教育問題에 관한 指導 相談, 意見交換 정도에 그치고 있다.

州 단위에는 州教育委員會(State Board of Education)를 두고 있는데, 그 構成은 州에 따라 다르며 主要機能으로는 ① 州教育監 및 州教育局의 職員 任命 ② 州內의 公立學校制度에 관한 정책 채택 ③ 州內의 학교조직, 행정, 운영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주지사와 의회에 적절한 건의를 내는 것 ④ 公教育 運營을 위한 예산 채택과 할당 ⑤ 州의 교육적 필요에 관하여 대중과 정보교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편, 學校에 대한 운영상의 책임은 學校區(school district)에 위탁되어져 있다. 지방교육행정을 州內 地方住民의 教育에 관한 自律的 意思의 표현으로 창조된 教育自治團體에 의해 운영되며, 일반행정의 지방자치단체(county, city, township, town)와 동일한 단위에서 교육 자치가 실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교육목적만으로 설치된 행정단위도 있다.

미국에 있어서는 教育行政要員의 자격 기준도 州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대체로 教育감은 碩士 이상 博士學位 소지자로 教育적 경험과 지도성이 있는 자를 임명하고 있다.

美國에 있어서 教育費의 財源은 정부 부담과 학생부담 및 기부금, 보조금 등으로 구성된다. 최근 연방교육국의 재정 지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① 초·중등 교육기관을 위한 土地(학교 부지) 無償贈與 ② 高等教育 機關에 대한 土地 贈與 ③ 特殊目的의 職業系統 公立學校의 진흥을 위한 條件附 財政支援 등이다.

日本은 명치유신으로 근대국가로 건설함과 더불어 公教育制度를 확립하였다. 당시의 교육제도는 內容은 美國을, 行政組織은 프랑스를 모방한 형태였던 것이다. 2차대전 이후 미국 교육사절단의 보고에 의거, 中央集權에서 地方分權으로의 체제상의 변경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식 교육행정체제는 日本의 풍토에서는 제대로 뿌리지 못하고 教育委員의 公選問題, 教育사무 이양문제, 教育장 자격문제 등 각종 문제를 야기시켰다. 결국 1956년 미국식 教育自治制가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地方教育行政制度를 再改定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日本의 중앙교육행정조직인 文部省은 국가행정조직법에 따라 설치되었고 外局으로 文化廳이 설립되어 있다. 文部省은 政務, 事務次官과 大臣官戶 그리고 5局¹⁰⁾이 있고 管理局 산하에 教育施設部가 설치되어 있다. 또 本省에 中央教育審議會를 비롯하여 13개, 文化廳에 문화재 보호심의회를 비롯한 4개의 각종 심의회가 설치되어 行政機關의 자문에 응해 政策, 基本的 施策의 調査審議, 의사결정에 참여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조직으로는 都·道·府·縣教育委員會와 市·町·村교육위원회가 있다. 교육위원회는 합의체의 집행기관으로서 小·中·高等學校 設立, 教育資格證 發給, 교과서 채택, 학급편제 등 지역내 교육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맡고 있다.

10) 초등·중등교육국, 대학학술국, 사회교육국, 체육국, 판리국.

自由中國은 국토분단의 나라로서 國家的 次元의 教育目的(예: 애국심)을 강조하여 강력한 中央集權 體制를 採擇하고 있다.

自由中國의 中央教育行政 組織은 행정원 산하의 내각으로 教育部를 갖고 있으며 6개의 부서¹¹⁾로 나뉘어 전국의 학술 및 교육행정관리, 전반적 방침 및 기준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地方教育行政 機構로는 省教育廳과 縣教育局이 있고 學校教育의 감독·설립·인가 및 전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自由中國에서는 教育部내의 各室·局과 臺北市教育局의 局長도 專門職으로서 學位를 가지고 있거나 大學에 在任하고 있고 副局長은 일선 행정관리 출신이 대부분이어서 專門職과 一般職이 하나의 팀으로서 運用되도록 하고 있다.

필리핀은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나라로 아시아적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국가이다. 형태상으로는 教育의 地方自治를 표방하고 있으나 마르크스의 계엄령 선포 후, 自治란 명목에 지나지 않고 있다.

중앙조직은 教育文化部로 그 구성은 教育擔當部署(초등, 중등, 고등)와 管理擔當部署(기획국 행정관리국, 재정관리국, 정보 및 출판국)로 되어 있다. 지방조직은 행정수준별로 地方教育廳과 州 및 市 教育委員會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리부서에서 예산 및 일반행정, 장학부서에서는 관할 지역내의 교육 전반을 통괄하고 있다.

필리핀은 아시아 지역에서 教育行政 要員의 專門化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되어 있는 국가중 하나이다. 교육행정업무는 專門職과 管理職 要員에 의해 수행된다. 專門職은 순수한 지도·감독기능을 담당하는데, 구체적으로는 교육문화부 본부의 指導官, 獎學官, 초·중·고등교육국 분야의 中央指導官, 지방교육청의 장학관들이 이에 포함된다. 관리직 요원은 순수한 관리기능만을 담당하게 되며 교육문화부 본부의 行政管理者가 그 주체가 된다. 필리핀의 경우 사실상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分野에 까지 교육 전문직

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共產圈의 教育行政制度

歐洲圈이나 美國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理念 體制를 가지고 있는 共產圈의 國家들은 完全 單線型 學校制度를 통해 教育의 統一性, 繼續性을 實現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完全한 教育的 平等을 추구하면서 조기유아 교육을 강조하여 실시하고 있는 경향이다. 공산권 국가들은 理念教育을 자유진영의 국가에 비해 크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한가지 특징이다. 教育計劃이나 實際的인 일은 각 행정수준별 조직을 가지고 있는 共產黨에서 결정하므로 교육행정 체제의 형태가 어떤 모습이든 실질적으로는 統一性 추구를 위한 완전한 中央集權의 教育行政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련의 교육행정은 연방의 각 공화국을 단위로 하고 있지만 蘇聯邦教育部(SSSR)가 이를 조정하므로써 교육의 統一性을 確保하고 있다. 또한 各水準의 교육행정에 병행해서 공산당이 존재하여 理念的 차원에서 指導·監督하여 실제교육개혁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립되고 있다. 중앙조직인 教育部는 5명의 次官과 6個局¹²⁾, 3個課¹³⁾로 구성되어 각 공화국의 공교육제도 조정, 교육계획 및 개혁의 원칙확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공교육제도를 관리운영하는 권한은 없으며 실제의 교육계획은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수립하고 있다.

각 공화국의 교육부는 관할지역내의 모든 형태의 학교를 운영·관리하는 책임을 지고 있고 教育課程, 教育方法, 試驗, 施設 등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진다. 특히 黨이 정하는 사상적 지도에 협조하고 기본방침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일도 담당한다. 地方教育當局은 州 또는 地方 國民教育部와 市 또는 地區 國民教育部로 구성되고 여기서 地方 수준의 교육계획, 黨의 이념 및 사상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11) 專門司, 社會司, 參事室, 總務處, 視學處, 普通司.

12) 학교총국, 장학총국, 교육시설국, 취학전교육국, 계획·재무국, 국제연락국

13) 교육과학과, 학교건축과, 요원과.

東獨은 1949년 獨逸 民主共和國을 선포한 이래 사회주의 통일당 (SED)이 學校制度의 民主化와 統一的인 學校 建設에 목표를 두고 中共政府의 省으로서 教育省을 신설하여 中共集權化를 도모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내각의 조직으로는 교육성 외에 고등교육성, 직업훈련처, 공업성 등이 있다. 東獨의 경우 최고대표 기관인 「人民會議」에서 교육에 관한 법적기초를 결정하고 教育省은 일반학교의 관리, 교육과정·교수 내용 선정, 장기교육계획 등을, 高等教育省은 종합대학 및 고등교육기관의 교육계획과 행정을, 직업훈련처는 직업교육, 기술교육계획 및 행정을 맡아 처리하고 있다.

地方에는 國民教育局과 職業教育局을 두고 있는데, 前者는 유치원 및 특수학교 교육의 담당, 교육정책 및 법규의 시행을 맡고 있고 後者는 직업 및 기술교육관장, 기업체 부설 직업학교의 장학, 감독, 직업 학교의 자치단체를 위한 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中共의 경우, 教育은 無產階級을 위한 政治的 奉仕이며, 生産을 위한 노동과의 결합이라고 규정하고 교육행정은 이 방침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共產黨에 의해 영도되어야 한다는 基本方針을 내세우고 있다. 따라서 中共의 교육행정은 강력한 中共集權의 형태를 갖고 있다. 黨中央委員會는 교육행정의 전면적 계획이나 결의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고 교육의 계획, 정책의 수립 또는 전환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黨과는 별도로 國務院에 教育部를 두어 교육계획을 집행하고 임시정책을 관장하는 등의 실제적인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中共에서는 교육 관계 요원을 「專」과 「紅」이라는 명칭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專」은 정통한 지식과 기능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고 「紅」은 확고한 黨 思想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학교수준을 막론하고 「專」 또는 「紅」의 신분을 가지며, 직업교사는 11급의 위계를 두어 教育能力, 諸活動, 政治姿勢에 따라 昇進하도록 되어 있다.

北韓은 主席을 頂點으로 하는 1人 독재체제

를 굳히고 모든 권력과 정책결정권을 집결시키고 있으며 교육에 있어서도 행정집행기관인 政務院 산하의 교육위원회가 각급학교 교육과 출판, 도서, 과학교육, 기술교육을 관리하고 있다. 철저한 理念教育, 조기 교육의 강조, 통일성의 추구 등 共產圈 教育行政의 특징들은 北韓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中央에는 教育委員會를 두고 보통교육부와 고등교육부로 나누어 각급학교 교육을 관리하고 地方에는 地方行政委員會 教育處에서 상부기관에서 결의된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教育行政制度 發展方向에 주는 示唆點

앞서 개관하여 본 각국의 교육행정제도 발전의 動向을 검토하여 볼 때 우리는 한국의 교육행정제도 발전방향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한 국가의 教育行政體制의 基本的인 構造는 그 나라의 전통이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배경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美國이 개척시대로부터 마을 공동체 중심의 社會體制를 형성하여 오늘날 美國 특유의 地方分權主義를 채택하고 있고, 統一성을 중시하는 프랑스 국민의 기질이 中央集權的인 프랑스 교육행정제도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행정 체제의 유형을 독립적으로 놓고 그 효율성을 논하는 것은 실제로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美國의 教育自治制가 日本이나 필리핀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크게 변형되거나 死文化 되어버린 예를 보아도 이러한 立場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행정조직을 “권한 및 역할의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① 프랑스식의 典型的인 中央集權型, ② 전문인을 충분히 활용하는 스웨덴식의 절충적 중앙집권형; ③ 黨이 교육행정조직과 별도로 실력을 행사하는 共產圈式 中央集權型, ④ 미국식의 典型的인 地方分權型, ⑤ 영국식의 절충적 중앙집권형 그리고 ⑥ 아시아 제국에서 볼 수 있는 名目上의 地方分權型 등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각 유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볼 때 스웨덴식 중앙집권

적 결충형은 새로운 교육 행정체제 구안에 큰 시사를 준다고 하겠다. 전형적인 중앙집권이나 지방자치는 우리의 행정풍토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게 하였고, 일반행정이나 지리적 여건,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행정 전문화의 노력 등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안은 깊이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세계, 行政組織의 機能에 있어서 中央行政組織의 機能은 주로 기획 및 조정, 재정 분배에 있고 地方行政組織의 主機能은 교육의 地域的 要求를 수렴하고 지역 내의 교육적 특징을 살려 교육활동을 실천하는 일이다. 우리 나라도 명목상의 教育自治制를 실시하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과도한 中央集權이 문제시 되어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새로운 教育行政體制의 구안에서는 기능상의 조정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 教育行政 體制는 사회변화에 민감하여야 하고, 이에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 各國은 教育이 國家의 責任이라는 전제하에 義務教育 지원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成人教育, 幼兒教育, 特殊教育

을 위한 지원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우리 나라에서도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다섯째, 教育行政을 專門化하려는 노력은 국제적 추세이며 專門家에 의해 教育이 수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각국의 교육행정요원은 教育的 배경을 가진 사람과 一般行政 출신의 사람으로 충원되고 있는 바, 우리 나라도 그 예외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교육행정 업무를 어느 신분의 사람이 담당하느냐 보다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어떤 자질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담당하여야 하느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행정요원의 자질을 높이는 일과 이들을 養成·訓練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教育財政은 각종 교육적 활동이나 教育支援의 關鍵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만큼, 安定된 財源을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서유럽 諸國의 경우와 같이 教育財政 財源을 多元化하고 財政의 規模도 더욱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55페이지에서)

상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를 위하여 本研究에서는 知能과 創意性を 獨立變因으로 하고, 兒童의 行動特性·心理的 特性을 從屬變因으로 하여 二元變量分析을 하였다.

그 결과, 獨立變因으로서 知能의 役割은 이미 앞에서 言及한 結果와 같게 나타났다. 다만, 自我概念과 性格要因의 社會性, 活動性, 支配性 領域에서는 集團間的 差가 $\alpha=0.05$ 수준에서도 의미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創意性은 學生들의 學業成就水準(특히 算數와 自然)에서만 $\alpha=0.01$ 水準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다른 領域에서는 一般的으로 의미 있는 差를 보이고 있지 않다.

知能과 創意性的, 相互作用도 性格의 支配性과

學習習慣의 技術適用을 제외하고는 意味있는 相互作用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本研究에서 調査된 下位의 영역에서는 創意성이 의미있게 作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以上の 研究結果에서 英才集團의 아동들이 行動特性, 自我概念, 性格 등의 側面에서 대체로 肯定的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本研究에서는 英才性を 知能에 국한하여 定義하였지만 英才의 特性과 創意性과는 별개의 要因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心理的·行動的 特性에서 否定的인 側面을 보여주는 英才 아동도 있다는 것을 밝혀둔다.

* 참고문헌은 研究報告 118輯을 참조.

英才의 心理 · 行動의 特性에 관한 研究

趙 夕 姬

(本院 研究員)

I. 緒 論

1. 研究의 背景 및 目的

비상한 능력을 발휘하는 英才에 대해서는 일찌기 B.C. 2200 년부터 중국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英才에 대해 갖는 관심의 측면은 그 時代의 必要나 價値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아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1970 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 이후, 1980 년대의 福祉社會를 바라보게 됨에 따라 英才教育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왔으며 그와 더불어 교육적인 노력도 싹트고 있다. 그러나 아직 英才의 教育프로그램은 물론 英才를 어떻게 定義하고 選定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韓國 行動科學研究所에서는 中·高等學校의 英才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의 認知的·情意的 特性을 調査한 바가 있다(李種昇외, 1980). 그런데, 이 연구는 英才의 定義 및 選定方法에 制限點을 가지고 있어, 이 研究에서 밝혀진 英才의 特性들을 一般化 시키기는 어렵다고 보겠다.

本 研究에서는 國民學生을 대상으로 英才의 心理的, 行動的 特性을 규명하고 이에 따라 英才의 選別方法 및 選別道具를 具案하는 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2. 英才의 概念定義 및 判別方法에 관한 理論的 背景

英才에 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아직까지 定義에 대한 一致된 견해는 찾아 보기가 힘들다. 初期의 연구자들은 知能에 의하여 英

才를 定義하려 했으나, 최근에는 創意力을 비롯한 보다 포괄적인 準據를 포함시켜 定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영재에 관한 여러 定義중 가장 유력한 것은 Renzulli(1978)의 것으로 그는 英才性을 知的 및 非知的의 要因을 포함하여 操作的으로 定義하였다. 그는 英才性을 決定하는 要因으로 一般能力, 創意性, 課題執着力을 들고 있다. 그는 英才性이 나타나는데, 이 세 요인이 相互作用하며, 각 要因이 모두 같은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一般能力을 재기 위하여는 주로 標準化된 能力檢査를 사용하여 왔으나, Wallach(1976)의 學業適性檢査와 成就度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결과 및 Hoyt(1965)의 學業의인 成功과 卒業後의 成就간의 關係에 대한 연구결과 등에서 能力檢査만으로 英才를 判別하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標準化 檢査에서 平均 以上の 결과를 얻은 사람이 英才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 따름이다. 創意的인 특성이 英才性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要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異議가 없으나, 그 檢査방법이 妥當性있고, 客觀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Nicholls(1972)는 創意的인 業績을 分析하는 方法이 創意的 特性을 檢査하는 方法보다 더 適切하다고 주장하였다. Wallach(1976)는 좀 더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創意的 業績에 대한 自己報告式 方法을 提案하였다. 課題執着力은 어떤 한가지 문제 또는 영역에 自身の 精神的 에너지를 쏟는 것을 말한다. 최근의 研究에서도 英才는 보통 사람들보다 課題指向의이고 일에 대한 執着이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Nicholls와 MacCurdy는 이와 같은 立場을 취하

여 지금까지의 研究結果들을 綜合·分析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學業的인 能力은 創意的 業績과 약간의 關係가 있을 따름이고 非知的 要因, 그 중에서도 課題執着力은 고도로 創意的인 사람의 特征이라는 것이다(Nicholls, 1972). 이러한 研究結果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통적인 檢査나 成績에 의해서 측정된 學業能力은 英才의 特性과는 制限된 關係를 맺고 있으며, 非知的 要因인 일에 대한 執着力이 英才性에서 더 중요한 機能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英才性を 初期에는 知能이라는 單一要因으로만 規定하려 했으나, 점차 知的 要因뿐만 아니라, 非知的 要因까지 포함시키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定義에 의하여 英才性を, 가졌다고 생각되는 者를 어떠한 方法에 의하여 判別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英才教育 및 研究에 참여했던 여러 사람들이 關心을 표명해왔다. Martinson (1973)은 英才判別活動이 一聯의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하고, 그 첫번째 단계에서는 可能的 多様な 方法들을 모두 동원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集團 및 個人知能檢査, 創意性 檢査를 실시한 結果와 아동의 作品이나, 兒童에 관한 累加記錄, 아동의 特性 및 行動에 관한 觀察結果, 담임교사의 指名, 父母의 觀察情報, 校長 및 司書教師의 指名, 同僚들의 指名 方法 등을 병행 실시하여 一次選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方法으로 豊富한 情報에 입각하여 一次選別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才能別 專門家와 教育學者, 心理學者 등이 主動이 되어 才能別 能力水準을 測定하기 위한 諸般活動을 전개하여 최종적인 判別活動에 임해야 한다. 이 過程을 통하여 選別된 학생들에게는 각 개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教育的 措置를 취해 주어야 한다. Martinson과 Lessinger (1960)에 의하면, 英才를 위한 教育 프로그램은 英才의 欲求와 그들에게서만 발견될 수 있는 特別한 問題點 등을 고려하여 構成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過程이 필요한 이유는, 英才를 判別하는 궁극적인 目的이 각 英才들의 能力開發과 全人教育을 위하여 그들을 적절한 教育 프로그램에 定置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英才의 選別 및 判別過程에서 正確하고 體系的인 遂行을 위해서 사용하는 方法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즉 一般知能檢査, 標準化 學力檢査, 學業成就度, 觀察 및 指名方法, 아동들의 作品이나 業績을 評價하는 方法, 事例研究 및 傳記作成方法 등이 一般的으로 사용되는 方法이다. 이외에 判別의 正確을 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方法에는 創意性 檢査, 行動特性調查, 社會性測定技法들이 있다. 특히 行動特性尺度와 質問紙가 점차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바, 이는 여러 분야의 觀察結果를 효율적으로 파악해내어 客觀的인 資料로 活用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Renzulli 등 (1972)이 製作한 “學生 行動特性尺度”는 最近에 많이 活用되는 도구로서, 學習·創意性·動機·指導力·意思傳達能力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以上에서 英才의 概念的 定義·選別方法 및 道具 등에 관한 理論的 高찰을 하였다. 英才를 어떻게 定義하고, 어떠한 方法으로 選別 및 判別하는가가 그들의 潛在能力을 개발시키고, 그 能力으로 社會에 공헌할 수 있는 정도를 決定짓는데 重要한 問題라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었다.

3. 研究內容

이 연구에서 對象으로 삼고 있는 英才集團은 知的 能力이 탁월한 國民學校 5학년 아동들로서, 이들의 認知的·情意的 特성과 行動上에 나타나는 特性들을 調査하고 觀察한 후, 그 結果를 分析함으로써, 效果의이고, 正確하며, 妥當性 있는 英才選別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研究內容은 다음과 같다. 知的으로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英才集團의 아동을 平才集團의 아동과 비교하여, 心理的 測定方法에 의하여 創意性, 人性, 學業成就, 學習習慣, 自我概念에서의 特性들을 調査하고, 行動觀察方法에 의하여, 學習, 動機, 創意性, 指導力, 意思傳達, 抽象的 및 空間的 思考, 適應에서의 特性들을 調査한다. 또한 知能要因과 創意性要因 간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英才集團 아동의 人性, 學業成就度, 學習習慣, 自我概念 등의 心理的 特性 및 여러 行動特性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힌다.

이상에서 밝혀진 結果를 통하여, 英才 選別이

효율적이고, 객觀的이며, 正確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道具 및 方法 등의 開發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II. 研究方法

1. 研究對象兒

본 연구의 對象學校는 서울 시내에 위치한 6개 國民學校로서 文化的·社會的·經濟的 水準이 다른 여러 지역의 학교를 고루 포함시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6個 國民學校의 5학년생에게 知能檢査(金豪權·鄭範謨, 1971)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도시규준에 비추어 95%ile 이상의 점수를 얻은 아동인 337명을 英才集團으로 선정하고, 50%ile에 해당하는 점수를 얻은 아동인 285명을 平才集團으로 規定하여 英才集團과 비교하는 데 이용하였다. 이들 622명 가운데 최종 연구 대상자는 英才集團이 290명(男子 180명, 女子 110명), 平才集團이 271명(男子 127명, 女子 144명)으로 모두 561명이었다.

2. 調查道具

本 研究에서 사용한 道具는 英才集團을 선정하는데 사용된 道具와 그들의 行動 및 心理의 特徵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로 크게 나뉘어진다. 이 검사들은 또한 이미 標準化되어 통용되고 있는 檢査道具들과, 外國의 것을 導入하여 本 研究陣이 翻案한 檢査들로 구성되어 있다.

英才集團을 선정하는데 사용한 道具는 코리안 테스트 센터(KTC)에서 출간한 국민학교용「一般知能檢査 A형」(鄭範謨·金豪權, 1971)이었다.

英才兒童의 行動 및 心理의 特性들을 知能要因과 創意性要因 간의 관계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創意性 檢査는 역시 KTC에서 발간한「簡便 創意性檢査: 國民學校 上級用」(李榮德·鄭元植, 1971)이다.

이상의 검사에 의하여 각 집단으로 選定·配置된 아동들의 行動 및 心理의 特性을 認知的·情意的 영역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5種의 道具를 사용하였다. 각 집단에 속한 아동

들의 人性을 조사하기 위하여는 KTC에서 발간한「人性檢査: 國民學校用」(鄭範謨, 1978)을 사용하였다.

學習習慣을 調查하기 위하여는 韓國教育開發院에서 발간한 朴慶淑, 李蕙先(1976)의「學業에 대한 自我概念·態度·學習習慣 檢査」의 연구과정에서 개발된 學習習慣檢査를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注意集中行動·學習技術適用行動·自律學習行動의 下位領域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들의 自我概念을 검사하기 위한 道具는“How do you really feel about yourself?”(Williams, 1972)를 參照하여 본 研究陣이 翻案한 것이다. 이 검사는 미국 Pasadena Unified Schools District MGM Program에서 英才判別을 위해 사용했던 여러 道具들 중의 하나이다. 그 下位領域은 冒險心(Risk-taker), 好奇心(Curious), 複雜性(Complex), 想像力(Imaginative)으로 나뉘어진다. 被檢者인 아동이 각 陳述文을 읽고, 자기 자신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4단계로 評定하게 되어 있다. 이 검사에서 아동이 획득한 점수가 많을수록,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肯定的이라고 해석된다. 研究對象兒童의 行動特性을 알아보기 위하여, 教師用 行動觀察目錄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Fairfax County Public Schools에서 英才兒童의 判別을 위해 사용했던 多次元的 選別道具(Multi Dimensional Screening Device)를 참고로 하여 本 研究陣이 翻案한 것이다.

이 觀察紙를 사용한 目的은 多次元的 基準을 적용하면서, 용이하게 英才를 判別하려는 데 있다. 觀察對象의 行動特性은 7個領域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領域은 구체적인 行動을 陳述한 10개의 項目들로 구성된다.

評定方法은 教師가 아동의 行動을 관찰한 후 각 項目에 제시된 行動特性이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頻度(특정행동을 할 수 있는 機會에 비하여 그 행동이 나타난 比率), 強度(그 行動에 쏟는·知的·情緒的·心理的 에너지의 量), 質(특정 행동의 遂行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才能이나 遂行의 特出한 정도)에 따라 4點 척도로써 評定하게 되어 있다.

觀察對象의 行動特性은 學習·動機·創意性·指導力·意思傳達·空間的 및 抽象的 思考·適應力

특성들이다.

自我概念檢査와 教師用 觀察紙의 妥當度와 信賴度는 계산되어 있지 않으나 問項의 選擇 및 觀察時에 수 차례에 걸친 研究陣들의 討議를 거쳐 決定하고, 修正補完함으로써, 各 道具의 信賴度와 妥當度를 높이려고 시도하였다.

Ⅲ. 研究結果 및 論議

1. 英才集團의 行動特性

英才의 行動特性을 구명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知能檢査에 의하여 區分된 英才集團과 平才集團의 行動特性을 비교하였다. 이 결과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行動特性 領域에 있어 英才集團의 平均이 平才集團의 平均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들 平均의 差를 t檢證에 의해 분석한 결과 모든 領域에서 $\alpha=0.001$ 의 水準에서 的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結果는 調査된 7個領域에서 모두 英才集團의 아동들이 一般의으로 平才集團의 아동들에 비하여 肯定的으로 教師들에 의하여 評定되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것은 先行研究인 李鍾昇의 (1980), Gallagher (1975), Renzulli(1978), Terman(1925) 등의 연구 結果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들을 各領域別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1> 行動特性에서의 英才集團과 平才集團 간의 差異

行 動 特 性	平 均		標 準 偏 差		t
	英 才	平 才	英 才	平 才	
學 習	31.9	22.1	7.3	9.0	14.2**
動 機	29.9	23.6	6.6	9.5	9.1**
創 意 性	29.5	22.5	7.4	9.0	10.0**
指 導 力	31.5	24.6	6.9	10.4	9.3**
意 思 傳 達	30.7	22.7	6.9	8.8	11.9**
空 間 的 · 抽 象 的 思 考	30.7	22.3	7.8	9.3	11.7**
適 應 力	28.7	22.2	8.4	10.7	7.9**

첫째, 學習特性면에서 보면 英才集團의 아동들이 平才集團의 아동에 비하여 學習過程에서 유창한 言語를 사용하고, 높은 표현력을 구사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事物이나 현상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학습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

타나고 있다.

둘째, 動機의 측면에서는 英才集團의 아동들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강한 動機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課題에 대하여 강한 執着力도 아울러 갖고 있다고 評定되고 있다.

셋째, 創意的 特性에서도 英才集團의 아동들이 자기의 課業에 심사숙고하며, 특이하거나 日常的이 아닌 방법으로 問題를 解決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指導의 特性에서도 英才集團 아동들이 보다 사교적이며 다른 아동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며, 주위 사람들보다 출신수범하며 때로는 다른 아동들의 活動을 지시하고 이끌어 가려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다섯째, 意思傳達過程에서도 英才集團 아동들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을 생각해 내며, 상황에 알맞고 他人이 理解하기 쉬운 表現을 골라 사용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여섯째, 空間的 및 抽象的 思考特性에 있어서도 英才集團의 아동들이 質的으로나, 強度에 있어서나 肯定的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주어진 內容을 자기 나름대로 數나 記號化하여 이해하려 하거나 수수께끼 · 퀴즈같은 것을 비교적 容易하게 이해하며, 장거나 놀이게임에서도 우수한 能力을 나타내고 있다.

끝으로, 適應力에서는 一般의으로 知的으로 뛰어난 兒童들이 生活適應面에서는 뒤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반대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기의 本分을 잘 이해하며, 자기 능력 및 역할에 맞게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一般의으로 英才集團의 아동들이 平才集團의 아동들에 비하여 肯定的인 行動特性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知能的 정도에 따라 學生들의 行動特性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와같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兩類相關係數를 구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의하면 全體의으로 높은 相關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學習特性, 創意性, 空間的 및 抽象的 思考, 意思傳達의 영역에서는 $\alpha=0.01$ 의 수준에서, 그외의 행동 영역에서는 $\alpha=0.05$ 의 수준에서 的의있는 關係를 보여주고 있다.

2. 自然概念

知能에 의하여 區分되어진 英才아동들의 自我概念水準은 平才아동들의 것과 비교해 보면 一般的으로 英才아동들의 自我概念水準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엄격한 意味에서는 그 結果를 달리하고 있다.

즉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自我概念의 總點에서는 英才集團아동들의 平均이 73.7, 平才集團아동들의 平均이 65.2로 그 차는 $\alpha=0.001$ 의 水準에서 的의있는 差를 보이고 있다. 이는 全體의인 면에서는 英才아동들의 自我概念이 平才아동들 보다 統計的으로 的의있게 肯定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表-2> 自我概念에서의 英才集團과 平才集團간의 差異

自我概念	平均 標準偏差				
	英才	平才	英才	平才	t
冒險心	18.4	17.4	4.7	9.3	1.6
好奇心	18.9	17.9	5.9	10.3	1.4
複雜性	19.1	17.9	3.9	9.9	2.0*
想像力	19.9	17.8	8.6	10.9	2.5*
總自我概念	73.7	65.1	16.9	19.7	5.5**

그러나 그 下位領域인 冒險心과 好奇心의 領域에서는 統計的으로 的의있는 差를 보이지 않고, 複雜性和 想像力의 領域에서만 差異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結果는 教師의 行動評定과 비교하여 볼 때 差異가 있다. 즉 教師들은 모든 行動特性에서 英才集團과 平才集團간에 的의있는 差가 있는 것으로 評定한 데 비하여, 學生들이 자기 스스로를 評定하는 데서는 冒險心, 好奇心 등의 영역에서 差異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學生들이 자기 자신을 分析的으로 評價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3. 學習習慣

學習習慣에 있어서는 英才兒童들이 平才兒童들에 비하여 보다 課題에 주의를 기울이며, 學習技術의 적용과정에서도 平才兒童과 다른 技法을 보였고, 平才兒童보다 自律的인 學習活動이 强하게 나타났다.

<表-3>은 英才兒童들이 모든 下位領域에 어있 總點과 마찬가지로 $\alpha=0.001$ 의 水準에서 的의있는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表-3> 學習習慣에서의 英才集團과 平才集團간의 差異

學習習慣	平均 標準偏差				
	英才	平才	英才	平才	t
注意集中	39.9	36.5	10.1	9.3	4.3**
學習技術適用	36.8	33.7	10.8	12.4	3.2**
自律學習	35.4	32.0	9.8	9.9	4.0**
總	117.4	329.9	214.5	338.5	6.4**

그러나 이 結果는 반드시 英才兒童들의 學習習慣이 좋으며, 平才兒童들의 學習習慣이 나쁘다는 것을 的의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표-4>의 兩類相關係數가 보여준다.

<表-4> 知能要因과 學習習慣간의 兩類相關係數 (r_{pbis})

學習習慣의 下位領域	r_{pbis}
注意集中	0.18
學習技術適用	0.13
自律學習	0.17
總 合	0.26

4. 性格特性

性格特性에 있어서는 英才集團과 平才集團간에 衝動性을 제외하고는 모든 領域에서 的의있는 差($\alpha=0.01$)가 나타났다.

즉 英才集團의 兒童들이 보다 支配的이며 安定的이며, 사려성이 깊고, 社會的이라는 것이다 衝動性에서는 두 集團간에 差異를 보이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英才兒童들이 衝動적이며, 情緒的 安定性이 결여되어 있어 社會性에서 문제점이 있으리라는 社會的 통념과는 相反된 結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一般的으로 보았을 때 平才와 英才간에 보이고 있는 差異인 뿐 결코 英才兒童 일수록 성격적인 면에서 肯定的인 要素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5. 知能과 創意性的의 相互作用

英才兒 研究에서 知能과 創意性的의 問題는 尙
(50 페이지에 계속)

教育計劃·政策의 研究動向*

金 鍾 喆

(서울大學校 教授)

I. 教育計劃·政策研究의 活性化 要因

최근 약 20年間に 걸쳐서 教育計劃·政策分野의 研究가 점차 活性化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企劃(planning)과 政策決定(decision making)은 본래, 教育行政의 過程要因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一般行政이나 經營에서의 過程要因과 마찬가지로 教育行政過程의 一部로서 研究되어 왔다.²⁵⁾ 그러나 教育活動에 대한 知的·合理的 準備過程, 또는 그 所產으로서의 教育計劃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보다 장기적·종합적 견지에서 教育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강화된 것과 軌를 같이하여 教育計劃은 廣義의 教育行政概念에 포함되면서도 대체로 教育行政政策에 先行하여 合理的 政策代案을 準備하는 과정으로서 그 獨自性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²²⁾ 教育計劃에 대한 多様な 研究로 점차 活性化되기 시작하였다. 教育計劃은 教育政策의 安定性和 效率性を 높일 수 있는 것으로서 대체로 教育政策에 先行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實用性이 높아진 것과 함께 理論的, 實踐的 研究도 활발히 진행되기에 이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教育政策이란 用語는 美國과 같이 高度의 分權體制 속에서는 地方公共團體와 大學當局 등을 포함하여 教育活動의 基本指針을 의미하였으나²³⁾ 한국에서는 國家教育和 관련하여 國民의 同意를 바탕으로 하고 國家의 公權力을 背景으로 하여 強行성을 수반하는 教育活動의 指針을

의미하며 國家의 主要 教育問題解決을 위한 最適代案의 선택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다.¹⁶⁾ 이와 같은 의미에 있어서 教育政策 역시 廣義로는 教育行政의 개념에 포함되나 狹意로는 教育行政에 先行하여 그 基本指針을 마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教育理念을 具顯하는 과정에서 그 手段으로서 教育政策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教育政策에 대한 연구는 教育計劃에 대한 研究의 關心에 앞서서 추진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 歷史가 오랜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대체로 최근 약 50年間に 걸쳐서 추진되었으며 특히 世界 第2次 大戰 이후 최근 약 30年內에 教育發展의 추세와 더불어 活性化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教育政策의 效率化和 教育計劃의 強化는 서로 相通되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추진되어 왔으며 다음과 같은 要因이 相互作用하여 빚어낸 것으로서 그것이 곧 教育計劃·政策의 研究를 活性化시킨 要因으로 作用하였다.

(1) 社會의 발전추세가 새로운 知識社會, 情報社會의 도래를 가져 왔으며 모든 분야에서 研究開發(R & D)의 重要性이 강조되는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것은 先進國家에서 비롯되었으나 발전의 단계를 달리하는 다른 국가의 경우에도 약간의 時差를 두고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의 경우와 같이 급속히 國家發展을 촉진하려는 과정에서 R & D의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었다.

(2) 國家發展, 또는 社會發展을 촉진하는 과정에서 教育의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教育發展을 촉진하기 위한 諸般 研究開發의 重要性이

* 本稿은 한국교육개발원 발행 (1980. 10) 교육연구개요지 교육행정 편에서 발췌한 것임.

강조되었으며 따라서 研究助成活動이 강화되었다. 研究의 助成은 研究費의 강화, 研究要員과 施設에 대한 助成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人的·物的 兩面에 걸쳐 추진되었다.

(3) 全世界的으로 計劃이 강화되는 時代的 背景 속에서 教育政策 社會政策의 研究가 강화되고 教育計劃의 方法開發이 촉진되었으며 그것은 유네스코나 經濟協力開發機構(OECD) 등 國際機構가 그와 같은 움직임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더욱 강화되었다. 研究結果의 活用으로써 理論과 實際를 架橋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累積的으로 相乘效果를 나타내는 결과가 되었다.

(4) 人事行政에 있어서 業績을 評價하는 成績主義原則이 강화되고, 특히 大學에 있어서 研究業績을 중시하게 됨으로써 教授들의 教育政策이나 計劃에 대한 研究를 촉진시키는 誘因으로 作用하게 되었다.

(5) 教育資料情報센터(ERIC) 또는 유사한 기구의 발족 등으로 國際的으로나, 國內에서나 研究情報의 交流가 보다 활발히 되었으며 研究要因의 交流도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諸要因의 複合作用으로 教育計劃政策의 研究가 活性化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한 가지 특히 지적하고자 함은 教育計劃이 주로 教育으로 하여금 國家의 經濟發展과 긴밀하게 연결케 하고자 하는 教育經濟學的 觀點의 高潮와 軌를 같이하여 研究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教育政策에서는 教育과 政治의 연관성을 구명하고자 하는 教育政治學的 觀點이 보다 크게 作用되어 왔다는 점이다. 아 물론 公教育의 운영에 대한 經濟學的, 政治學的 關心의 高潮와 함께 教育計劃·政策에 대한 關心과 研究가 活性化되어 왔다고 보여진다.

II. 研究의 國際的 動向

教育政策에 대한 體系的 研究는 한스의 教育政策의 原理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진다.⁴⁰⁾ 公教育의 발달과 教育에 대한 國家的 關心의 증대가 教育政策에 대한 실제적 關心을 증대시켰고 그것과 軌를 같이하여 教育政策研究에 관심을 높였음은 앞에서 論及한 바와 같다. 世界 여러 나

라에 있어서 教育政策의 研究動向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紙面의 여유도 없다. 다만 美·英·日 등에서 특히 두드러진 사실과 유네스코, OECD 등을 통하여 全世界的으로 추진된 主要研究動向에 관하여 간단히 다음에 지적하고자 한다.

(1) 美國에 있어서 教育政策의 研究는 그 分權의 教育體制와 多樣한 接近方法으로 말미암아 多樣하게 進行되어 왔다. 大學에 부설되어 있는 다양한 研究機關이나 個人들의 研究는 물론 全國教育協會(NEA)의 教育政策委員會(Educational Policies Commission 1935~), 大統領의 高等教育委員會(President's Commission Higher Education, 1940年代), 美國教育審議會(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카네기 高等教育委員會(Carnegie Commission on Higher Education), 西部地域州 高等教育委員會(Western Interstate Commission for Higher Education)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운 기구들이 教育政策, 특히 이 경우 高等教育政策의 諸問題에 관하여 研究를 추진하여 왔으며, 예컨대 高等教育의 문제에 관해서 機會均等, 學生에 대한 財政補助, 管理情報體制의 現代化, 管理體制의 쇄신 등 광범한 문제들을 연구해 왔다. 教育課程과 授業體制의 개선, 教育財政의 효율화, 實業教育의 진흥, 敎員教育, 特殊教育, 英才教育, 科學教育 등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政策의 연구 등도 다양한 조직체들을 통하여 다양하게 연구되고 또 활발하게 實驗되어 왔으며 實用主義的 教育哲學과 비교적 풍부한 研究費支援으로 말미암아 世界에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多樣性을 과시하고 있다.

(2) 英國에 있어서의 政策研究는 예컨대 高等教育에 관한 Robbins 報告書(1963)나 兒童教育에 관한 Plowden 報告書(1967)의 경우와 같이 特定한 목적으로 작성된 專門人團의 研究報告書가 教育政策, 특히 중요한 教育改革政策의 지침으로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Robbins 報告書의 경우 1960年代에 있어서 英國의 高等教育의 기회를 크게 擴大시키고 敎員養成大學과 新制大學 등의 制度를 改革한 것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高等教育 改革政策의 지침이 되었고 Plo-

wden 報告書는 就學前 教育의 公教育化와 初等教育의 改革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34)38)

(3) 日本에 있어서도 大學의 研究機關이나 個人의 研究外에 中央教育審議會, 社會教育審議, 敎職員教育審議會 등에 의한 答申書形式으로 제시된 政策研究의 重要性을 간과할 수 있다. 특히 中央教育審議會가 1971년에 4年間の 研究를 토대로 제시한 答申書는 日本의 教育制度 운영을 종합적으로 평가 검토하고 새로운 改革의 原理와 方向을 제시한 政策研究로서 큰 反映을 불러 일으켰다. 29)

(4) 1960年 先進國間的 經濟協力機構로서 발족된 OECD는 經濟發展과 教育과의 관계에 유의하면서 人力開發政策에 관하여 많은 研究를 추진하였으며 유네스코 역시 1948年의 발족 이래 教育發展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1960年代를 第1의 開發年代, 1970年代를 제2의 開發年代로 지칭하게 됨에 따라서 教育計劃과 더불어 教育의 改革과 發展政策의 研究를 지원하고, 또 추진해 왔다.

한편 教育計劃에 관한 研究는 대체로 1960年代 이후 活氣를 띠어 왔으며 國家의 側面에서 그 主要動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教育經濟學 教育政治學 教育工學 比較教育學 등 教育科學의 여러 분야와 다른 隣接科學間的 協力을 토대로 독자적이면서도 多學問的 接近方法(multidisciplinary approach)에 의하여 연구되고 있다.

(2) 교육계획에 관한 研究는 주로 教育計劃에 관한 國際會議과 세미나, 유네스코의 教育計劃 專門家의 養成 및 研修課程, 大學에 설치된 研究機關과 專門的 訓練課程 등을 통하여 추진되어 왔다. 유네스코는 1960年代에 베이루트, 뉴델리, 산티아고, 다카르 等地에 地域教育行政研究院을, 파리에 國際教育計劃研究院(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IIEP)을 설립하였으며 大學에서도 1960年代 이후 教育計劃에 대한 研究와 教育의 기회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다. 46)47)

(3) IIEP를 비롯하여 UNESCO, OECD 등 여

러 관련기관이 教育計劃에 관한 文獻과 情報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1975年 이래 캐나다의 온타리오에서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ducational Planners인 Educational Planning誌가 發刊되고 있다.

(4) 教育計劃에 관한 研究는 그 性格上 教育改革 教育政策 등에 대한 研究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同一의 個人이나 機關, 또는 國際機構가 教育計劃·政策研究를 같이 추진해온 경우가 많았다. 최근에 와서는 그와 같은 研究는 더욱 촉진되는 추세에 있으며 그는 世界의 거의 대부분의 國家에서 教育計劃과 教育改革을 추진하게 된 추세와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III. 韓國에서의 研究動向

韓國에서의 教育政策研究는 대체로 1960年代 이후에 추진되었으며 教育計劃에 관한 研究와 거의 흐름을 같이 해왔으므로 教育計劃·政策研究로 한데 묶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1960年代初 大學整備의 단행 등을 비롯하여 教育改革이 추진된 바 있으며 教育改革의 方向이나 方法 등과 관련하여 教育計劃·政策研究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졌다. 教育과 經濟成長(1965), 教育計劃의 基本問題(1966), 發展의 序章(1966), 教育과 國家發展(1967) 등이 번역 또는 저작되어 출간되었고 1968~70年間에는 15年間을 내다보는 初有의 長期綜合教育計劃案(1972~86)이 작성되었다. 1972년에 發足된 韓國教育開發院은 70年代 後半부터 그 政策研究機能을 강화하였으며, 再修生 對策, 中學校 義務化 등에 따른 政策研究를 비롯하여 文教政策의 當面課題와 직결되는 각종 研究를 추진하였다. 또한 1979년에는 13年間을 展望하는 長期綜合教育發展計劃案으로서 韓國教育發展의 展望과 課題(1978~91)를 研究報告書形式으로 출간하였다. 30)

(2) 文教部의 教育政策審議會(1971~)는 그 산하에 둔 專門委員會와 外部人力을 활용하여 政策研究를 추진하였으며, 특히 高等教育分科委員會 주관하에 73~76年間에 一般政策研究 18件, 73-75年間에 各 個別 大學의 政策研究 59件이 수행되었으며, 28) 그것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 밖에도 다수의 政策研究가 추진되었다. 1963年度부터 制度化된 文教部 研究助成會는 個人과 研究機關 또는 學會 등의 研究活動을 크게 助成하였으며 그 中 相當數는 教育計劃·政策研究의 부류에 속하였다.²³⁾

(3) 大韓教聯은 教育政策委員會와 教育政策開發專門委員會 등을 통하여 政策研究에 대한 관심을 쏟아 왔으며 1979년까지 政策研究 28집을 출간한 바 있다. 私立 中高等學校 校長會 등도 私學政策에 대한 研究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들 教聯團體의 政策研究는 敎員政策의 광범한 문제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서 教育發展 일반에 광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4) 大學의 碩士學位論文도 政策研究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며 1965~79年間に 있어서 全國 主要 15個 大學의 碩士學位論文中 教育行政分野의 主要論文 965篇中에서 教育計劃·政策과 직접 관련되는 것만 해도 최소 84篇에 달한다.²⁴⁾

(5) 한국의 教育計劃·政策研究는 教育發展의 전반문제에 관련되어 있으나 教育計劃政策의 實踐的 課題와 깊이 관련되어 敎員政策, 高等教育政策, 科學技術教育政策 등이 보다 높은 關心의 초점이 되어 온 것 같으나 보다 최근에는 教育課程과 授業體制의 개선, 教育財政의 효율화, 平生教育體制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그 關心이 擴散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教育計劃·政策研究의 特性은 그 높은 實用性에 있으나 그것이 보다 광범하게 教育行政學研究 方法論의 개선에 공헌하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計劃·政策研究가 비교적 풍부한 研究助成條件의 支援을 받고 있는 탓도 있겠지만 그 方法論에 있어서도 多學問間 協同研究를 자극하고 있고 따라서 보다 다양한 方法論의 적용을 자극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것은 學問研究의 方法論的 改善에도 도움이 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IV. 展望과 課題

教育發展의 추세를 감안할 때 教育計劃·政策의 研究는 앞으로 더욱 活性化될 것이 분명하

다. 教育發展을 위한 計劃·政策의 重要性이 강조되고 따라서 그 實踐的 課題에 대한 關心이 높아지고 있고 理論과 實踐의 架橋를 위한 必要性이 더욱 高潮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研究支援條件이 점차 개선,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山積된 教育問題의 해결을 위하여는 R & D에 보다 크게 依存할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相互依存性이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教育計劃·政策課題는 그 성격상 教育發展의 當面課題와 깊이 관련하여 研究의 關心도 特定分野에 集中될 공산이 크며 예컨대 國家發展과 관련하여 高等教育, 科學技術教育 등에 보다 많은 力點이 주어질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教育發展의 均等性이 강조됨에 따라서 보다 넓게 關心을 擴大하고 國家의 教育力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려는 觀點에서 종래에 자칫 등한히 되기 쉬웠던 부분, 예컨대 幼兒教育, 特殊教育, 社會教育 등 여러 부분에 대하여도 점차 關心이 擴散될 것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研究, 또는 關聯課題의 重要性이 더욱 浮刻될 것이다.

(1) 問題의 複合性으로 말미암아 協同研究의 重要性이 더욱 강조될 것이다. 協同研究는 教育學 內部에서 뿐만 아니라 教育學 外部에서 政治學, 經濟學, 社會學 등 다른 分野의 學者와의 協同을 포함한다.

(2) 未來志向의인 教育改革의 見地에서 政策 및 計劃을 研究하는 方向으로 문제에 접근할 必要가 커질 것이다. 教育問題의 解決이 政統적인 政策接近의 태두리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새로운 刷新과 改革을 요청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새로운 重點으로서 國際的 視野에서의 比較的 考察이 강조될 것이며, 學校教育의 태두리를 벗어나서 平生教育體確立의 견지에서의 政策·計劃 수립이 요청될 것이며, 研究方法面에서도 델파이法, 體制分析, 比較研究 등 새로운 接近이 요청되고 있다.

(4) 教育資料情報센터의 設置로 研究資料와 教育情報에 관한 交換이 보다 體系化되고 效率化되어야 할 것이다.

(5) 教育發展의 指標가 體系의으로 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 1) 朴東緒, “韓國行政府의 政策決定”, 行政論叢 제 4권 2호, 1966.
- 2) 白賢基, 教育政策研究 서울: 教育資料社, 1966.
- 3) 뽀·뽀그장, 平生教育, 서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74.
- 4) 서울대 大 教育行政研究所 編 碩士學位論文目錄 (1965~79, 各 大學教育行政分野) 1980.
- 5) 서울大 行政大學院 附設 行政調查研究所 編, 韓國行政 事例集, 法文社, 1974.
- 6) 宋花燮 譯(코난트 著), 教育政策, 서울: 學文社, 1977.
- 7) 長田新 監修, 教育政策學, 御茶の本書房, 1958.
- 8) 유네스코, 平生教育發展 세미나 報告書, 유네스코 韓國委員會, 1974.
- 9) 尹正一 外 教育投資效果分析,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78.
- 10) 李宗宰, 徐廷華 編, 主要國家의 義務教育制度, 韓國教育開發院, 1979.
- 11) 李英穩, 文教政策決定過程의 패턴 抽出을 위한 探索의 研究, 서울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71.
- 12) 李忠元, 東南亞 諸國의 教員養成 政策研究, 서울: 學文社, 1979.
- 13) , 東南아시아에 있어서 歐美 諸國의 植民地 教育政策에 관한 比較研究, 서울: 學文社 1977.
- 14) 李漢彬 外 3人 共編, 韓國行政의 歷史의 分析, 1948~1967, 韓國行政問題研究所, 1969.
- 15) 教育行政學研究會 編, 韓國教育政策의 探索, 서울: 語英社, 1979.
- 16) 教育行政學研究會 編, 現代教育行政 編, 서울: 螢雪出版社 1977.
- 17) 國會圖書館立法調查局 編, 우리 나라의 高等教育改革案, 1973.
- 18) 金圭澤, 教育自治制度後況에 관한 政策決定 過程, 새교육 128: 65.6; pp.115-121.
- 19) 金榮奉 外, 우리 나라 教育費, 教育需要形態 및 教育의 經濟成長 寄與 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75.
- 20) 金鍾喆 譯, (Harbison & Myers 著) 教育과 經濟成長, 서울: 乙酉文化社, 1965.
- 21) 金鍾喆, 教育計劃論, 서울, 教育出版社, 1973.
- 22) 金鍾喆, 韓國高等教育研究, 서울: 培英社, 1979.
- 23) 金鍾喆 外, 教員教育의 現實과 展望, 教員養成制度에 관한 協議會 報告書, 1977.7.25-8.3. 서울대, 1977.
- 24) 金鍾喆 外, 教育行政要員의 養成 및 資質向上 方案, 文教部 研究助成費에 의한 研究報告書, 1980.
- 25) 金鎮殷, 中央教育行政組織의 政策決定過程研究 서울大 教育大學院 碩士論文, 1966.
- 26) 宗像誠也, 教育と教育政策, 岩波新書, 1961.
- 27) 文教部教育政策審議會, 實驗大學 運營 5個年綜合評價報告書, 文教部, 1978.
- 28) 日本文部省, 學制百年史, 東京, 株式會社 ぎょうせい, 1972.
- 29) 韓國教育開發院, 教育發展의 課題와 展望 1978~91, 서울: 韓國教育開發院, 1978.
- 30) 韓國教育問題研究所 編, 文教史, 1945~73, 中大出版部, 1974.
- 31) 韓國產業政策研究所, 產政研究, (1973~
- 32) APEID, Continuing Education for Teacher Educators, Adranud-level Work-shops, Report of the Task Force Meeting, Tokyo, 13-25 March 1976.
- 33) British Committee o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Report of the Committee Appointed by the prime Minister under the Chairmanship of Lord Robbins, 1961-63, London: Her Majesty's Stationery office, 1963.
- 34) Campbell, Roald F. and Russell T. Gregg (eds.) Administrative Behavior in Education, New York Harger and Brothers, 1957.
- 35) Conant James, Shaping Educational Policy, New York, McGraw-Hill Co., 1964.
- 36) Cunningham, Luvern L. Governing Schools' New Approaches to Old Issues, Ohio Chades E. Mcrrill Co., 1977
- 37)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Children and Their Primary Schools (Plowden Report), Condon: HMSO, 1967.
- 38) Educational Planning, Jan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f Educational Planners, Toronto, Canada since 1975.
- 39) Hans, Nicholas,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Policy, London: Routlege and Kegan Paul Ltd., 1959.

(64페이지에 계속)

教師의 期待差는 學生에게 傳達되는가?

金 炳 聲

(本院 責任研究員)

教育研究는 심오한 理論檢證부터 教育現場의 경험 및 현상을 分析·記述하는 것까지 포함하게 된다.

여기서는 教育現場研究의 하나로 學生의 學業成就에 대한 教師의 期待效果(Expectancy effects)를 중심으로 이에 관련된 研究素材를 찾아보고자 한다.

教師의 學業成就에 대한 期待의 高下가 결과적으로 學生의 成績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다는 것은 Resenthal과 Jacobson(1968)의 Pygmalion in the classroom에 잘 例示되어 있다. 이는 教師의 자연상태에서의 기대수준이나, 또는 實驗處置에서의 誘導된 기대이전 教師의 期待效果는 學生의 學業成就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教師의 期待는 教師의 수업행동 즉 자료준비, 자료제시, 수업투여 시간 및 학생과의 相互作用過程 등에서 다르게 表出되어 지고, 그것이 특정 학생에게 傳達되어진다는 것이다. 또 Brophy와 Good(1970)은 보다 구체적인 수업행동의 二重分析方法(Dyadic Interaction Analysis)에 의하여 教室內 教師-學生의 行動資料를 분석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1) 教師는 學급의 수업행동에서 學生들의 학습수행에 차이를 기대하며,
- 2) 교사는 자기의 기대수준에 따라 학생을 다르게 취급하고,
- 3) 학생 역시 교사의 기대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 4) 교사에게 반응함에 있어서 각 학생은 교사의 기대를 強化해 주는 方向으로 행동하며,
- 5) 결과적으로 어떤 학생의 학구적 행위는 더 촉진되고 반대로 다른 학생의 학구적 성취는 저조하게 된다.

이러한 教師의 期待效果는 연말(또는 학기말)에 가서 결국 教師의 自己充足豫言(Self-fulfilling prophecy)의 假定을 지지하게 된다.

教師의 期待效果에 관련하여 教育現場에서 수행될 수 있는 연구의 假定과 方向을 다음의 다섯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學급의 일반적 風土要素에서 表出되는 教師의 期待差의 문제이다. 이것은 교사가 학생에게 濫情을 베푸는 정도에 있어서 높은 기대를 갖는 학생에게는 낮은 기대의 학생에 비하여 더 많이 준다는 것이다. 또 非言語的 形態인 학생과의 눈 마주침의 빈도, 교사의 눈 표정, 고개의 움직임,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형태로도 교사의 기대수준이 전달된다.

둘째로, 學生行動에 대한 反應에서 더 적극적인 칭찬, 격려의 정도에 따라 교사의 기대수준에서의 差異가 나타난다.

셋째로는, 授業投入 要素에서의 期待差를 들 수 있다. 이것은 높은 능력이나 기대를 거는 학생에게는 개별지도를 많이 하고 질문에 대한 반응시간을 길게 하거나 질문을 再構成해 주는 것, 또 힌트와 자료제공을 많이 해 준다는 점이다.

네째로는, 학생의 反應機會에서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높은 기대를 거는 학생에게는 질문을 자주하여 반응기회를 많이 주고, 보다 知的인 반응을 유도하여 반응의 정확성과 기회를 높여 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教師는 자기가 知覺한 학생의 능력 수준에 따라 學習資料나 그 내용 구성의 難易度 水準을 정한다. 따라서 교사의 기대수준에 따라 課題附加의 자료준비 및 그 제공의 量에 차이가 나게 된다.

效果的인 英語學習 指導方法

㉔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학습에 있어서 듣기, 말하기, 능력 신장을 위한 효과적인 학습 지도방법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울산 제일 중학교 교사 이 종근)

㉕ 效果的인 英語學習 指導方法에 관해서 답하기 전에 英語學習 指導를 위한 몇 가지 根本的인 問題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英語教師가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말은 "우리 나라 英語教育이 根本的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6년 내지 10년 동안 다른 教科와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은 時間과 努力을 기울였는데도 英語 한 마디 할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비난에 教師들은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저질러 놓은 罪인 양 주눅이 들어버리곤 합니다.

教育, 특히 좁은 意味에서의 學校教育은 意圖된 教育입니다. 이 意圖의 源泉을 크게 셋으로 보면, 1) 國家의 意圖가 있고, 2) 學校(教育者)의 意圖, 3) 學生(彼教育者)의 意圖가 있으며, 英語教育도 例外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英語教師는 英語를 가르치고 배우는 理由, 즉, 궁극적인 目的을 이상의 3次元에서 各各 살펴본 후에 이들을 조화롭게 統合하여 各學校, 各學年에 맞는 具體的인 目標을 設定하고 目標이 잡혀 있으면 전국에 획일적으로 주어진 教材內容을 目標과 現實的인 教育條件에 맞도록 再構成해야 합니다. 이 때에 問題가 되는 것은 教育條件입니다. 教育條件에는 教室內的 條件과 外的 條件이 있습니다. 教師가 考慮해야 할 教室 外的 條件은 學校 밖에서 學生들이 英語에 露出(exposure)되는 機會와 英語에 대한 社會의 一般的인 態度입니다. 教室內的인 主要條件은 教師 및 學生의 水準, 教科書 및 補助機材, 學生數를 비롯한 教室 環境입니다.

具體的인 目標과 現實的인 教育條件에 적합한 教授·學習內容을 再構成한 다음에 效果的인 教

授方法을 研究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具體的인 目標의 設定, 教授·學習內容의 再構成 없이 效果的인 英語學習 指導方法이란 空虛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學生, 學父母, 國家가 우리 英語教師에게 要求하는 것은, 學生들이 中學校 過程을 마쳤을 때, 쉬운 英語를 들을 수 있고, 쉬운 英語로 말할 수 있고, 쉬운 英文을 읽고 理解할 수 있으며, 간단하고 쉬운 英文을 쓸 수 있도록 키워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課題가 아닙니다. 그 동안 우리가 入試 爲하여 구석진 것, 쓰이지 못할 것, 터무니 없이 어려운 것 등만 골라서 가르쳤기 때문에 우리의 罪도 아니면서 항상 불편한 負擔을 느껴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授業進行을 소개합니다.

1) 提示: 그림(단어 및 글의 內容), 實物, 母國語, 이미 배운 쉬운 英語를 매체로 하여 글의 內容과 語彙를 明確히 提示한 後에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답한다.

2) 句型練習: 새로운 structure와 關聯이 있는 先行學習 句型을 매체로 하여, mechanical drill→manipulated drill→meaningful drill의 練習過程을 거치는 동안 새로운 structure가 學生들에게 定着하도록 한다.

3) 深化·活用: 學生들에게 內在·定着된 構文·語彙를 매체로 하여 實際적인 自己의 身邊 이야기로 轉移·深化·活用해 보게 한다. real-life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 받아 봄으로서 Communicative competence(意思交換能力)을 길러줄 수 있는 매우 重要한 段階이다.

4) 整理 및 評價: 새로 배운 學習內容을 簡略히 整理하고 Comprehension checkup 등으로 간단히 評價해 보는 feedback(再投入)을 위한 段階이기도 하다.

以上的 提言에 先生님의 意圖와 맞으신 學급의 教育條件에 맞도록 活用하시기 바랍니다.

<본원 외국어교육연구실장 이 회숙>

학력 정착을 위한 자연과 수업모형

⊕ 국민학교 자연과 학력 정착을 위한 새로운 수업모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강화 선택 국민학교 교사 안 인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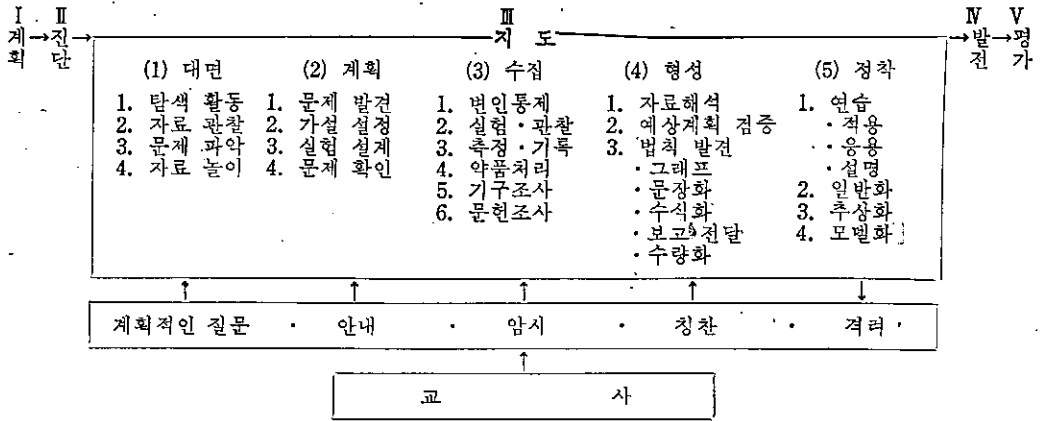
⊕ 지금까지 실험 학습, 탐구 학습, 발견학습 등의 다양한 모형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들 수업 모형이 명칭상으로는 각각 다르나 궁극적으로, '탐구로서의 과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1) 문제 인식→가설 설정→탐색→가설의 검증→정착

(2) 문제 인식→해결 방법의 구상→실험→결과 해석→발견

이와 같이 수업 과정간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연과 학습의 효과를 증진시키고 학력을 정착시키려던 수업 과정에서 학생의 전체적인 활동 절차가 보다 뚜렷하게 제시되고 교사의 역할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원에서는 새 수업 체제 개발을 위한 일반 수업 모형과 지도 단계에서의 하위 모형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의 과정은 단위 수업 시간(40분)에 모두 적용



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교과서의 장) 수준에서 학습 내용에 따라 3~4시간에 걸쳐 수업 과정을 전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까닭은 현행 교육 과정의 내용이 구조화된 지식이나 개념들을 위계에 따라 조직한 것이며 탐구 과정의 전과정을 거쳐야 하나의 개념이 형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학습 형태는 학습 내용, 학습 조직에 따라 관찰, 실험, 조사, 토의, 문답 학습과 개별 또는 분단, 공동, 일제 학습 등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면 단계에서는 탐구의 시발로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연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호기심과 의문을 가지게 하고,

계획 단계에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기 나름의 예상이나 검증, 실험 계획을 세우게 하

는 적절한 학습 형태를 택하여야 합니다.

수집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모든 지적 능력을 발휘하여 의문을 해결할 수 있는 실험, 관찰, 조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해야하며,

형성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토의, 문답 등을 통하여 자기의 실험 및 예상을 재확인 또는 수정하여 개념이 형성 되도록 하여야하며,

정착 단계에서는 형성된 개념을 다른 자연 현상에 적용, 응용 또는 해석해봄으로써 개념이 완전 정착되어 전이력을 가진 높은 차원의 개념으로 발전되게 하여야 합니다.

교사는 이러한 각 단계마다 계획적인 질문이나 암시 및 칭찬 등으로 학습 의욕을 높여 주고 탐구 학습이 가능하도록 격려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본원·과학교육연구실 주임연구원 김 승하〉

교육방송 프로그램 개편(예정)

그간 UHF 개국과 함께 방송되어 온 본원의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하여 본원과 문교부는 각각 시청율과 활용태도를 조사하였고, 이를 토대로 7월 1일부터(라디오는 7월 26일)는 여름방학 및 2학기 개편을 실시할 예정이다.

■ T V

○ 고등학교 학생의 귀가시간 및 학교공부의 여유를 위해 방송시간을 전반적으로 늦출 예정이며(고 1.2. 7:30부터, 고 3.9:30부터), 과목의 배치도 3학년을 주로하여 시청의 효과를 높이고도록 조절할 예정이다.

○ 유아교육은 육아부문을 축소 조정하여 시간대의 성격을 보다 뚜렷이 하고 프로그램형태를 개선, 강화할 방침이다.

○ 국민학교대는 예능과 사회(보충)을 줄이고 산수와 국어과목으로 보강할 것을 협의 중이다.

○ 일요일을 포함한 재방송대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운행하되 학년별로 과목이 겹치는 일이 없도록 조절할 방침이다.

다만 7월 1일부터 실시되는 개편에서 국민학교와 중학교는 방학을 감안 7,8월 2개월은 방학 중 지도를 골격으로 내용을 선정하고, 과목의 보강은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 라디오

국민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4주간의 라디오 편성은 가정 학습을 심화 보충하고 사회와 자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정서 함양을 도와 유익한 방학생활이 되도록 편성한다.

편성 개요는 1학기에 3시간의 본방송과 2시간의 재방송으로 짜여졌음에 비추어 금번 여름 방학부터는 재방송시간을 40분 줄이고 본방송이 3시간 40분이 되게 한다.

또한 각학년의 「탐구생활」 프로그램 외에 「명작」 「음악극」 「발명, 발견」 「자연시리즈」 「동요」 부문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중학생을 위한 영어 교실은 일반 청취자를 감안하여 점심시간에 방송할 예정이다.

※ TV 및 라디오 교육방송시청 및 청취, 또는 교재 내용에서 의문되는 문제가 있으면 한국교육개발원 방송교육 연구실로 문의 바랍니다.

(60페이지에서 계속)

40) Harbison, Frederick and Charles A. Myers, *Education, Manpower and Economic Growth*, New York: McGraw-Hill 1964.

41) Iannaccone, *Laurence Politics in Education*, New York: The Center for Applied Research in Education, Inc., 1967.

42) Lindblom, Charles E, *The Policy-making Process*,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68.

43) Rosenthal, Alan (ed) *Governing Education: A Reader in Politics, Power and Public School Policy*, New York, Doubleday & Co., 1967.

44) Simon, Herbert A.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MacMillan Co., 1957.

45) UNESCO, *Economic and Social Aspects of Educational Planning*, UNESCO, 1964.

46) UNESCO, *Educational Planning: A World Survey of Problems and Prospects*, UNESCO, 1970.

47) UNESCO, *Educational Planning, UNESCO and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1962.

48) Walton, John, *Administration and Policy-making in Education*, the Johns Hopkins Press, 1959.

원 내 동 정

■ 국제 회의 ■

○본원 원장 홍 응선 박사는 5월 4일부터 7일까지 마레이시아 대학 주최로 개최된 방송통신교육 아시아지역 심포지움에 참석하고 싱가포르를 방문 전 CEPTA-TV방송국 시설을 돌아보고 교육과정 연구센터를 들러 방송관계자료를 수집하여 귀국 하였다.

■ 회의 개최 ■

○국민학교 미술 4, 5, 6학년 교과용 도서개발 협의회가 4월 1일부터 3일간 개최되었는데 인천 교육대학 박 병천 교수 외 23명의 연구진과 집필진이 참석하였다.

○영재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협의회가 이화여자대학교 김 재은 교수 외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일 개최되었다.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가칭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협의회가 4월 3일부터 2일간 개최되었는데, 고려대학교 정 우현 교수 외 61명이 참석하였다.

○국민학교 교과용 도서개발 협의회(음악 4, 5, 6학년)를 4월 6일부터 3일간 개최하였는데, 이화여자대학교 오 숙경 교수 외 6명의 연구진과 서울 교육대학 장 창환 교수 외 9명의 집필진이 참석하였다.

○연구논문 개요지 발간을 위한 협의회를 숙명여자대학교 함 종규 교수 외 11명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4월 14일부터 2일간 개최하였다.

○교과용 도서개발에 관한 협의회가 문교부 박 용진 장학관 외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7일 영등 반도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인사 행정 조직에 관한 협의회가 서울대학교 김 영식 교수 외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2일부터 2일간 개최되었다.

○공업 교육목표 정립 및 교과목 내용 구성에 관

한 협의회가 개최되었다. 4월 27일부터 3일간에 걸쳐 개최된 이 협의회는 충남대학교 이재원교수, 문교부 박 용진 장학관 외 3명, 학계 및 교육 전문가 5명, 교과전문가 33명 외 다수가 참석하였다.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연구 협의회가 각 시·도 교육인사 담당관, 문교부 교직국장, 과장, 인사담당관 등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5월 13일 개최되었다.

■ 연 수 ■

○본원 관리직 전원을 대상으로 화일링시스템연수회가 4월 17일 본원 강당에서 실시되었다.

○교육방송의 구성이론 및 실제를 연마하기 위해 본원 연구원·방송원·기술원 10명이 캐나다 앨버타 대학에서 4주간에 걸쳐 연수를 받고 있다.

이들 연수팀은 5월 18일 출발하였다.

- 연구원 김 임득 (영어과 담당)
- " 지 옥정 (유아교육 담당)
- 방송원 이 범수 (라디오 제작실장)
- " 이 중복 (중학교과 담당)
- " 정 성문 (고교 지리담당)
- " 이 원표 (고교 국사·세계사 담당)
- " 정 훈 (고교 정치경제 담당)
- 기술원 고 창욱 (V.T.R 담당)
- " 김 태원 (V.T.R 담당)

○이화여자대학교 시청각 교육학과 4학년 학생 8명이 5월 4일부터 30일까지 교육방송 전반에 대하여 실습을 받았다. 실습교육은 내용으로 ① 바람직한 교육방송 ② 교육방송 프로그램 내용 선정기준 ③ 편성지침 ④ 제작과 각부서의 기능 ⑤ 프로그램 심의기준 등의 종합교육과 TV 및 Radio의 제작과정, 제작기 술내용을 교육받고, 실제로 TV 및 Radio의 간단한 프로그램도 제작하였다.

월 내 동 정

■ 내 방 ■

○서울 인현국민학교 과 인성 교장 외 70명의교사가 본원을 방문하여 교육방송 시설 및 프로그램 제작과정을 견학하였다.

■ 귀 국 ■

○책임 연구원 김 수일은 1978년 3월 渡美하여 플로리다 주립대학에서 성인교육(Adult Education)을 전공,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지난 5월 9일 귀국하여 교육발전연구부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그의 활동이 크게 기대된다.

■ 강연회 ■

○4월 9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유 달영 선

생의 “관의 정립”에 대한 강연회가 있었다.

○5월 1일 전직원들의 정신교육을 위하여 직장 새마을 교육원 김 일주 원장의 “새 역사를 창조하자”라는 연제의 강연회가 있었다.

○6월 1일 본원 강당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과 사회정화”라는 연제로 교육과정 연구부장 신 세호 박사의 강연이 1시간 동안 있었다.

■ 직원 건강 진단 실시 ■

○4월 4일 본원 강당에서 원내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이 실시되었다.

■ 직원 공개채용 ■

○ 5월 22일 직원 공개채용 시험이 실시되었다. 직종은 연구직·방송직·기술직이다.

독자 안내

TV 고교교육방송 교재발간.

TV 고교교육방송

UHF 채널을 통하여 방송되는 고교 교육방송은 고등학교 학생들의 보충 학습 효과와 대학입학 학력고사에 대비하기 위한 내용으로 매월 발행하고 있다. (시중 일반서점에서 판매중)

내 용 : 고등학교 14개 교과목

- 학습 목표
- 학습 내용
- 정리 문제
- 참고 사항
- 학력평가 문항(부록)

방송시간 : KBS 3TV 19:00~21:30

KBS 1TV 05:00~07:00 } 월~금요일

MBC TV 06:00~07:00 } 일요일

※ 7월 1일부터 KBS 3TV는 고등학교 1,2학년은 19:30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은 21:30분부터 방송한다.

교육개발 발간안내

1. 본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敎育研究 開發 및 現場敎育 改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간하는 敎育 專門雜誌이다.
2. 본지의 편집내용은 敎育理論과 實踐에 관한 論說 및 研究報告, 敎育開發 消息, 現場敎育 研究, 敎壇資料, 그 밖의 研究情報 등으로 한다.
3. 본지는 독자의 投稿를 환영하며, 採擇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단, 원고의 採擇與否, 게재순서는 본원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접수처 : 1131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 20-1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개발 편집실 (전화 57-5020, 57-5121)로 한다.)
4. 본지는 격월간 정기 간행물로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에 발간하여 非賣品으로 敎育기관, 敎育관계 인사 및 有關기관에 배포한다.

격월간 **교육개발**

제 3권 3호 · 통권 12호

1981년 6월 5일 인쇄 · 1981년 6월 10일 발행

등록 바-574(1975년 8월 20일)

발행인 **홍웅선**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우면동 산20-1

전화 57-5121, 57-5021

인쇄처 **신성인쇄사**

*本誌의 內容은 本院의 公式的인 意思가 아님.

